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80 www.buddhanews.com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주간) 제 291 호

금주 법구

남의 과실은 보기 쉬워도
나의 과실은 보기 어렵다
실로 남의 과실은 버 겁질같이 벗기면서
자신의 과실은 덮어두나니,
교활한 도박사가 불길한 것을 감추듯.

-법구경-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서칠불상의 모든 것
책임 성심껏 뜨립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자기를 바로 봅시다

복지

지도자 복지마인드 부족 내실없이 외형위주 성장



이달 들어 20여곳 이상의 교계 각 복지관과 시설들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다양하게 열렸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펼치고 지역사회복지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젠 불교복지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채 10년이 되지 않는 불교복지의 역사를 감안하면 평가받을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석구석을 세밀히 살펴보면 아직 부족하고 안타까운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전체적인 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200여곳 정도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이 유기적이고 합리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력에 비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말 조계종 복지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복지포럼'에서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금도 많은 관계자들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운영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몇몇 분야로 활동이 편중되는 것도 문제다. 일례로 장애인 복지의 경우 개신교와 가톨릭은 100여개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불교계는 4개뿐이다. 아동·여성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다. 운영하기 편한 복지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골치아픈 분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복지마인드 부재'다. '불교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소명의식이 불교복지계, 특히 교계 지도자들에게는 없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것이 있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 정도면 됐다'는 현실안주 성향도 나타나고 있고, 단순히 포교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지금까지 외형적 성장을 이뤄온 것은 자신을 희생하며 복지에 뛰어든 몇몇 스님과 불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1세기 인류의 현안은 '복지'다. 복지를 소홀히 하고서는 어떤 종교도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다. 더욱이 복지의 근본이 넘은 불행과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불교사상과 맞닿아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불교계의, 교계 지도자들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표점없는 디지털대장경 '무용론'

한문전문가 아니면 검색 '그림의 떡'
"단락나눔·문장부호 표시 시급하다"
신수대장경 1934년 표점작업 완성

경전 전산화의 성과물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경전 대중화의 반석을 다진다는 본래의 몫을 못하고 있다. CD나 인터넷상으로 읽을 수 있는 〈고려대장경〉, 〈한국불교전서〉 권4 등 디지털 한문본(本) 경전의 제작과정에서 표점 작업을 생략해 한문에 익숙한 전문가 집단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점 작업이란 한문을 읽을 때 해석이 편리하도록 단락을 나누고 조사를 붙이고, 여기에 마침표·쉼표·느낌표·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집어넣는 일이다. 이 작업은 원전을 한글로 옮길 때 기준을 세우고 또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전산화에서 가장 중요한 최소의 정보(의미) 단위를 나누는 데 척도로 삼을 수도 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완성되고 있는 디지털 경전들은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로 포장돼 새로운 방식으로 읽는다는 것만 다를 뿐, 단락과 문장 부호 없는 원전의 지면 구성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련 학계나 연구소 등 경전에 대한 표점 작업에 관심을 보여야 할 곳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기미조차 없다.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가 20일 '불전전산화의 제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조차도 예전의 전산화 관련 세미나와 같이 의미, 전망, 기술 등에 대한 점검만 있을뿐 표점을 주제로 한 언급은 스쳐지나가는 수준이었다.

전자불전연구소는 4년째 〈한국불교전서〉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에 어떤 문장부호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불전연구소 한 연구원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인력과 재정이 뒤따르지 않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경우 실상사 화엄학림과 함께 자체적인 표점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공개를 꺼리고 있다.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 자칫하면 학자들의 '맞다' '틀리다' 논쟁으로 비화되고 대장경 전산화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작업은 80% 정도 진척되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작업이 마무리되는 2001년 하반기에 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 학계의 검증 과정을 밟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장학자들은 "경전은 대부분 4~11세기의 한자와 문법을 사용해, 해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한문에 익숙한 분들이 표점작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신수대장경〉의 단락을 나누고 색인을 하는데 10년 세월 동안 고승과 석학이 매달려 이미 1934년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대만의 〈불광대장경〉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 학승과 학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단락 외에도 마침표·중간점·따옴표·물음표·서명부호 등 10여 개 이상의 문장 부호를 사용한 대장경을 편찬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함장〉 〈선장〉 〈반야장〉 등이 발간됐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은 "〈신수대장경〉은 〈고려대장경〉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으니, 그것의 표점을 그대로 수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남북불교 통일토론회 12월중 개최 변함없다"

조불련, 생필품 지원요청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 위원장이 12월중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불교도 토론회 개최의 뜻을 거듭 밝혔다.

9~14일 5박6일의 일정으로 북한 노동당 창건 55주년 행사를 참관하고 돌아온 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 공동회장 법타스님과 박준호 사무총장, 이지범 사무국장 등 불교계 방북인사에 따르면, 13일 평불협 대표단이 조불련 청사를 방문해 박태화 위원장과 황병준 부위원장, 심상진 서기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이 남북불교도 공동토론회 개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대북지원시 생필품 지원을 요청했다.

이로써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불교도가 함께 모여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는 토론회 성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는 20일 회의를 열어 법전스님을 새 원로의장으로 선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원로의장 법전스님

청화·이두·원명스님 새 원로의원

9조계종 원로회의는 20일 오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공석중인 원로회의 의장에 혜인사 방장 법전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원로회의 의장은 지난 6월 8일 탄성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상태였다.

법전스님은 "부족한 사람이 큰 일을 맡게 되어 걱정이 되지만, 종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원로회의는 또 청화스님(곡성 성륜사 조실), 이두스님(청주 관음사 조실), 원명스님(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하고, 사무처장에 덕운스님(혜인사 길상암 감원)을 임명했다.

법전스님은 보궐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원로회의법에 따라 2004년 4월 1일까지이다.

원로회의는 종정 추대권, 종헌 개정안 인준권, 총무원장 인준권, 종회 해산 제청권, 종회 해산시 종회권한 대행권, 전계대화상 추천권 등을 지닌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이다.

☞2면에 계속

불교정보 WAP 서비스

19일부터, 019…011·017·016·018 곧이어

불교계 정보서비스 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 신문사가 창간 6주년을 맞아 (주)LG텔레콤과 손잡고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WAP(Wirless Application Protocol:무선인터넷 통신규약)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했습니다.

본사와 무선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프리즘 인포메이션 시스템㈜가 연초부터 개발에 착수해 완성한 불교정보 WAP 서비스는 이동전화를 통해 불교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로 구축됐습니다. 현대불교 신문사는 019 서비스 개시에 이어 곧 011, 017과도 서비스계계를 갖출 계획이며 016, 018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교정보 WAP 서비스 내용

△알림방: 뉴스 메뉴에서는 매일 매일의 불교관련 뉴스와 법회 및 행사, 주간 핫 이슈 등을, 알림방에는 각 종단과 사찰 단체들의 최근 정보를 담았습니다.

△공연전시: 공연전시의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물론 주최측의 연락처 및 공연전시의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상구보리: 법문에서는 현대 고승들의 법어를, 길을 묻는 이에게에서는 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의 신행 상담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 불교 백과사전에서는 베스트 불서와 화제의 책을 검색해 볼 수 있으며, 불교관련 방송 프로그램들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교정보검색: 기초용어사전과 불교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찰 안내: 전통사찰과 일반 사찰은 물론 해외 한국 사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카페: 게시판, 대화방, 법구와 운세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후 불교를 소재로 하는 게임방 등의 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 접속방법

019 무선인터넷 초기화면(wi-i)의 정보·커뮤니티 메뉴 중 7번의 건강·종교에서 종교를 선택해 3번 불교정보로 들어가면 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북한·대만 동참 의제로"

한중일 불교우호회의서 일면스님 등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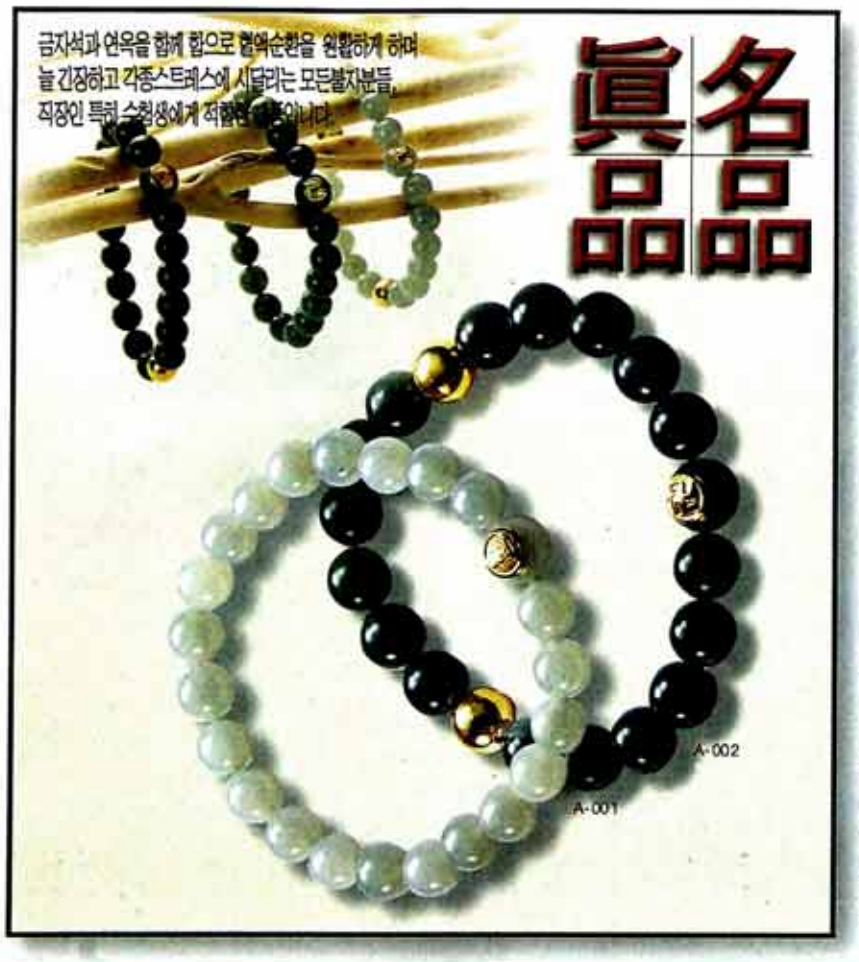
23일 개회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에서 북한과 대만의 참여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 처음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온 일면스님(조계종 교육원장)과 일본측 단장 고바야시 류쇼 스님은 북한·대만 불교의 참여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일면스님은 "북한과 대만의 불교대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동북아시아 경화와 평화정토 건설의 교두보 역할을 3국 불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쇼스님도 개인의견임을 전제했지만, 연설문의 1/3 가량을 할애해 북한과 대만 불교의 참여를 촉구했다. 류소스님은 특히 "조박초 전 중국불교협회 회장이 제창한 3국황금유대를 위해서도 북한과 대만 불교를 참여시켜야 한다"며 중국측의 답변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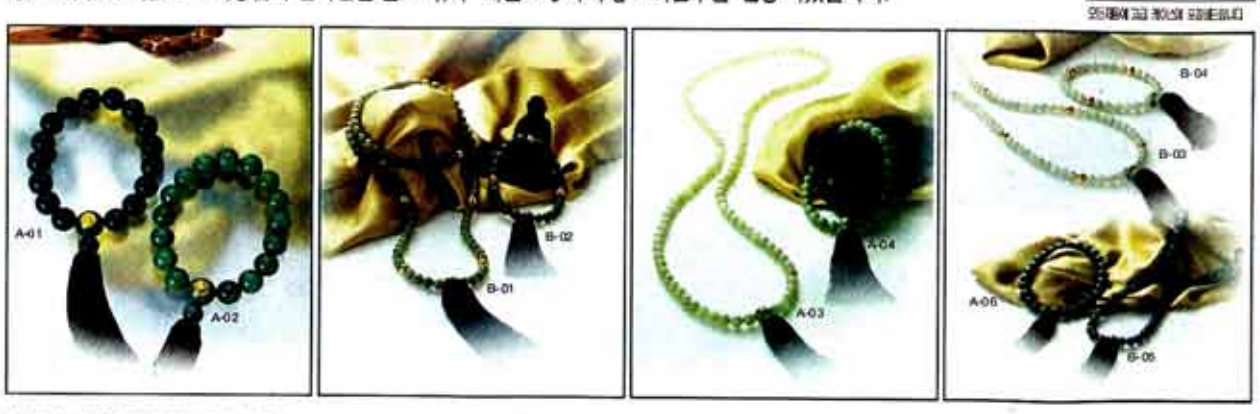
한·중·일 세 나라 불교대표들이 참여한 불교우호교류회의는 25일까지 서울 관문사와 롯데호텔에서 '신세기 세계평화 기원법회'와 학술심포지엄, 선언문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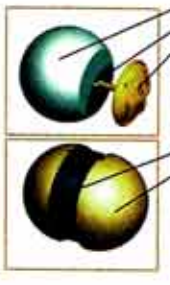


佛心의 깊이 만큼이나 깊고 찬란한 보석염주!
神秘한 氣가 발산하는 생명 에너지 광물!

佛心 의 깊은 마음으로 최상급의 연옥만을 갈고 닦아 예술로 승화시킨 보석염주를 탄생 시켰습니다.



옛 부터 오늘날 연옥이 신변 장신구로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석처럼 연옥은 실리콘과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사람신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지 즉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석으로서 갖추어야할 경도는 6~6.5이며 인성이 아주 뛰어난 보석입니다.
다른 저가의 옥 제품과는 비교가 될수없으며 모든 정성과 불심을 담은 귀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부처님상이나 귄 자를 14K (Gold) 로 양각으로 아름답게 조각하여 고정홈에 삽입하여 튼튼한 반영구적인 실용신안 제품입니다.
• 본 제품의 모양 이미지 별도 제작을 받습니다.

城倉宝石
SUNG CHANG JADE CO.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5-1
TEL : 737-6334 FAX :732-6336
http://www.scjade.co.kr

사 설

형상이 아니라 자성이다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한다. 과연 이 꽃을 본 사람이 있을까. 꽃을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꽃을 검증할 수 있을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때, 불상이나 사리에서 방광(放光)을 하고 땀을 흘렸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지만, 역사상 우담바라가 피었다는 기록은 들어 본 적이 없다.

〈일체경음의〉와 〈혜림음의〉라는 책에도 우담바라는 여래, 즉 부처님이 탄생할 때 나타나는 상서롭고 신령스러운 꽃으로 천상의 꽃이며, 사바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3천 년에 한 번 꽃이 핀다는 전설이 있으나, 그것을 보았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법화경〉 방편품에 "이렇게 미묘한 법은 부처님, 여래들이 시절이 되어야 말씀하시니, 마치 우담바라 꽃이 때가 되어야 한번 피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다. 또 게송에 "마치 우담바라 꽃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건만, 천상인간에 매우 희유하여 때가 되어야 한번 피나니, 이 법문 듣고 기뻐서 찬탄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는 벌써 삼세(三世) 부처님께 공양한 것이니라. 이 사람 매우 희유하기가 우담바라 꽃보다 더 하리라"하였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부처님의 나타나심과 설법 듣는 귀중함을 우담바라에 비유한 것이다.

〈금강경〉에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道)를 행하는 것이므로 결코 여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불교는 부처님의 형상이나 설법, 그 자체에 무엇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 불상이 상징하는 의미와 설법이 가르치는 내용은 마음으로 깨달아 증득하는 것이다.

설사 사바세계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꽃이 실제로 피어 상서로운 징조를 나투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봐야한다. 상징의 의미는 소중히 실천할지언정 형상에 현혹되어 만사형통을 바란다면 부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우담바라의 의미와는 하늘과 땅 차이 이상으로 멀고 어긋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는 불교와 불자들이 되기를 발원한다.

표점표기는 불교학 발전 척도

사전은 해당 문명의 경학(經學)과 국학의 모든 성과를 반영하는 척도이다. 경학이 보편성과 절대성을 표방한다면 국학은 지역성과 상대성을 표방한다. 한국의 경학은 한국의 국학이었다. 그런데 이 경학과 국학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표점'인 것이다.

표점(標點)은 문장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약속해 놓은 '부호' 또는 '점'이다. 또 한 문장 속의 의미를 가름하는 최소의 정보단위이다. 때문에 표점은 해당 학문의 수준을 반영한다. 표점은 문장의 해부도와 같다. 한 학자가 해당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동양학문의 경우 한학의 대가라 하더라도 〈고려대장경〉과 같은 전적(典籍)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해독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영미 내지 구라파 문화권의 전적에는 이미 수백년 전부터 등격 및 종속을 표시하는 콜론(:), 삽입 구나 절을 표시하는 콤마(,), 병렬·대비·대조로 나열되는 구나 절을 표시하는 세미콜론(;), 의문을 나타내는 퀘스천마크(?) 등의 여러 표점부호를 사용해 오고 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래 모든 한문전적에 '오루리가나' 내지 '구두점'을 찍었고, 중국이 문화혁명 이래 간행한 〈이십오사〉 등과 같은 고문헌과 그 이후 간행하는 현대전적에 모두 '간체자' 내지 '표점'을 표시한 것은 경학과 국학의 기반이 표점이었음을 일찍이 통찰한 결과였다.

따라서 최근 입력되고 있는 전산본 〈고려대장경〉이나 〈한국불교전서〉에 표점을 찍지 않는다면 그 장대한 작업의 의미는 크게 반감될 것이다. 표점은 고문헌의 표준번역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존번역을 점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화의 의미를 배가시키는 독특한 장치인 것이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표점은 필수적인 것이다.

〈고려대장경〉과 〈한국불교전서〉의 전산화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불교학자와 한문학자들이 모여 표점표기위원회를 구성 표점표기의 원칙을 만들어 표점작업에 참석토록 해야 할 것이다. 주체는 아무래도 지성의 산실인 대학(동국대)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출판과 전산 부문 등에서 표점을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뒤떨어진 불교계라는 경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표점의 무시로 인해 불교학계의 후진성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한다.

교구본사 신도조직 취약

조계종 분석 외지인 시주·관람료에 의존

조계종 사찰 중 신도조직이 가장 취약한 곳은 교구본사이며, 이들 사찰은 외지신도의 시주와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표적 교구본사인 합천 해인사의 경우 해당지역이나 사하촌의 신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구본사도 이 같은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아산 옥련암 등 포교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사찰은 신도구성에 있어서 지역민의 비중이 높고 사찰재정이 투명한 것은 물론 사찰이 사부대중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사찰이 지역행사에 결합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민과 신도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신도들의 삶의 질과 신행적 결속을 높이는 공동체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분석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 포교연구실이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모델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특징(종교, 경제) △지역불교 및 사찰위상 파악 △지역사찰의 포교현황과 전망 △지역사찰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16개 지역 교구본·말사를 조사한 결과 나온 것이다.

포교연구실은 1차 보고서에서 지역사찰의 역할과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사찰역할 증대 △사찰의 사업과 재정 투명화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찰활동 역할담당 스텝구성 △주지스님의 헌신성을 중요항목으로 설정했다.

실천방안으로는 민주적 사찰운영을 통한 주지스님의 위의 형성, 신도들에게 책임과 권한 부여, 인력배치, 사찰포교재정의 지역회향, 신도조직화 및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구축 등이 제시됐다.

포교연구실 김관태 과장은 "지역사찰은 지역사회에 밀착되어야 하며 조직도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편제돼야 한다. 발빠르게 문화코드를 읽지 못해 지역의 청소년, 청년불교가 실종되고 있다"며 "포교원 차원에서도 내년 예산에 지역포교사업을 반영하여 대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12월 '지역사찰의 역할과 모델' 자료집을 발간하여 포교자료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태고종 행자 130명 장기기증 태고종 제24기 합동 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 130명(남행자 108명 여행자 22명)이 19일 선암사에서 단체 헌혈과 사후 장기기증서약에 동참, 메마른 이 사회에 보살정신을 실천해 보였다.

조계종 사면 논의 '원점'

특위 종헌 수정 안해

조계종의 사면·복권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조계종 종헌 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정휴)는 18일 오전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총무원에서 제출한 종헌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지 않고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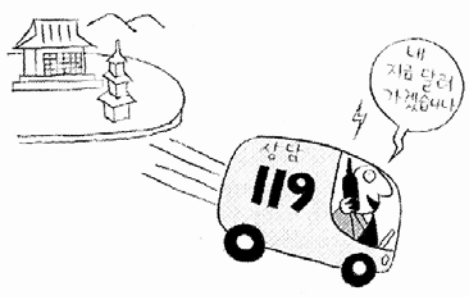
이날 회의에서 종헌특위 위원들은 종헌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법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총무원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지난 3월 열린 146회 중앙종회에 62년 이후 멸빈자의 사면·복권을 실시하기 위한 종헌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종회는 이를 종헌특위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했으므로 종헌 개정 논의는 3월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본회의에서 사면·복권에 대한 난상토론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법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라며 종헌특위에서 심의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면복권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원성) 사무처장 도관스님은 "18일 현재 20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등 5백여명이 사면 실시에 서명 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지역주민과 늘 가까이…

육자진언비 마니륜장엄

진각종 서울 총인원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16일 서울 총인원 육자진언비 앞 특설 법회장에서 '육자진언비 마니륜 장엄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남북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서원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이날 법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마니륜 장엄불사는 남북평화통일의 원만성취를 기원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총인원이 밀교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의미있는 불사"라고 말했다.

'옴마니반메훔' 육자진언비 후방 앞쪽 벽면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위시 금강정 유가 삼십칠존 불보살의 명호를, 좌우에는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비천상을, 뒤쪽 벽면에는 은혜경을 새겨 장엄했으며 진언비 둘레에는 54개의 마니륜을 설치했다. 이경숙 기자

중앙승가대 총장 추대

정인스님 고사



중앙승가대 총장권한대행 정인스님은 20일 총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승가대의 발전을 위해 운영회의 총장추대 고사는 물론 권한대행 보직도 25일경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운영협의회는 4일 제 44회 운영회의를 열고 현 총장권한대행인 정인스님을 총장으로 추대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신협특위 구성"

종회 재정조사위 촉구

조계종 종회 재정분과위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실태파악 조사위원회' 간사 장적스님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사위원회의 활동보고서를 통해 "특위를 구성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과 관리 실태를 철저히 확인, 재정사고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 25~27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조계사 신협과 횡령사고에 따른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피해 유무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관의 회계장부와 통장거래 내역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시재와 통장금액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이사장의 관리부재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조계사 신협 금융사고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 구성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책임 소재 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 행정적 조치 시행 △재정사고 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등 4가지 사항을 본회의와 총무원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적스님은 "올해 2~3월 사이에 장부상 기록없이 총무원 명의의 통장에서 상당히 큰 액수가 출·입금된 사실을 2건 파악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법전스님


◇청화스님


◇이두스님


◇원명스님

☞1면 '원로'에서 이어짐

원로의장으로 선출된 법전스님은 1926년 경북 금릉 출생으로, 35년 해인사에서 출가해 53년 봉암사 수선결사 이후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해온 선승이다. 48년 백양사에서 만공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백양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80년대 중앙종회의장(81년)과 총무원장(82년) 호계원장(84년)을 맡아 종단 운영에 진력하기도 했다. 이후 86~93년 해인사 주지에 이어 96년부터 해인총림 방장으로 추대돼 후학들을 이끌고 있다. 97년에는 원로의원으로 추대됐으며, 해인사 퇴설당에 주석하고 있다.

청화스님은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 40여년을 토굴에서 장좌불와하며 수행정진했다. 85~95년 곡성 태안사 조실, 95~99년 미국 팜스프링스 금강선원에 주석하며 미국에 한국선을 알렸다.

1929년 강원도 김화 출생인 이두스님은 51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화사 강운 대교과, 성균관대 졸업, 감사, 법주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는 청주 관음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인 원명스님은 1930년 경북 김천에서 출생, 43년 수도암에서 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조계종 5~6대 종회의원과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구 관음사에 주석하며 마하야나불교문화원 이사장,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한국인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민속한방의학으로 난치병을 다스리고 예방한다

전주 모악산 기슭에서 각종 암, 관절염, 디스크, 통풍, 신경통, 산후통, 루푸스 환자들을 치유하며 얻은 생생한 기록!

민속한방의학으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

유황약오리를 이용한 약물요법 · 항암약차 요법 · 쑥뜸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난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호도유 요법 · 수맥과 건강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기공 · 단전호흡



박천수 · 김인택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328p | 9,000원

민속한방의학으로 관절염을 이겨내는 방법

관절염 · 신경통 · 산후통 · 허리디스크 견비통 · 통풍 · 루푸스 치료법

한방약물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약차요법 · 쑥뜸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적절한 운동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단전호흡



박천수 · 김인택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232p | 8,000원

컬러만화로 보는
허준의 처방동의보감

건강진단에서 한방 처방전까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내 몸에 맞는 보약, 직접 진단하고지어볼 수 없을까요? 동의보감 처방의 바다에서 건강해법을 낚으세요.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활용하는 생활속의 한방의학 만화백과입니다.



1권: 정력과 활기 편 | 2권: 장부의 원기 편
글 · 그림 이정민 | 감수 하태현(한의학 박사)
각권 8,500원 | 전2권

태일 건강 총서

호가심 박사 황수관의 건강 따라하기
황수관 지음
황수관 박사와 함께 따라해 보는 매일매일의 건강치침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노화방지법을 찾아볼 수 있다.

뼈와 장수의 묘약 홍화씨 건강법
이인우 · 최진규 지음, 김관호 감수
부러진 뼈, 골다공증을 고치는 데 신통한 효력이 있는 홍화씨. 뼈에 관련된 여러 질병의 예방법 또한 나와 있다.

초두루미 구관모의 옛날 식초 장수법
구관모 지음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을 치유하는 식초요법. 식초 한 병이 산삼 만 뿌리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다.

無치료와 생식요법으로 병을 고친다
강형희 지음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食은 운명을 좌우한다
미주노 남보꾸 지음, 다마이레이이치로 편저, 최진호 편역
인간의 빈부와 수명, 미래의 운명까지도 음식으로 결정된다. 무절제한 현대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서.

不老長生의 지혜
최진호 지음
세계 장수촌과 선인들에게서 캐낸 건강장수의 비밀. 노화와 장수에 대한 20여년 연구의 성과물을 모았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허준의 후예들
김성수 엮음
한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한의대생들, 허준 같은 명의를 꿈꾸는 한의사들의 체험과 당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목어

사람이 좋다

사람이 그립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도 고독에 곧잘 젖는 현대인들의 말이다.

사람들은 혼자일 때는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다가도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피로를 느낄 때면 도리어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마치 고슴도치처럼 혼자 있으면 추위를 느끼고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으려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중성은 인간의 애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생각하게 한다.

자연을 벗 삼고자 산사로 발길을 떼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색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산사에서 대중들이 거처하는 요사채에는 일반 관광객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있다. 그런 곳은 대개 별다른 볼거리가 없기도 하지만 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어서 이 영역만큼은 작은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장소다.

이 '관광인 출입금지' 푯말 앞에서 하는 관광객들의 말이 문창호지를 통해 들어오기도 한다. "스님들의 공부하는 곳인가봐."

이해해 주는 마음이 고마워 정겹기까지 하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구경을 왔다가 아이가 이곳에 들어오려 하자 엄마가 내뱉는 말이 들렸다. "애야, 그곳엔 들어가지 마라! 사람이 싫단다!"

여러 상념이 오갔지만 무엇보다 그 아이가 그냥 저렇게 가버리면 절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한다는 관념이 자리잡지는 않을까 적이 염려가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출입금지' 구역을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세계야말로 바로 자기를 만드는 텃밭이라 할 수 있다. 석가는 철저한 고독을 통해 자기와 완전히 만날 수 있었다. 그가 가족과 세속을 떠나면서까지 진리를 찾았던 것은 모든 중생에 대한 애정이 지극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우리도 '출입금지' 구역을 갖고 싶다.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이 좋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김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이후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 '새국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89년 같은 상을 수상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위해 애써온 지도자로 평가받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불허하는 것은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와 문화주권수호'를 위한 국내외 주요인사들의 선언 이후에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주요 국제인사와 인권단체, 그리고 종교계 대표자들이 정부의 달라이 라마 방한허용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7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머레드 맥과이어가 달라이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온 이후 1980년 남미지역 폭력추방 연대운동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돌포 페레즈 에스퀴벌과 1992년 콰테말라 원주민 인권운동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리고베르따 멘추재단에서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왔다.

또한 세계적인 인권기구인 '휴먼라이츠 워치'(HRW)는 김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통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과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으며, 16~20일 아시아-유럽정상회담기간에 열리는 아셈민간포럼 종교분과에 참가한 세계NGO들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과 함께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요구하는 국내의 흐름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16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개신교 강원룡 목사, 불교 법장스님,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 최창규 성균관장, 김중배 참여연대 대표 명의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축하 및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로 접수했으며, 김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서울 중심의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와 문화주권수호'를 위한 서명운동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산돼 이미 10만 여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방한준비위는 20일 아셈 민간포럼 '서울행동의 날'이 열린 올림픽공원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플랭카드를 앞세우고 평화행진에도 참여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와 관련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라고 밝혀 기존입장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역대 평화상 수상자 아셈 민간포럼 참석자 '방한허용' 강력촉구

김대통령 "신중검토"



◇ '달라이 라마 방한성사와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이미 10만 여명이 동참했다. 서명운동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으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불허하려는 정부의 명분도 약해진 만큼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의 방한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한을 허가할 경우에도 사전에 이를 공식화하면 중국의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기습적으로 방한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한 예정일(11월 16일)을 전후, 11월 15일부터 이틀간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이 달라이 라마의 방한문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외교부 입장이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방한예정일 직전까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방한준비위는 일단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면서 오는 29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국민궐기대회(최소 3000명 참여 예상)를 갖는 등 대정부 비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HRW(Human Rights Watch)를 통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연대로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교, 더이상 성역일 수 없다"

강준만 교수 등 '인물과 사상'서 종교성장주의 비판

종교에 대한 비판이 계간지 무크지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계간 〈당대비평〉이 가을호에서 '쟁점:한국의 지식권력 3-권력으로서의 한국종교'를 다룬 데 이어 최근 나온 〈인물과 사상〉 16호에서는 '종교는 영원한 성역인가?'고 묻고 있다.

〈인물과 사상〉은 '무소유'의 법정스님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 대표 손봉호 교수, 크리스찬아카데미 명예이사장 강원용 목사 등 우리 시대 대표적 종교인 3명에 대한 인물비평, 불교와 개신교의 전근대성과 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있다.

강준만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는 30쪽에 이르는 머리말에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신도들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헌금을 거둬들이면서도 '도리어 가난한 신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종교의 존재 가치를 져울질해보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라고 묻는 한 재미목사의 말을 인용, 더 이상 종교의 영역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강 교수는 종교 문제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금기로 남아있는 것은 언론과 종교의 유착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언론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안되는 거라면 그건 비평의 가치가 없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이제 더 이상 종교는 성역이 아니다. 과거처럼 종교를 계속 성역으로 간주하는 한 한국사회엔 희망이 없다"고 밝힌 강 교수는 참여적 글쓰기를 하는 지식인들이 종교 문제에 침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웅기 재가연대 시민사회국장은 '한국불교에 희망은 있는가?'라는 글을 통해 "한국불교를 읽는 두 가지 키워드는 전근대성과 세속화"라고 규정하고 전통적 보수주의의 회복을 촉구했다. 정씨는 전통적 보수주의를 "정혜결사처럼 부처님 당시의 교단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또 재가불자들의 신앙형태도 "구복(求福)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행혁신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잡지들이 우리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고 의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후 종교 비판이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동국대 불교문화 BK21사업 평가 '대부분 하위권'

제도개혁 실적저조 등 이유

동국대 불교문화 BK21 사업단이 교육부 지정 인문·사회과학 분야 20개 사업단 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부가 이 달 초 발표한 '제도개혁' '사업목표' '체제운영' '사업비운영' 등 4개 항목에 대한 1차 평가 결과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불교문화 사업단은 교수 및 연구원들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은 우수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과 제도개혁에 대한 실적이 저조해 이 같이 평가했다.

당초 불교문화 사업단은 '한국문화센터' '불교전문도서관' 등을 설립하는 대단위 계획을 세웠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워 세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요구한 '추가적인 제도개혁'은, 동국대가 불교문화 사업단 선정과 함께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4천여만원의 '교육개혁 지원비' 중 80%를 학내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구축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는 "교육개혁 지원비의 사용은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사용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업단 한 관계자는 "규정은 그렇지만 학내 불교문화의 발전을 꾀하는 데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불교 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이 교육부에 강하게 어필되어 불교문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만큼 '교육개혁지원비'도 가능하면 불교학 자료실의 공간을 키우는 등의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동국대는 불교문화 사업단으로 교육부의 지정, 지원을 받는 대신 불교대학 학생의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중심제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어, 대학 안팎으로부터 적잖은 우려를 사고 있다. 따라서 동국대는 이 같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 스스로 '불교 발전의 한 축'이라고 호언했던 '동국대 불교문화 BK21 사업단'의 발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cu@buddhapia.com)



◇동국대 불교문화 BK21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동국학교 건학이념을 상징하는 석가여래 청동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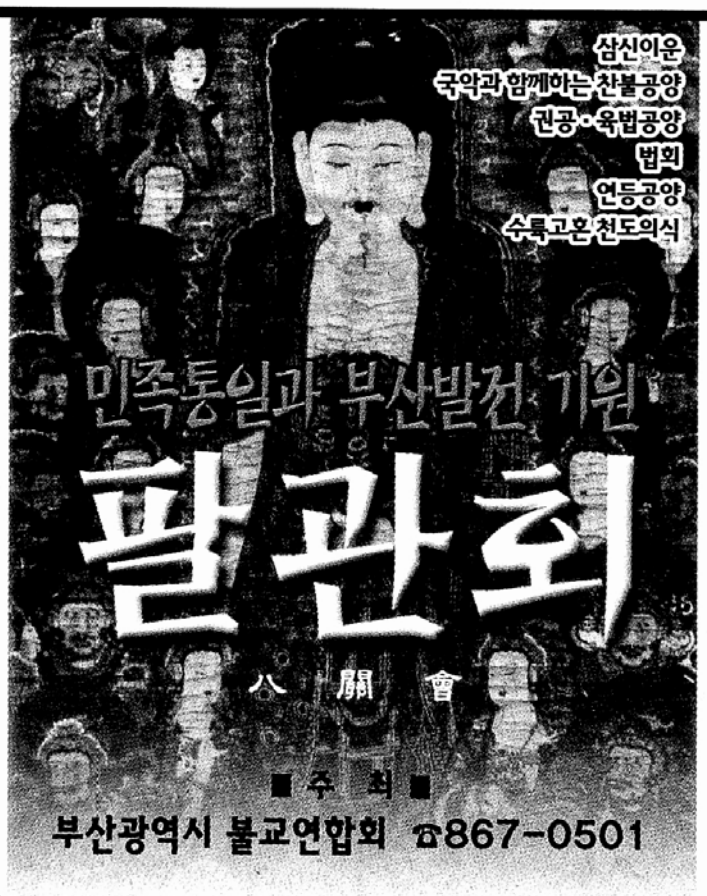
팔관회(八關會)

팔관회는 팔재계의 실천을 통하여 나라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로서,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팔재계는 불자들이 마음을 밝히는 수행으로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릇됨을 방지하여, 선을 기르고 악을 막아 공덕을 쌓은 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고장 부산에서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제불보살님과 대덕스님들을 모시고 민족통일의 원만성취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기 위하여 전통불교의식인 **"팔관회"**를 지극한 마음으로 봉행하고자 합니다.

팔재계(八齋戒)

1. 불 살 생(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
2. 불 투 도(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3. 불 음 행(음행을 하지 말라)
4. 불 망 어(거짓말(두 말, 악한 말, 꾸미는 말,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5. 불 음 주(술을 마시고 취하지 말라)
6. 지나치게 향을 바르고 춤추지 말라
7.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지 말라)
8. 때아닌 때 먹지 말라



10월 28일 토 오후 3시
해 운 대 백 사 장

동 참 방 법

1. 팔관회 연등 접수(1등 10,000원)
   가족의 소원을 담은 연등으로 해운대 백사장을 장업
2. 호법광명등 접수(가족등 1등 100,000원 / 팜플렛에 소개)
   각 사찰(단체)의 신도대표들과 불자 및 각계 지도자
3. 수륙고혼 천도재 접수(영가 1위 5,000원)
   전통의식으로 수륙고혼 천도재 봉행

실 천 운 동

1. 팔관재계
   10월 26일(목/음 9. 29) 각 사찰에서 입재
   10월 28일(토/음 10. 2)해운대 백사장에서 회향
2. 사랑의 절미운동
   일일 한끼를 금식하고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
3.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 및 자원봉사단 모집
   내 고장 부산의 큰 행사에 불교계가 앞장서도록 합시다.

■후원■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의회 ·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실업인회 · 釜山日報 · 국제신문 ·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 PSB 부산방송 · BBS 부산불교방송 · 부산불교텔레비전 · 대한불교신문外 교계 각 언론사

일주문

법련사서 초하루 법문



정일 보광사 조실은 27일 오전 10시30분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주지 오경)에서 열리는 시월 초하루 큰스님 초청 법회에서 법문한다.

지장만일기도 결사 입재식



지원 삼보사 주지는 15일 분원인 육지장사에서 바른 신앙·바른 신행 실천운동을 위한 지장만일기도 결사 입재식을 가졌다.

동국대 출가동문회장에



시몽 제주 법화사 주지는 18~19일 제주도 서귀포시 칼호텔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 동문회 수련회에서 제5대 회장에 취임했다.

신사 음악회 개최



적경 경기 남양주 봉인사 주지는 28일 오후 2시 한길 정진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자광전 앞마당에서 큰스님 초청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1)574-5585

내·외국인 화합 한마당



영담 부천 외국인노동자의집 이사장(불교신문 사장)은 29일 오전 11시부터 부천 중앙공원 야외 음악당(우천시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외국인시민과 한국인 시민의 화합을 위한 한마당 '우리는 부천을 사랑해요'를 개최한다.(032)654-0664

위안부 소재 '못다핀 꽃' 출판회



혜진 나눔의 집 원장은 26일 오후 3시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한, 희망을 담은 그림들을 엮어 영어, 일어로도 동시 출간되는 화집 〈못다핀 꽃〉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031)768-0064

조계종 기획실장에



성혜 前 중앙승가대 사무처장스님은 20일자로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됐다. 스님은 해인사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교육대학원을 나왔다.

'원효의 실천행' 논문 발표



김상현 동국대(사학과) 교수는 2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열리는 원효학연구원 주최 '원효성사와 대승불교의 실천행' 학술세미나에서 '원효의 실천행'을 발표한다.



Focus

한국의 차맛 원더풀!

아셈 민간포럼 종교분과회의에 참석한 외국인 20여명이 17일 조계사에서 '다도 체험'을 했다.

문화교육관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다도 체험'은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전통다도 연구원인 '가예원' 원장 설옥자씨의 설명과 다도반 수강생의 시연으로 진행됐으며, 참가 외국인들은 시연이 끝난 후 차를 직접 마시며 차에 대한 예법을 배웠다. 시연에 앞서 종교분과 외국인 참석자들은 조계사를 견학하고 대웅전에서 참배했다. 한명우 기자

"지식보다 지혜얻는 교육 역점"

부산시 교육감 취임 설동근 씨



"타성에 젖은 교육 풍토를 개선하고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일 제12대 부산시 신임 교육감으로 취임한 설동근(52·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 교육감의 다짐이다. 부산교육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은 설 교육감은 6년 여의 초등학교 교사 경험과 부산시 교육위원 경험 때문인지 일목요연하게 부산교육의 현 문제점과 개선책을 짚어 나갔다.

교육의 뿌리는 학부모에 있다고 단언하는 설 교육감은 "학부모 특강을 통해 자녀와 한 생명 즐로 이어진 학부모들의 사고와 교육관 정립에 힘쓸 터"라고 말했다.

두 번의 TV 토론을 거치며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설 교육감의 핵심을 찌르는 교육관이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는 설 교육감은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으로 도림 스님을 모시고 6년 동안 월 2회에 걸쳐 꾸준히 법회를 열만큼 신심이 돈독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교육 아닌 게 없다고 전제한 설 교육감은 "부처님 가르침을 인성 교육에 접목시켜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마음의 지혜를 키워주는 교육으로 정착시키겠다"며 "탈선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 보내는 장으로 활용할 인성 교육원 설립, 부산 학력 신장, 교사 교육활동 지원, 인성교육강화 등 7개 부분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교화복지회 청송감호소 수계법회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이사장 혜철)는 18일 청송 제2감호소에서 350여 감호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21명의 감호자가 수계를 받았다.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는 이날 수계받은 감호자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영치금과 일용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자불전硏 전산화 세미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소장 보광)는 20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에서 '불전전산화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광 스님의 기조 강연에 이어 이금석·이혜은(동국대) 교수,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허인섭(고려대장경연구소 학술부장) 박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군법당 호국 용마사 기공식

경기도 송추에 위치한 탄약대대는 12일 군법당 호국 용마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불교진흥회 혜명 법사, 3군단 전창엉 법사와 대대장을 비롯해 장병 70여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에서 혜명법사는 "법당 건립을 위해서는 불자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불어 어린이법요집 출판법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는 14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어린이법요집 출판기념 및 대불어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총재 정관스님,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 어린이지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박정자 선생의 〈어린이의 꿈을 하늘 높이〉 발간 기념법회도 함께 열렸다.

백남준 등 34명 문화훈장 수상



◇백남준 씨



◇故 윤경렬옹



◇한명숙 씨

비디오 아트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20세기 최고의 아티스트로까지 인정받고 있는 백남준 씨가 20일 문화의 날을 맞아 금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문화훈장 서훈자 및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수상자 등 2000년도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는 모두 34명. 이 가운데 불자로는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백씨 외에도 신라문화동호인회를 창립해 경주를 역사문화도시로 가꾸고 신라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헌신했던 故 윤경렬(신라문화동호인회 창립) 옹이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한국차문화협회장 이귀례(보관문화훈장) 씨, 가수 한명숙(화관문화훈장) 씨 등이 문화훈장을 받았다.

올해로 제32회를 맞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5호(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씨가 음악상을 수상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기도하면 춤사위 날아갈 듯"

살풀이 공연 한태경 씨



"이번 살풀이 춤 공연은 95년부터 〈관세음보살보문품〉 1만번 염송 회향 기념으로 참가한 것입니다. 춤을 추기 전 기도와 독경을 하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져 춤사위도 한껏 가벼워 짐을 느낍니다."

11일 하동 청소년수련원 개원법회에서 살풀이 공연을 한 무용가 한태경씨(24). 한씨가 독송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화방사 주지 효천 스님을 만나면서부터다. 대학입시 문제로 방황을 하고 있는 한 씨에게 스님은 경전 독송을 권유했다. 이후 한 씨는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금강경〉 〈지장경〉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져왔다.

무용 연습이 없는 날이면 강남 봉은사를 자주 찾아 기도한다는 한씨는 무용을 더욱 열심히 해 불교 포교에 일조하겠다는 뜻을 살짝 펼쳐 보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난치병 초등생 치료 막막



호소

한 초등학생이 재생불량성빈혈을 앓고 있으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수술비는 커녕 치료비조차 마련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박관수(8·사진) 어린이는 지난 7월말 자전거 핸들에 배를 부딪쳐 배의 혈관이 터지는 사고로 치료차 병원에 갔다가 재생불량성빈혈이라는 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됐다. 93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뒤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 온 관수네로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도움주실 분은 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을 이용하거나 (02)734-8050(생명나눔)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정일큰스님 초청 대법회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수행과 포교의 전당인 법련사에서는 10월 초하루(양력 10월 27일) 정일 큰스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큰스님 법문을 통하여 부처님의 정법의 향기를 느끼고 삶의 지혜를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00년 10월 27일
   (음력 10월 초하루)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법련사 대웅보전
3. 법사 : 정일 큰스님 (보광사 조실)

▶법련사 찾아오시는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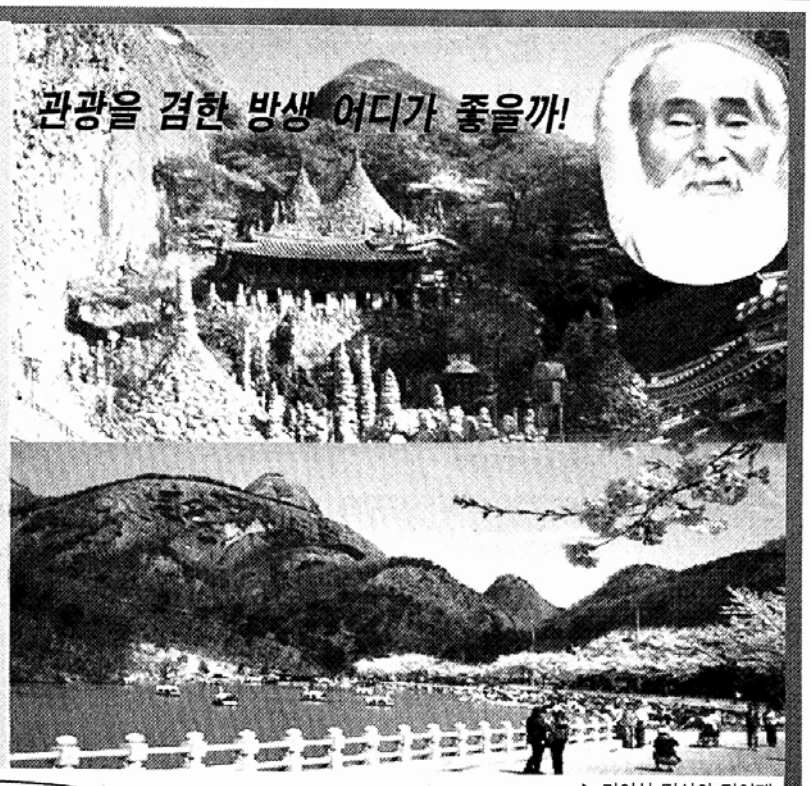
법련불교대학 강좌 안내

▣ 불교기초교리강좌
1.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2. 기간 : 2000년 10월 - 2000년 12월 (3개월간)

▣ 대승기신론 강좌
1.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2. 기간 : 2000년 10월 - 2001년 3월 (6개월간)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문의전화 : 02)733-5322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 063)433-2900,0303
432-0652,0072

직장법회 정토로 가꾸는 사람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누비는 안홍부씨.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양동선씨. 사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을 전하는 사이버 법사 박경수씨. 노래하는 포교사 머루와다래. 이들은 최근 동일직종 연합회를 구성하며 활기를 띠고 있는 직장직능법회를 이끌어가는 주역들. 바쁜 업무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이지만 오늘도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를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감사원 감사관 안홍부(53)씨. 지난 98년 감사원내 불자 공무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불자회 창립을 주도했고 감사원 특성상 출장이 많아 법회를 볼 수 없어 매달 순례법회를 제안한 것도 바로 그다. 그래서 지금도 순례법회 장소섭외, 홍보 등 모든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전국공무원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성지순례를 개최했고 그 자리에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을 이끌어 내 공무원 불자사이에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린시절 중·고등부 학생회, 대불련 활동을 통해 신심을 키운 그는 보건복지부, 행자부 불자회 창립을 돕기도 했다.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각 공무원불자들을 연결시켜준 것 뿐입니다"라며 겸손해 하는 안씨는 "앞으로 공무원불자회의 내실을 다져 불자공무원들이 나라일은 즐겁게, 국민들에겐 기쁨을 주는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국립서울정신법원 치과과장 양동선(42)씨는 그동안 매주 월요일 봉행하는 정신병원불자회 법회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는 신입법우에게 법당예절 등 기본 교리를 가르쳐 주고 지도법사가 없을 때는 집전을 하며 직장법회를 지켜온 신장이다. 게다가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창립 맴버로 지난 1일 필친 무료의료봉사활동의 모든 실무 업무를 도맡아 비지땀을 흘렸다.



◇비쁜 업무가운데도 직장법회 참석, 교리공부를 통해 신심을 키우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안홍부씨



◇양동선씨



◇박경수씨



◇머루와 다래

안홍부씨 감사원 불자회·공무원불자聯 창립주도

양동선씨 신입회원 교리지도·무료의료봉사 앞장

박경수씨 한전 통신망 시샵맡아 사이버법사 활동

머루와 다래 사찰순회공연·효도잔치·고아원 위문

2년 전 편도암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였기에 늙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매주 한번씩 가족들과 함께 가정법회를 본다는 그는 새 생명을 준 부처님께 감사하며 부처님의 자비의술을 실천하는 병원불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전력 해외사업처 박경수(45) 수화력 기술팀장은 요즘 무척이나 바빠졌다. 사내통신망 파워넷의 반야회 대표시샵을 맡으며 사이버 법사로 활동하고 있고, 11월 24일 백양사에서 열릴 전국전력인불자 연합대법회를 준비하고 있어서다. "온라인 상의 불교활동은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아주 유용한 신행활동공간"이라 말하는 그는 두루넷 불교동호회 아제아제 바라아제 대표시샵을 맡으며 매일 새벽 통신상에서 아침 예불을 드리는 등 사이버 신행에도 열심이다.

노래하는 포교사 더루와 다래(본명 김정안·48)도 불자가수들을 모아 대한불자가수회를 창립을 이끌어냈고 지금은 효도잔치, 고아원 위문 등 많은 행사를 기획하며 불법을 알리고 있다. 특히 4년전부터 전국 사찰 순회공연을 시작해 지금까지 다니지 않은 사찰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밖에도 철도청불자연합회 정찬연씨, 금융단불자회 이충훈씨, 한국세무사불자회 김태경씨 등 신심 돈독한 많은 불자들이 직장직능법회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피시통신 동호회들이 최근 오프라인모임을 통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심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14~15일 충북금산에서 열린 천리안 전국모임.

통신 불교동호회 전국모임 활발

유니텔 혜국스님 초청법회

하이텔 장애인 돕기 바자

천리안 금산서 친목 다져

하이텔, 유니텔 등 피시통신 불교동호회가 새 대표시샵을 선출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지역모임, 전국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유니텔 불교동호회는 18일 오기석씨를 새 대표시샵으로 선출하고 11월 5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전국모임을 가진다. 제주도 남국선원 혜국스님이 설법할 이날 대법회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 법련사에서 등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박경훈씨를 초청, 서경지역 법회를 가졌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도 지난달 27일 이성모씨를 대표시샵으로 선출하고 21~22일 강화도 남산유스호스텔에서 후반기 전국모임 칠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뇌성마비 중증 장애우 7명이 동참해 강화 전등사를 참배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가져와 경매방식으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전액 장애우들에게 전달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또한 14~15일에는 대흥사에서 백제모임주관으로 정기수련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웠다.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14~15일 충남 금산 진산자연휴양림에서 전국모임을 갖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졌다.

김두식 기자

우리모임에선

세무사불자회 보궁참배



한국세무사 불자회(회장 정구정)는 14~15일 강원도 일대 적멸보궁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회원 40여명은 지도법사 청호(봉은사 시민선방)스님과 함께 영월 법흥사, 태백 정암사, 오대산 월정사 및 상원사를 참배했다. 특히 14일 저녁 월정사에서 개인신행담 발표시간을 갖고 서로의 친목을 다지고 신심을 키웠다. 세무사 불자회는 앞으로 두달에 한번씩 테마가 있는 성지순례를 가질 계획이며 12월에는 인도·네팔의 부처님 8대성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경불회 연화사서 법회

경희의료원 경불회(회장 황보추)는 17일 연화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연화사 주지 정일 스님이 반야심경을 강의했다.

불교언론인회 수련대회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14~15일 백담사로 수련대회를 다녀왔다. 수련대회는 저녁 예불을 시작으로 주지 득우스님과의 환담, '선이란 무엇인가'(이은윤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남북화해를 위한 불교의 역할'(신광식)을 주제로 한 강의, 오세암 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련대회는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신철 경향신문 논설실장, 이계홍 대한매일 논설위원, 안평선 경인미디어 사장, 정회준 스포츠TV 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게시판

알림

▲불교문화체험의 장 설치=조계사는 29일 서울 시민의 날을 맞아 인사동과 안국동 일대에서 참선시연, 연등 만들기, 바라춤, 발우공양시연 등 불교문화체험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린다. (02)720-1390

▲장례서비스센터 개소=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장례서비스센터를 개소하고 화장을 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주민들에게 무료 장례차 및 장례버스 지원, 장례물품 관련상담, 장례절차 상담을 실시한다. (02)385-1351

강좌

▲무료 한자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일요일 1시 30분 무료 한자교실을 운영한다. 교재는 천자문과 반야심경, 금강경이고 배명고 한문교사 이승주씨가 강의한다. (02)571-2988

▲무료 요리·미용 특강=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4일 오후 2시 한식, 양식, 중식요리 및 상차림 요리 특강을 실시한다. 또한 27일 오전 10시 퍼머, 드라이, 커트,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을 내용으로 한 무료미용특강도 개최한다. (02)852-0525

▲천수경 수행과 기(氣)의 운용=기의학연구원은 24~28일 5일간 부산역 대한통운빌딩 15층에서 오후 7시부터 천수경 수행과 기(氣)의 운용에 관한 강좌를 개최한다. (051)441-8180

모집

▲자원봉사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교실 어르신들에게 영어를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한 관내 홀로 사시는 어르신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을 배달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02)2282-1100

▲연꽃마을 후원자 및 후원단체=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후원자 및 후원단체를 모집한다. (02)365-3677

▲경희의료원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은 병원 안내소, 놀이방, 치과병원 차트기록실에서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해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58-8112

▲호스피스 및 불교상담교육 수강자=대원사 자비신행회는 제 4기 한꽃 호스피스 및 불교상담 교육에 동참할 수강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금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비신행회 교육관에서 11월 3일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062)222-1165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에서 근무할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을 모집한다. 자격은 자격증소지자 및 교육수료자 등 관련자로써 30~50대 여성 불자로 구비서류는 이력서, 자격증(수료증)사본, 주민등록등본 1통이다. (02)385-8205

▲안산시립 영아의집 원장=안산시립 영아의집은 원장을 모집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비구니 스님이면 지원 가능하다. (031)408-3518

부음

▲불교방송 박관우기자 부친상=불교방송 보도국 박관우기자 부친 박찬영옹(향년 71세)이 18일 01시 30분 부산 동아대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 특별 할인 세일!

〃석씨향방에서는 동안거 입제일 전까지 특별할인세일 (20%)을 합니다. 동안거 선방에서 정진하실 스님께 최고의 향을 공양하십시오.
기간 : 10.23 ~ 11.8까지〃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 김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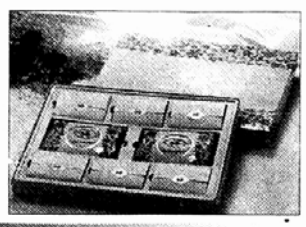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 석씨향방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3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마가 되면 끔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곽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발…점심…투약
영정촬영…구강검진

청년불자 150명 어르신 공경

신행 현장

조계사 독거노인 1400명 위안잔치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만 알고, 노인 공경할 줄은 전연 몰라" 노인들이 흔히 하는 푸념. 그러나 15일 조계사에 와 본 사람들은 20~30대의 젊은이들과 60~70대의 노인들이 사이좋게 어울리는 다정한 모습을 보며 '몹쓸 요즘 젊은 것들'에서 '기특한 젊은이들'로 인식이 바뀌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조계사 청년회와 서울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부 등 청년불자 150명은 종로구, 중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 1400명을 초청해 머리도 깎아드리고 점심도 제공하며 구강검진, 무료투약과 더불어 영정사진도 촬영해 주는 등 하루종일 쉴새 없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위안잔치' 무료 온열치료소에서 한 청년불자가 노인들의 시중을 들고 있다.

"기특한 젊은이들"칭찬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노인복지 대책은 거북이 걸음이라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심각할 정도. 조계사 청년회 등 불자들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따뜻한 부처님품안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편안하게 지낼수 있도록 노인들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정성껏 수발을 들기로 했다.

청년회원들은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의자를 배치하고 경내 여기저기 천막을 치며 행사준비에 몰두했다. 공양간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은 노인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야채를 다듬고 도마질을 하는 등 하루종일 주부가 됐다. 무료이발소, 약국, 사진관, 온열치료소, 기 맛사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천막을 치는 청년불자들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고 무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의 무표정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푸근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매월 한차례 서울불교청년회 회원들과 탑골공원에서 신앙상담, 무료의약상담, 법률상담을 실시해 온 유효순(39·롯데백화점내 악국 운영)씨는 이번 자원봉사에도 참여했다. 유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약을 드시고 더 건강해지고 편안해지시기를 기원드려요"며 한봉한봉 정성껏 약을 조제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김태석(39)씨. 회사일에 쫓겨 진정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김씨도 공양간에서 김치전도 굽고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씨는 "2주전부터 노인들에게 드릴 목도리를 포장하는 등 노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청년회 회원들 간의 친목이 더 두터워진 것 같다"며 "몸은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피곤이 절로 가신다"며 함박 웃음을 지어 보였다.

조계사 경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위안잔치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불자가수회의 특별공연으로 진행됐다. 지난 12년간 탑골공원에서 매월 2~3회 노인과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온 조계사 청년회원들은 점심공양 및 경내 자원봉사를 맡았고 노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렸고, 서울불교청년회 회원들은 무료약국을 찾은 430명의 노인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했다.

웃음소리 가득한 경내

주차장 한켠에는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부 회원들이 화장유언 남기기 캠페인을 벌여 900명의 노인들이 동참했다.

청년불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 기술을 이용해 구강검진, 무료이발, 온열치료, 영정사진 촬영, 기 맛사지 등의 서비스를 1400명의 노인들에게 정성껏 베풀었다. 마치 친 손자손녀처럼 손을 잡고 허물없이 대하는 청년불자들로 인해 노인들의 얼굴은 점점 밝아져 갔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계사 청년회장 전준호(35)씨는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한때나마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한 보람을 느꼈다"며 "우리 청년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부처님께서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을 말씀하셨다. "자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겨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자면 억겁을 수행해도 될 듯 말 듯 하다'는 생각을 하기 일쑤이다. 지레 포기하고 그냥 '복이나 듬뿍 주십시오' 하기도 한다.

불도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면 차라리 '나를 열심히 믿고 내게 구원을 청하라'고 하시지 왜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하셨을까?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 보아도 그것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앉아서 가로등을 쳐다 보며 내 방도 그처럼 밝아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안에다 불을 켜야지 밖에다 불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밖으로 찾으려니까 오만가지에 다 걸린다. 그러다 보니 늘상, 좋은 이름, 높다는 사람, 번듯한 건물을 찾아 헤맨다. 도무지 몸과 마음만 바쁠 뿐 별무소득일 수밖에 없는데도 앞을 다퉈 가며 향촉을 밝히고 공양을 올린다.

그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일인지도 모른 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당신의 노예로 삼자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중생들을 측은히 여기시어 대자유인으로 만들고자 이 세상에 오시어 법을 설하신 것이다.

자등명 법등명. 바깥 형상에다 빌고 절하지 말고 마음으로 불을 밝혀 자성불에 귀의하라는 말씀이다.

자성불을 외면하고 타력에 기대는 것은,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물 마실 생각은 않고 물병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랑을 갈구하면서 제 아비 제쳐놓고 남의 아비 찾는 것과도 같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유를 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어찌 그 뜻을 저버리고 형상어 매달리며 타력에 의지할 것인가. ※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재소자 교화 '인간방생' 법보시 동참 많았으면…



만오스님
포항 용주사 주지

청송 제1보호감호소 재소자들을 앞에 놓고 법문을 할 때는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가엾은 중생들이 왜이다지도 업이 많은가 하고, 이들 중에는 흔히 세속에서 말하는 별이 최하가 6개, 최고는 22개 심지어 23, 24개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인들이 가까이 가기도 꺼려하는 소위 '흉악범'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가까이 하고 그 본성을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성은 착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수형자들에게 〈인과경〉의 법문을 들려주면 점차 귀기울어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우렁찬 박수로 화답도 합니다.

사회와 격리되어 갱생을 위해 이곳에 와 있는 이들은 고통과 외로움속에서 지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딴 세상의 사람으로, 상대해서는 안될 끔찍한 별종으로 여기고 경계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다보니 충분한 죄값을 치르고 새 삶을 찾아 사회로 나간 사람이라도 그러한 경멸과 멸시를 당하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되고 그 화풀이를 종종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전과자들은 자꾸 '별'을 달게 됩니다. 처음부터 살인범, 흉악범이 되고자 한 사람은 없고 또다시 교도소나 감호소에 오고싶어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과 불안속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부처님말씀을 전하는 일, 인과응보의 도리를 알려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자들이 후원해주시는 법보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교정교화사업에 뛰어든 지도 십여년이 넘습니다. 수형자들과 만나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기쁨과 만족보다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신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들에게 부처님법의 광명을 드리워 새 사람이 되게 해야 할 텐데 내 힘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형자들이 불법을 만나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마음과 눈, 귀가 한가지씩 치료돼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처님의 가피력에 고마움을 느끼며, 불자들이 재소자나 비행청소년 등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선도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강으로 물고기 놔주는 방생만을 갈 것이 아니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으로 인간방생 가시기를 권유합니다.

전과자나 비행청소년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정도 쯤이야" 하며 사소한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큰 죄 하나를 지은 사람과 작은 죄를 지은 사람, 어느쪽이 더 죄가 무거운가 하고. 당연히 제자들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더 무겁다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큰 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돌을 제자리에 갖다두게 했습니다. 그러자 쉽게 큰 돌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작은 돌을 여러개 가져오게 했습니다. 작은 돌 수십개가 모이자 다시 그 돌 하나하나를 원 자리에 갖다놓으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작은 돌들은 어디서 가져온 돌인지 알수가 없어 정확하게 제자리에 갖다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큰 돌처럼, 드러난 죄는 참회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가능성이 있지만 작은 잘못은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면 방심하거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묻어두게 됨으로써 오히려 죄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참회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그늘진 사회 밝게 비춰요

신행캘린더

10월 25일 (수)

■ 대각국사 탄신 946주년 다례법요식=선암사는 오전 11시 대각국사 탄신 946주년 다례법요식을 만세루에서 봉행한다. (061)745-5247

10월 26일 (목)

■ 능인선원 성지순례=능인선원은 팔공산 갓바위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오전 5시 30분 경내. (02)577-5800

10월 27일 (금)

■ 조계사 대웅전 낙성기념 법회=조계사는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모시고 대웅전 낙성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720-1390

■ 봉림사 백고좌 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극락선원 선원장 금담스님을 초청하여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 창립법회=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는 지녁 7시 청사내 후생동 대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042)481-4675 김창균

10월 28일 (토)

■ 조계사 열린 강연회=조계사는 오후 3시 경내 문화교육관에서 〈만행, 화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스님을 모시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를 개최한다. (02)720-1390

■ 능인선원 3천배 철야기도=능인선원은 오후 8시 과거, 현재, 미래의 3천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참회하는 3천배 철야기도를 봉행한다. (02)577-5800

■ 금융단 불자회 합동법회=금융단 불자회는 오후 4시 30분 을지로 입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합동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국대 불교대학장 현각스님이 설법한다. (041)560-6744 김윤하

10월 29일 (일)

■ 법화사 추수절 3일기도법회=법화사는 31일까지 대웅전에서 오전 10시 추수절 3일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2)738-5225

■ 하남 정심사 대적광전 부처님 점안식=하남 정심사는 오전 10시 대적광전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다. (031)794-1222

10월 30일 (월)

■ 국립정신병원 불자회 정기법회=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는 정오 병원내 법당에서 이학주 교법사를 모시고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2204-0115

10월 31 일 (화)

■ 보현불교대학 우룡스님 초청법회=보현불교대학 오후 7시 불교대학내 대법당에서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한다. (042)624-6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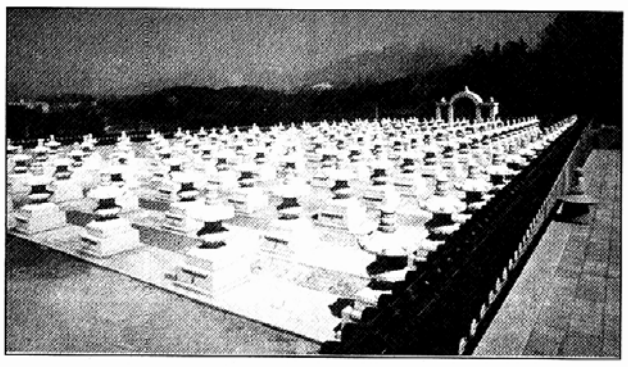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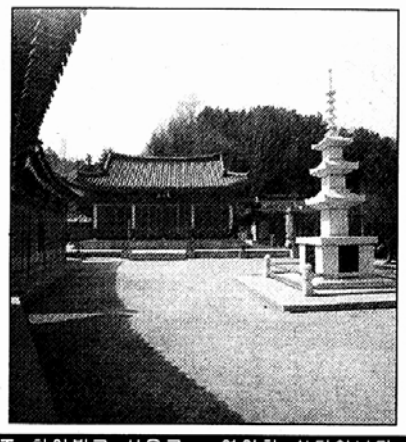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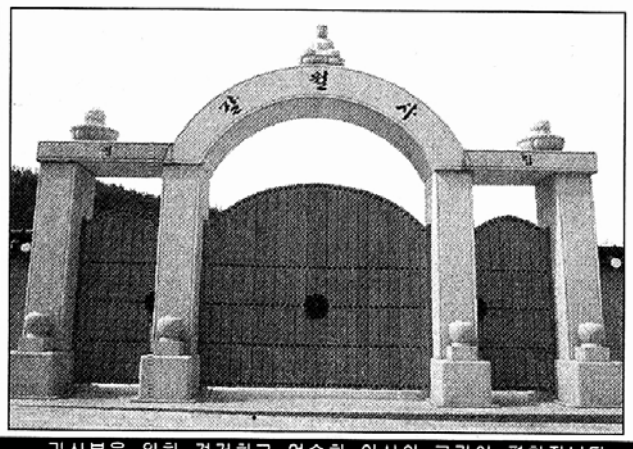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박태원 교수의 ⑨

불교로 보는 신생

노벨 평화상이 최초로 한국인에게 주어진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파를 타는 바로 그 시각, 세계는 중동전쟁의 재발 가능성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곧이어 꼬리를 무는 과보는 중동 전쟁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었다. 순찰중 길을 잘못 들어 팔레스타인 경찰서에 잡힌 이스라엘 순찰병. 증오의 격분에 불타는 사람들에 의해 건물 아래로 던져지고 곧이어 달려든 군중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다. 차마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지 못할 장면이었다. 업의 악순환은 얼마나 생생한 고통인 것인지….

노벨상으로 평화의 찬가가 울리는 바로 그 때, 전쟁의 악다구니 소음과 신음과 절규가 합창된다. 이 얼마나 기묘한 아이러니인가? 그러나 결코 기이한 일은 아니다. 평화의 찬미는 원래 다툼과 전쟁으로 인해 생겨나고 또 빛나는 것. 노벨 평화상과 중동 전쟁의 공포가 동시에 오버랩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바세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면모이다. 그 만큼 각자가 서로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이런 것을 일컬어 식견이 적은데도 많다고 믿어서 식견이 많은 사람을 도리어 헐뜯는 어리석음이라고 한다"〈보살계본지범요기〉.

자기 소견에 갇혀버린 사람은 자기 신념과 자기 주장에 꼭 달라붙어, '다름'을 싫어하고 부정하고 배척하며 공격한다. 세상은 그렇게 분열하고 대립하며 싸운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싸우노라 외친다. 이 모든 차이와 분열을 하나로 통일해 버리겠다며 소매 걷고 나선다. 그러나 이런 저런 차이를 하나로 통일시켜 평화를 이루겠다는 발상은 본질적으로 반(反)평화적이다. 자기 소견과 신념에 모든 것을 맞추겠다고 덤비는 것은 무지의 폭력일 뿐이다. 각자가 그런 폭력적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전쟁이 아니던가?

평화란 '차이들의 공존'이다. 낯설음과 다름을 담아 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평화의 그릇이다. 이런 저런 차이들이 지닌 나름대로의 일리(一理)를 읽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라야 난마로 얽혀드는 다툼을 풀 수 있다. 결국 '나' '나의 것'이

평화상이 주는 메시지

주니 절묘한 타이밍이 아닌가? 전쟁이란 무엇이고 또 평화란 무엇인지를 깊이 사색케 해 주니 말이다.

평화상은 본디 분쟁과 다툼의 현장에 바쳐져야 제격이다. 유일한 분단국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상의 인연이 도래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민족이여, 이제는 불필요한 분열과 다툼을 그칠 때가 되지 않았소?" 하는 시대의 요청이 평화상의 이름으로 간곡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툼은 차이에 대한 불관용으로 시작되고 악화되곤 한다. 나의 생각과 신념, 나의 가치관과 견해와는 다른 것들을 동시에 담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 싸움의 멘탈리티이다. 한국인의 영원한 사표 원효는 그 옹졸한 마음을 이렇게 질타한다.

"자기가 조금 들은 바 좁은 견해만을 내세워, 그 견해에 동조하면 좋다고 하고 그 견해에 반대하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마치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아서, 갈대 구멍으로 하늘을 보면 좋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

평화= '다름'의 공존 나부터 열린마음 되기

라는 생각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의 근본 원리일 터. 불교 집안의 그 넉넉한 평화로움을 연출하는 것도 이 무아(無我)의 해방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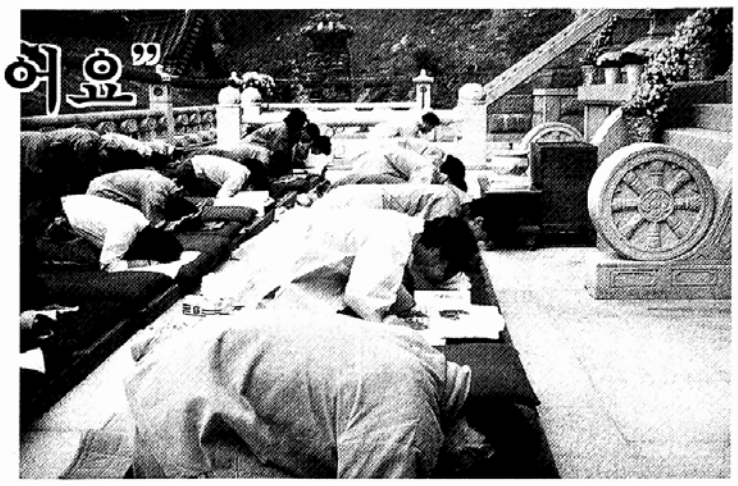
무애(無碍)의 성자 원효는 이 평화의 원리를 '다툼의 화해(和諍)'라 칭하며, 그 탁 트인 마음씀씀이를 이렇게 설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두 주장은 모두 옳지 못하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워 다투면서 부처의 뜻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결정적인 고집이 아니라면 두 주장이 모두 옳다. 진리의 문(法門)은 걸림이 없어서 서로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열반종요〉

"집착을 떠나 말하면 합당하지 않음이 없고, 만약 집착하여 말대로만 이해하면 과괴하지 않음이 없다"〈대혜도경종요〉.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절 하면 할수록 욕심 줄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2천여명의 불자들이 17일부터 열린 '성철스님 열반 7주기 7일7야 철야정진'에서 3천배를 올리고 있다.

참불자의 길

백련암 7일7야 철야정진 현장

성철 스님은 왜 자신을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3천배 할 것을 권했을까. 또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드신지 7년이 지났음에도 왜 백련암에는 매년 불자들이 모여 7일동안 끊임없이 절을 올리고 있을까.

대학생부터 노보살까지 3천배… 5천배… 1만배

이런 화두를 해결하기 위해 21일 찾아간 해인사 백련암 고심원에는 17일 오전 7시 입재한 '성철스님 열반 7주기 7일7야 참회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불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한배 한배 올릴때마다 속도 조절 역할을 허주는 스님의 짧은 독경 소리와 사람들이 절하면서 내는 숨소리외엔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2시간마다 1천배씩 7일동안 8만4천배를 하는 이번 참회 정진에는 20대 대학생서부터 80대 노보살까지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참가했다.

1주일 내내 하루 3천배씩 2만1천배 정진을 하고 있는 법원성 보살(54)에게 절하는 이유를 묻자 3천배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을 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고 절을 한다음 다시 얘기하자며 말을 끊는다.

15년 전부터 매일 아침 1천배를 하고 일과를 시작한다는 법원성 보살. "절을 할 때면 뼈마디가 쑤시고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눈물을 흘릴때도 많았지요." 잠시 침묵하다 보살은 "고통은 잠시뿐 절을 하고 나면 내속에 가득찼던 욕심이 없어짐을 느끼게 되고 환희심이 일어 삶이 즐거워 진다"고 토로한다.

백련암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건강회복과, 정신 수행, 인내력 등 3천배 정진에 임하는 출발 동기는 달랐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다보면 자연히 자신과 가족들도 포함되어 버린다는 것. 즉 처음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절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기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서 일체 중생으로 옮아 간다는 것이다.

진주에서 온 현묘 거사(38)에게는 술로 인한 정신적 방황이 3천배 정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다. 술로 인해 지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절 수행이 효과적이라는 백련암 스님의 권유로 무작정 3천배 정진을 시작했다. 1천배·3천배·5천배…, 거듭 반복해서 절하다보니 마음과 육신의 그릇이 청정해 짐을 느꼈다. 건강도 좋아졌고 저절로 술생각이 끊어졌다.

현묘 거사는 "3천배를 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든다"며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참고 이기며 극복했다는 성취감은 일상생활에서 무슨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뀐다"고 변화를 설명한다.

기복서 중생구제로 기도의 목적도 변해

성철 스님 열반 이후부터 해마다 참가한다는 이성윤 씨(부산 동아대 2년)는 절을 하다보니 '내가 제일'이라는 아만심속에 살았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되었고 주위로부터 겸손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했다. 또 이 씨는 3천배 정진을 하다보면 저절로 자신의 육체를 가만히 들여다 보게 된다는 것. 아무리 몸뚱이가 잘생기고 튼튼하다 하더라도 3천배후 힘들어 제 몸하나 마음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3천배를 셈하기도 힘든데 절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신도들에게 백련암 주지 원택 스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스님은 "신구의(身口義) 삼업(三業)에 대한 고통을 현세에 풀어야 하는데 절은 바로 이 삼업에 대한 고통을 함축해 놓은 것"이라며 "절을 통해 짧은 시간동안 업의 고통을 푸는게 살아가면서 긴 시간동안 삶속에서 여러 가지의 고통을 받으며 업을 푸는 것보다 더 편하고 쉬울 것"이라고 말한다. 또 스님은 "3천배 정진으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길러지면 인과를 극복하는 힘이 생겨 복을 일부러 찾지 않아도 생활에 활력이 생겨 삶이 행복해진다"고 절을 많이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백련암=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고정관념과 분별서 벗어나 사유하라

㉛ 선과 교육(4)



서명석
외국어대 강사
교육학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가령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앎을 추정해 나가거나 이성의 사유법칙을 동원하여 앎의 세계를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 때 앎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래적인 고정의 틀, 그리고 이성적 추량으로 만들어내는 분별적 판단 두 가지. 그런데 선은 이 두 가지로 지탱하는 우리 앎이 문제 있음을 선포한다.

이를 짚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하자. 어느 한 청년이 어머니와 처를 대동하고 시골의 큰 개천을 건너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아무 불편없이 건널 수 있는 곳이었으나 큰비가 지나간 뒤였기 때문에 물이 엄청 불어 있었다. 하는 수 없이 큰 물살을 헤치며 다 건너갈 즈음, 뒤따라오던 어머니와 아내가 거친 물길에 휩싸여 막 익사할 지경에 빠졌다. 정말 진퇴양난이라고나 할까. 어머니를 먼저 구하자니 아내가 죽게되어 괴롭고, 아내를 먼저 구하자니 어머님께 불효하는 것이고. 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위에서 든 두 가지 잣대로 풀어낼 수 있다. 하나는 고정관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량분별. 우리들은 장구한 유교문화권 속에 살아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사유를 점유하는 집단무의식과 같다. 당연히 효라는 관념으로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따져 들어갈 수도 있다. 어머니는 그간 사실만큼 사셨다. 그러니 젊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낼 수 없으며 아내 없는 나의 삶이 괴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의 수, 두 가지는 모두 아니다. 그렇게 위급한 한 상황에서 고정관념과 사량분별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어머니이든 아내이든 상관없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빨리 구해야 한다. 이 상황은 아주 돌발적으로 일어난 위기상태임으로 전광석화같이 판단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태이다. 이런 앎이 바로 직관지다. 이것은 우리 사유를 좀먹고 있는 고정관념도 아니고, 합리라는 적합성에 기대여 판단하는 이성적 사유도 아니다. 오로지 이 둘이 소멸한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앎. 이것이 선에서 추구하는 앎의 지평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머리로 헤아려 읽어내는 분별지를 버려라. 그러면 이것들이 소멸한 자리에서 너의 번뜩이는 직관지가 돌연 피어오르리라. 그래서 선은 말한다: "나는 (고정관념과 분별로)생각하지 않음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인식의 요소는 교육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담임 선생님이 흰눈으로 뒤덮인 알프스산맥의 웅장한 설경을 담은 큰 사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 그림에 가득한 눈이 보이지요. 그럼, 여기 쌓여있는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한 녀석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예, 그 눈이 녹으면 큰물이 되겠지요." 그러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 학생에게 항의하듯 다른 녀석이 일어나서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눈이 녹으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옵니다." 이 말은 들은 학생들은 한 바탕 웃음을 참지 못하고, 교실이 온통 뒤집어졌다.

어느 겨울날 단하선사는 혜림사를 지나다가 큰 추위를 만났다. 이에 그는 목불(木佛)을 쪼개서 추위를 녹였다. 이를 보고 놀란 주지가 선사를 꾸짖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우리 부처님 사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서." 너무나 어이없어 주지가 말했다. "나무 불상에 어찌 사리가 있으랴?" 이에 선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웬 시비냐?" 여기서 보여주는 단하선사의 짧은 논급은 긴 여운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쌍윳다 니까야 1,2,3
한국빠알리대장경 국내 첫 출간
쌍윳따 니까야의 성립시기는 기원전으로 훨씬 소급해 올라가며 이른바 第一結集에서 그 모태가 형성된 것이다. 이 빠알리 초기 경전은 발전된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부처님의 가르침 원형을 담고 있다.
▶ 전재성 역주/가격 65,000원

빠알리 語辭典
빠알리어는 인도의 고대어로서, 부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언어로 추정되고 있다.이와 같은 빠알리어로 기록된 남전대장경이 현재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에게는 그 원형을 보존한채 고스란히 전승되고 있어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보고(寶庫)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말 빠알리어 사전으로서는 불교학계의 한 획을 긋게 되는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출판부
▶ 가격 70,000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02-3667-8437
H·P 018-321-8437
FAX 02-3667-843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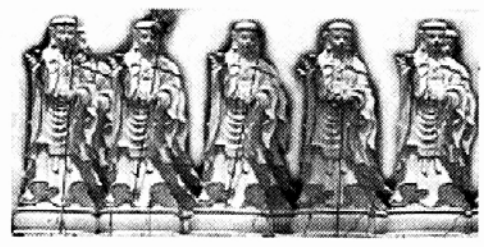


대학 秘法 수능시험
학생 당사자보다 부모 형제 친지분들이 애가 더 탑니다.
※ 아무리 학업 실력이 좋아도 시험운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다.
※ 머리가 맑아지고 당일 최대의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 여기에 있다. (자녀, 조카, 외손, 이웃, 자녀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30년간 팔공산 토굴에서 수행정진하면서, 터득한 비법
1999년도 수능시험 100% 시험 성적 향상!!! 수능시험 일주일전 특수비방으로 처방하여, 시험 당일 몸에 지니면 모든 마장 장애가 없어져서 시험 성적을 오르게 한다.
▶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 처방 기도비 : 108,000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우선 비법을 우송해드립니다.
FAX 접수 대환영 : 053)983-9223
츠즈 수능시험 합격 秘法 공개
▶ 피땀흘려 공부한 결실. 天神이 나를 도와 소원 성취!!
※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만큼 영험이 있는 시험의 급소를 찌르는 우주 영감을 연결하는 비법
※ 시험성적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
광 명 대천세계 지장선원
상담전화 : 053-982-6778
011-813-3679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회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회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튜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분쟁 타개를 위해 미국 등 25개국의 긴급 정상회담이 17일 열려 2주일 이상 계속돼온 폭력을 종식하고 중동 평화회담을 재개하자는 데는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 지도자들이 공식문서나 성명에 서명하지 않아 유혈사태가 확실히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전쟁은 인류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악이다. 이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화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전의 말씀을 들어본다.

이렇게 들었다

전쟁과 평화

인내는 나와 남을 구한다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쿄시타 동산에 계실 때였다. 그 때 구심이란 비구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서 욕을 하며 칼이나 몽둥이를 잘 휘둘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구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부처님께서는 옛 인연담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남의 잘하는 것도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도 보지 말라"고 하셨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증일아함경〉

▩만일 성냄과 원한을 가지고 저렇게 대중을 어지럽히는 것이 있거든 마땅히 화합(和合)한 중을 모아 널리 방편을 베풀어 이 다툼의 근본을 뿌리 뽑아라. 만일 맺힌 원한이 이미 다했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막아 다시 일어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비구들이여, 성내고 뒤틀어져 자상하지 못하고 인색하며 질투하고 교활해 스스로 자기 소견에 빠져 그릇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중집경〉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안팎의 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싸우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느니 진실하지 않다느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 있기 일쑤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현상세계의 실상을 샅샅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범천소문경〉

▩이익되거나 좋은 것을 남에게 양보하고 손해되는 것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면 다툼과 분쟁이 없어진다. 〈열반경〉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 자신이 노여움의 과실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으면 자기를 평화롭게 함이요, 이미 분해하고 원망하지만 않는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니, 이는 바로 남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다. 〈섭대승론〉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外道)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天人)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불자 세상보기 통계청 사망원인 조사 "30대-차 40대-간질환 50대-뇌혈관질환 가장 많다"

건강한 삶 '버릴줄 아는 용기'서 나온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고 한 어느 시인의 시처럼,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으나 지갑을 챙기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난' 30대. 스트레스를 술과 함께 삼키고, 담배로 피워 날리며, 운동을 멀리해 온 그들은 40·5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건강에 빨간 불이 켜져 있음을 안다. 그러나 빨간 신호등 앞에서도 맹렬하게 질주하는 중년의 사내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999년 사망원인 통계조사'에 따르면 30대는 교통사고, 40대는 간 질환, 50대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사망원인의 분포는 주로 남성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40·50대 남자의 사망률은 여자보다 3배나 높았다. 우리나라 40·50대 중장년층 남성의 삶은 쉼없는 질주 속에서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30대 사망원인 1위인 자동차 사고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술에 취한 채 걷다가 차에 들이 받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40대 사망원인 1위인 간 질환은 30대부터 퍼마시기 시작한 술의 폐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50대에 들어서는 간 질환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담배의 해악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중풍 등 뇌혈관 질환의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연령별 사망원인 1순위는 스트레스와 과음, 과다한 흡연,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통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그릇된 습관이 밑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한국 남성들은 꽤 동정받을 만하다. 직장생활에 들어서는 30대부터 50대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온갖 병을 얻고, 그것도 모자라 사회로부터 냉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니 충분히 그럴만도 하다.

하지만 저간의 사정이 그러할지라도 당연히 질타는 따라야겠다. 아니 불쌍한 그들의 삶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집착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탓하지는 않는다.

30대의 젊음은 20대처럼 무모하지 않은 이성적인 힘이 있다. 스트레스를 자기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지(理智)의 힘이 있다. 스트레스를 벗기 위한 음주가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해야 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는 자기 통제력인 것이다. 40대는 불혹(不惑)이라 했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받는 샌드위치 신세지만 삶의 맛을 낼 줄 아는 지혜가 있다. 50대에는 세상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다. 세상이치가 다 그런 것이라고 조롱해도 괜찮을 '세월의 훈장'이 있다.

이렇게 나이에 걸맞는 삶의 주체적 자각이 있다면 삶은 사뭇 달라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처님은 "진실로 내것이 아니면 버리라"고 했다. 과도한 욕심과 집착은 결국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킬 뿐이다.

부처님은 묻는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눈·귀·코·혀·몸·뜻(意)은 영원한 것인가 아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괴로운 것인가 아닌가?" "괴롭다면 괴롭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리 집착해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것은 힘겨운 삶의 이면에 감춰진, 아니 스스로 감추고 찾지 않은 건강한 삶의 방식이다. 스트레스보다, 폭음과 과도한 흡연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용기'를 '포기'로 여기는 착각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남북화해시대 불교의 역할

최근의 남북화해무드에 맞춰 '남북화해시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지난 16일 불교신문 창간 90주년 기념 '금강산 성지순례' 길에서 열렸다. 장소는 금강산 유람선인 금강호 선상.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련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민족화해시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으며,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변화와 과제'에 대해,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문화학)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으로 본 민족통일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다음은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



"불교문화 토대 민족공동체 복원"

우리는 지금 남북화해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역사적 과제인 화해와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 우리 민족에게는 소중한 자산이 있다. 이는 다름아닌 바로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1천6백년 이상을 전승해 온 불교문화다.

그동안에 누적된 남북간의 이질감을 해체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민족공동체의 가치복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문화의 중핵이라 할 수 있을 불교문화를 토대로,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종단차원의 새로운 남북교류 및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첫번째 요건으로는 불교이념의 재정립이다. 불교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단호히 대항하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통일시대로의 순항을 위한 새로운 이념이 제시돼야 한다.

둘째로는 불교계의 남북교류 활성화다. 남북을 하나로 묶어주는 데 있어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교류에는 인적교류와 물적교류가 있는데, 인적교류로는 우리 불교계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간의 주요 인사 상호방문, 법요식의 통일, 교리에 대한 의견교환, 승려의 교육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다. 물적교류로는 성보의 교환 전시, 불교관련 서적의 공동번역, 용어의 통일, 불교학당의 설립, 교재 지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는 북한지역 내 사찰의 복원사업 지원이다. 북한 불교에 대한 접근은 민감하지 않은 비정치적인 부분에서부터 착수함으로써 신뢰를 서서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사업이다. 동체대비 차원에서 범종단적으로 지원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공동선언 실천 한반도 냉전청산"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실들, 즉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른 정세 변화를 생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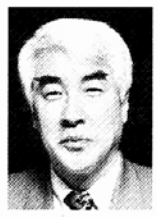
우선 공동선언문의 첫째 항목인 통일문제의 주체적 해결에 대한 부분이다. 이 말은 주한미군 문제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문제로 좁혀진다. 즉,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미·일 공조체제와 북·중·러 공조체제의 대립이 깨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공조체제의 강도를 점차 약화시키고 남북공조체제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지혜가 요구된다.

둘째 항목에서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남북이 통일방안에도 합의했음을 말하며, 그것은 또 세계적 냉전체제가 무너진 후에도 남아 있었던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은 남북 두 정부가 외교권·군사권·내치권을 그대로 가지되 정상회담과 각료급회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셋째 항목에서 [illegible] 이루어졌지만, 이산가족 면회를 지속시키는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각료회담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넷째 항목의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측의 정부자금과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원조하는 등 북의 경제를 회복시킴으로서 통일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병조 동국대 교수



"화쟁사상으로 조화-평화-통일"

원효스님이 말한 회통은 양자의 대립을 불식시키려면 그 양자를 초월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어느 특정한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원효스님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대립모순을 십문(十門)으로 나누고 그것을 화쟁하는 논리해석이며, 원효스님은 '일심(一心) 회복'을 그 방편으로 보았다. 이때의 '일심'은 곧 '일승'이다. 수량적 의미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조화, 평화, 통일의 '하나됨'이다.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통일 방안은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 통일 방안은 자각적(自覺的)이며, 평화적이며, 이타적(利他的)인 마음의 통일이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그 이상을 견화동해(見和同解·마음으로 화합하라), 신화공주(身和共住·몸으로 함께 살라), 구화무쟁(口和無諍·말로 다투지 말라), 의화동사(意和同事·뜻으로 함께 일하라), 계화동수(戒和同修·몸으로 함께 닦으라), 이화동균(利和同均·이익을 함께 나누라) 등의 '육화가(六和歌)'로 요약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견화동해'와 '이화동균'이다. 견해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질성 회복이며, 이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경제협력이다. 특히 견해를 같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불교계에서 [illegible] 불교유적지의 공동 발굴이나 보고서 제작, 세미나 개최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불교는 북측 국민들에게 민족 종교로서의 동질감, 문화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조화와 관용의 원리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 이제 불교는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이 삼국통일의 밑거름이었던 과거를 거울 삼아 보다 창조적인 통일 논의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大·小)


산사의 향기(大·小)


연화의 세계(大·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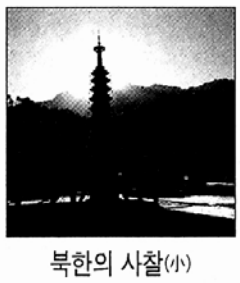

탑이 있는 풍경(大·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 굴 암(小)


백 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 사진 : 안 장 현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굴, 국립공원, 석굴암, 영겁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 대(30×31cm) 국6절, 가격 : 1,600원
소(26×26.5cm) 사륙12절, 가격 : 1,400원
■ 매 수 :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 100부 이상
■ 미니 차걸이 달력은 200부 이상

8절 대지 마닐라(14매)



◈ 종 류 ◈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흥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산사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미니 차걸이 달력 ➡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사·부·대·중

불교적 삶의 기록



안옥선
전남대 강사 · 철학

얼마 전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한 외국인 친구로부터 짧은 글을 받았다. 안부 인사를 겸한 부탁의 편지였다. 부탁의 내용은 일간지 한 면 분량의 우리말 기사에 대한 영역이었다. 2년 전에 입적한 한 비구니의 삶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것이었다.

기사에 나타난 혜춘 스님의 치열한 구도의 삶과 수행자로서 대중과 함께 한 보살의 삶은 감동 자체였다. "여시래 여시거 거래일여 청풍만리"(如是來 如是去 去來一如 淸風萬里)라는 열반송을 뒤로하고 입적할 때까지의 그 분의 삶은 수도자와 보살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시해 준다. 선지식의 지도를 청하는 1주일 동안의 10만 배 일화, 수행 중에 동참한 교단정화운동, 10년간의 입승, 지천명의 나이에 마친 3년 결사, 고희의 나이에 투신한 사회복지일, 외우내강의 성품 등. 나는 그분의 불교적 삶을 접하고서 나의 나태함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분의 존재 조차도 몰랐었다는 무지함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나는 구도와 보살의 삶을 살았던 분들에 대한 전기나 기록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윤리이론이나 학설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혹은 '이렇게 삽시다' 등의 말도 아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러한 말을 온 몸으로 드러낸 삶의 구체적 모습들이다. 마찬가지로 불교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고무시키고 고양시키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혹은 그러한 삶을 드러낸 인격체들이다. 불교의 가르침마저도 그것을 온 몸으로 드러내었던 한 분, 또 그 이후의 많은 분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불교의 가르침을 온 몸으로 드러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나 전기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는 어떤 저술도 남기지 않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자체로 표현한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그 분들에 대한 기록이 가려져 있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목탁소리

진관스님의 각오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불교계에서 인권운동하면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 조계종승려 사면복권 운동본부 공동대표)을 떠올리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불모지와 다름없던 불교인권운동에 관한 남다른 열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교인권운동의 일천(日淺)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진관스님이 요즘은 '인권'이 아닌 '종단 화합' 불사에 매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등 또다시 외로운 고행의 길에 들어선 느낌이다.

진관스님은 15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종단화합 발전을 위한 승려 사면복권을 위한 서명'을 주지 현해스님과 상의한 후 서울로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두부 및 오른쪽 손목, 허리, 왼쪽 무릎에 심한 타박상을 입는등 중상을 입었다.

현재 서울 재동 한국병원에 입원해 있는 진관스님은 16일 응급치료후 입원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고 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해서는 승가의 대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종단화합을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조계종 화합을 촉구하는 시를 비장하게 낭독하기도 했다.

1963년 15세의 나이로 금산사에 입산, 68년 자운화상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이래 진관스님은 4.19학생운동, 불교법난에 저항, 광주민주화운동,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 사형제폐지운동 등 민주화·인권·통일운동에 헌신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과 32년이란 중진급이상의 법랍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배 스님들로부터 중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적인 언사를 받아가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다.

물론 스님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과연 짜임새있게 일을 해 나가는지, 스님의 행동에도 지적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스님들이 그 나이와 법랍에 이르면 편하게 안주하며 '대접만 받고자' 하는 추세에 비춰 볼 때 소신을 갖고 직접 발로 뛰는 그 열정과 헌신만은 높이 사야 할 것이다. 진관스님을 폄하하는 스님들은 과연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종단과 사찰의 소임을 맡아야만 중진스님 대접을 하는 것인지 묻고싶을 뿐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공동경제를 옹호한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정토회 등 국내·외 40개 종교단체들은 19일 '세계화와 영성 그 대안적 가치'를 주제로 한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민간포럼 종교분과 국제회의에서 "물질 경제 위주의 신자유주의 및 세계화는 인간의 영성과 자연을 파괴하면서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세계화의 거센 파고 앞에서 종교인들은 사회·문화·종교적 편견을 넘어 상호 협력해 모든 인간과 자연의 평화 정의·조화·인권·상호존중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국내 종교단체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6~20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아셈 민간포럼에서 처음 구성된 종교분과위원회는 세계화의 문제점을 종교적인 시각에서 지적, 대안을 제시했다.

"신자유주의 반대 생명공동경제 옹호"

아셈 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 회의

획일적 시장경제 논리
지역문화·영성 파괴

■경제 세계화 반대 이유

종교NGO들이 이처럼 세계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 세계화'라는 획일적인 시장논리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파괴시키거나 우스꽝스런 전시물로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된 아셈 민간포럼 종교분과의 회의 목적도 '시장만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라고 보는 현재의 세계화에 대항해 새로운 영성적 가치를 회복하자'는데 있었다.

스리랑카 사르보다야운동 창시자인 아리야 라트네 박사는 16일 종교분과회의 기조발제에서 "세계화는 탐욕과 착취의 물질만능주의를 가속화시켜 불성을 지닌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과 자연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화로 인해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자살과 살인, 아동 및 여성학대, 생태적인 삶의 기반 붕괴, 사회적인 마찰이 야기되어 결국 인간성의 파괴, 사회적 불안정, 생태계 파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신학자인 울리히 두크로는 "세계화는 지역과 원주민의 고유문화를 파괴시킬뿐 아니라 개인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퇴폐문화를 전파시켰다"며 "국제적인 외채 부담으로 많은 국가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금융자본은 인간의 삶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기반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간성 회복 급선무
생명 중심사상 촉구

■자연과 인간 살리는 세계화

종교시민단체들은 인간의 영적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을 살리는 세계화를 촉구한다.

세계화로 인해 파괴된 지역의 정신과 문화, 비인간화된 삶에 주목하면서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해선 인간성의 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와 영성을 회복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종교단체들은 16-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간포럼 종교분과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만물의 삶을 가능케하며 평등과 포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제를 희망한다"며 "신자유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생명공동경제'(오이코노미아:oikonomia), 즉 생명중심 사상, 자연존중, 공생(共生)의식, 소욕지족(少慾知足), 가난한 자에 대한 옹호와 정의추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람이 돈보다 우선하며, 생명이 이윤창출보다 우선하는 생명공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공동의 선과 지역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평등한 시장을 추구할 것"을 주장했다.

불교의 지혜 세계화
물질문명 한계 극복

■불교적 대안

태국의 불교환경·인권 운동가 슐락 시바락사는 18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 주제의 아셈 2000 민간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인간화된' 세계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불교가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슐락 시바락사는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 인접과학의 연구결과를 불교의 인식으로 전환하는 학문적 작업을 통해 불교의 지혜를 세계화 등 사회문제의 대처방안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불교는 부유층에게만 인정받는 종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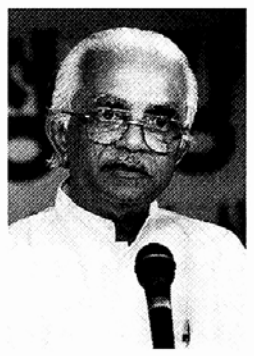
그에 따르면 불교는 우리의 탐·진·치 삼독과 소비주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물질문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성제, 열반, 연기, 무아 등 불교의 전통교리를 이론으로만 보지 말고 개인과 사회변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부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기에, 불자는 부를 정당하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에 집착하거나 예속되지 않고 정신적으로 자유로와야만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불국토를 현세에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 즉 불교가 중심이 되는 사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지, 기꺼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눔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1만5천여 공동체마을 개발 빈민구제

인터뷰 사르보다야 운동 창시자 아리야 라뜨네 박사



16일 아셈 2000 민간포럼 종교분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한 스리랑카의 아리야 라뜨네(69) 박사는 불교 대안주민공동체인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의 창시자다.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사회, 공조체계망 조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깨달음의 사회화'를 강조하는 주민참여형 마을운동을 전개, 96년 간디평화상과 막사이사이상, 니와노평화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평화운동가다. 17일 정토회가 서울 법련사에서 주최한 초청강연회가 끝난 후 그를 만났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정부기구 공동체운동으로 알려진 사르보다야 슈라마다나운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

▲'사르보다야'는 만민의 각성이라는 뜻이고, '슈라마다나'는 시간 노력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함께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현재 수십만명의 지원자와 훈련된 일꾼들이 법률서비스, 유아교육, 주부의 교육과 수입증진, 환경농업 및 수자원 확보, 마을금고 개설, 분쟁해결, 생활수준 향상운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 운동을 펼친 동기와 성과는.

▲1957년부터 나는 농촌 마을주민들을 함께 모아서 그들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평화적 행동으로의 길을 보여주려고 했다. 가난한 하나의 마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1만5천여 마을(1900만명 중 700여만명 참여)에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사르보다야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이가 원하는 사랑하고 봉사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이것이 민족, 종교 등의 장애를 넘어 자신을 각성시키고 나아가 사회 국가등으로 확대시켜 살기 좋은 불국토가 건설되었으면 한다.

—한국 정부의 달라이 라마 입국 불허를 어떻게 보나.

▲스리랑카 정부도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그는 자비롭고 영적인 분으로 공식석상에서 한번도 증국을 비난한 적이 없다. 달라이 라마를 정치지도자로 보지 말고, 비폭력과 평화를 주장하는 영적 지도자로 보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후세를 위해서도 그의 법문을 통해 문화적 영적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불교에 대한 인상과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한국 불교단체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동감하고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한국불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한다. 한국에서도 점차 사회적 실천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더 많은 청년불자들을 가르쳐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면 한다.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과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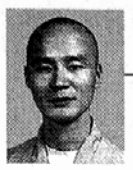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02)586-9078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금강경 ③

부처님 근본정신은 '본래 空'
애욕·집착 버리면 마음 평온

신앙은 그 자체로도 큰 힘을 갖거니와, 그것은 또 인간의 지혜를 일깨워 주고 때로는 무한한 용기와 굳은 의지를 주기도 한다. 부처님은 우리들이 부동의 신념과 용기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며, 마음의 평안을 찾고 나아가서는 인생의 즐거움과 광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강경〉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중심으로 하여 설해지고 있다. 신(信)으로써 들어옴을 삼는데, 만약 부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존경하고 믿는 생각이 없으면 어찌 배우려는 뜻이 일어나겠는가. 대개 교법을 사람에게 실현하려 함에는 제일 먼저 이해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해의 궁극은 행함에 있다. 실천을 바탕으로 신해행(信解行) 세 가지를 통일하고, 증(證)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현실과 이상을 조화, 통일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금강경〉 제6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가운데 "한 순간에 청정한 믿음을 낳는다(一念生淨信者)"는 말이 있다. 선악, 범부와 성인 등의 견해를 일으키고 갖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을 가지고는 청정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몰입을 하여 일념(一念)에 이르고 삼매에 이르며, 구경에는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지극하고 간절히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실까? 〈금강경〉에서는 이에 대해 "여래(부처님)는 진정한 말씀을 하는 이며, 실제인 말씀을 하는 이고, 진여의 말씀을 하는 이며, 속이지 않는 말씀을 하는 이고, 틀리지 않는 말씀을 하는 이(如來是眞語者實語者如語者不狂語者不異語者)"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진정한 말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대보리법(大菩提法: 큰 깨달음의 법)을 설한다는 말이며, '실제인 말씀'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 없는 것으로 그 행이 말과 상응한다는 것이다. '진여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사리의 법(事理法) 즉, 연기법은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아서 오직 하나의 실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속이지 않는 말씀'이란 부처님은 진정하고 실제이고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여 결정하고 중생을 속이지 않으시기 때문이며, '틀리지 않는 말씀'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법이 변하거나 달라짐이 없이 시종일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온갖 집착과 애증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시고 큰 소리로 꾸짖는 듯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제자로 또는 그 말씀을 따르는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은 하나도 거짓이 아니라는 말로 다짐을 해놓고, 법문의 골자는 실(實)도 없고 허(虛)도 없는 중도실상(中道實相)이라는 것을 뚜렷이 일러주셨다. 부처님의 근본정신이 중도실상 즉 본래공(本來空)임을 알려주시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종일관이 중도실상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오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삶에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등의 분별과 집착과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편안히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라는 가르침이다.

이제 깨어나야 한다. 애욕과 집착을 버리고 뛰어난 슬기로움으로 평온하고 안락한 세계로 향하는 자만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며 마음의 눈을 뜬 자이다. 〈금강경〉은 바로 마음의 눈을 열게 하는 경이며, 마음을 편안히 안주시킬 수 있는 경이며, 항상 자제하고 억제하는 속에서 점점 마음을 항복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경이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이 경을 읽는지도 모른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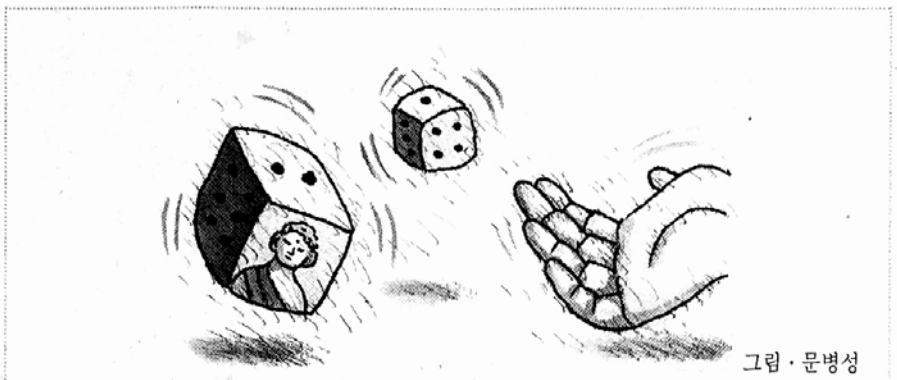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과학발달에 흔들리는 종교

불교와 과학 〈3〉

선재의 고민

이선재 박사는 이미 노벨 물리학상을 두 번이나 받은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였다. 평생 실험실과 집만을 오가던 그가 하루는 시장통 한구석에 몰려 있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재미 삼아 주사위 노름을 우연히 하게 되었다. 그는 물론 호주머니 돈을 다 잃었고 다음날 다시 가서 더 큰돈을 잃었다. 그 다음날 다시 가게 되었고, 이렇게 노름중독에 빠져 주사위 노름판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고 많은 은행 빚까지 지게 되었다. 그를 지켜보던 주변사람들이 그의 도벽을 끊게 하려고, 그를 시골로 내려가게 하였다. 이선재 박사는 시골로 내려가면서 노름은 그만 두었으나, 주사위에 대한 맺힌 한 때문에, 그가 실험실에서 쓰던 첨단 실험장비를 동원하여 국제주사위연구소라는 간판을 달고 주사위 연구를 시작하였다.

존재하는 모든 주사위를 다 사다 모아 주사위의 표면 재질과 질량, 모서리 각도에 따른 공기저항, 낙하표면의 재질에 따른 낙하순간의 저항변수들, 베르누이 정리에 따른 주사위의 미세 회전량, 투사환경의 유체역학, 주변온도에 따른 압력의 변화, 컴퓨터 투사력의 미세한 차이에 따른 투사체의 변이도 등, 몇 십만 개의 수많은 운동변수들에 의한 초기값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결과값을 내고자 하였다. 즉 던져진 주사위의 숫자를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필연의 결과로 얻으려는 과학탐구를 한 것이다. 이 박사는 주사위에 관한 한 신과 맞먹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하늘에 존재한다는 과학적 의미의 신(神)이 이를 보고 우습지도 않아 그의 의지를 하찮게 여겼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나 이선재의 연구결과는 신의 주사위 능력에 거의 도달하게 되었다. 이선재를 우습게 보던 신은 너무나 깜짝 놀라 위기감을 느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가상적인 신의 대응조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상상할 수 있다. 첫째 기억상실증 등을 동원하여 이선재의 주사위 연구능력을 몰수하는 일이다. 둘째 주사위에 관한 한 그의 행위가 너무나 고약하기는 하지만 그 능력을 인정하여 주사위 세계에서 이선재를 자신과 공존토록 놔두는 일이다. 셋째 이선재의 행위에 너무나 분통이 터져 신이 스스로 자살하는 경우이다. 넷째 신의 능력에 거의 따라온 이선재와의 수준을 더 벌려 놓기 위하여 신이 더 노력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가상조건을 검토해 보자.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과학적 신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완전성, 불변성, 유일성, 절대성, 무모순성, 정지성이다. 우선 둘째 공존의 상황은 과학적 신의 유일성 조건에 위배되어 탈락된다. 넷째 조건 역시 더 노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의 신의 상태는 완전성이 아니었음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성 조건에 위배되어 탈락된다. 첫째와 셋째 상황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실현된 종말(realized eschatology)의 상황과 유사하다. 셋째 상황은 과학적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과학이 종교를 대치하는 상황이며, 첫째 상황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총체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황이다.

유전자 복제·인공지능 등 윤리 벗어나 인류 위기
연기설 등 방향제시 절실

유전자 복제기술과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최근 과학의 성과는 과학윤리의 범주를 벗어나 심각한 인간위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돌리 양과 유전자 지도 공표 이후 체세포 복제기술을 통한 유전자 조작기술은 정말로 큰 인류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셋째 상황은 기독교 윤리법주와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서구윤리학에서는 가장 큰 주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반면 불교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피상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의 세계관과 직접 부딪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은 불교계의 생각과 관계없이 앞으로 나아갈 뿐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교에서도 그 사상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과학적 합리주의의 소산인 과학적 신 개념에 대한 재고, 과학주의와 인간주의가 충돌되는 이분법적 사유에 대한 반성, 대중 속에 만연되어 있는 과학적 신앙과 그에 따른 종말론 그리고 서구철학의 실체론적 물질관에 대한 비판 등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불교는 '일체언어도단'이라는 명분 때문에, 일선과학의 발전에 대하여 너무나 허약한 공리공담만으로 대처해왔다. 불교 자체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를 버리고 적극적인 실천세계를 찾아야 한다. 용수의 중론이나 불교의 사상이 응집된 연기설 혹은 화엄의 관계론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실천적 대안의 희망을 끄집어 낼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그 작은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이선재의 변화를 희망하면서.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불교계 모금놓고 美 대선 또 '공방'

지구촌 불교 / 불교와 선거

3일 열린 미국 대선 대통령 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불교를 '입방아'에 올리는 야릇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는 앨 고어 민주당 후보에게 LA 지역 사찰 모금행사에 참석한 일을 비난하고 나섰다.

불교와 선거, 공통점이라곤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두 개의 단어가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대선 첫 TV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를 공략하는 포문이 될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 언론들은 앞다투어 미국의 선 열풍과 불교 교세의 확장을 보도하고 있지만, 선(禪) 역시 '기독교-백인'의 사회에서 '불교-유색인'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교와 선거'라는 관계는, 이러한 핸디캡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불교계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당과의 관계인 셈이다.

앨 고어 민주당 후보의 경우, 올해뿐만 아니라 96년에도 서래사(대만불교계 사찰) 등 LA 지역 주요 사찰 모금 행사에 참석해, 공화당과 마찰을 빚었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후보만 바뀌었을 뿐,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TV토론회에서 불교계의 모금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재연하고 있다. 선거 시즌을 맞아 미국에서 정치·사회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불교계와 두 정당의 선거 전략이 곡예비행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후보 부시와 고어(오른쪽)가 TV토론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일본에서 불교와 선거의 관계는 모금보다 더 나아가 '운동'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日신흥불교 선거운동에 여당 참패
'정교분리' 위배 우려 목소리도

6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공명당·보수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에게 참패했는데, 정치평론가들이 "창가학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 불교교단이 '반 자민당·반 공명당' 캠페인을 벌인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신흥 불교교단의 지지를 받아 온 자민당이 창가학회에 예속된 공명당과 연립하면서, 신흥 불교교단의 반발을 샀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즉, 제1야당의 약진과 공동여당의 패배는 반(反) 창가학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신흥 불교교단과 창가학회와의 세력 싸움의 결과인 셈이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 불교계는 모금과 운동이라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간·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한 쪽은 정치·사회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쪽은 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 불교가 현실에 적응하는 노력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교'가 분리돼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후자의 주인공들은 부처님이 자신을 찾아온 빔비사라왕을 대했던 태도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자신을 찾아 녹야원을 방문한 왕에게 부처님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존경의 예(禮)를 받고서도. 이때 부처님은 국왕이라는 신분보다는 한 인간으로 맞고 싶었고, 묵언하는 동안 왕이 스스로 옷을 벗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불교란 인간을 대하는 것이지 정치를 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2000년 10월 9일 배포!

살아생전에 「우리말화엄경」 간행불사를 해봅시다

우리말 대방광불 화엄경

백 용 성 대종사 번역 / 사재동박사 윤문
4×6배판 (크라운판) / 1,620면 (42g미색코트지) / ₩100,000원
최고급 순금 금장 양장 제본/ 인조가죽 카바

이조 500년의 배불정책 아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뜻있는 스님들은 몇 년을 주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탁발로 시주받은 곡물과 푼돈을 모아 몇질의 화엄경을 간행하여 새로 조성하는 불상의 복장에 넣기도 하고, 법당 상단의 부처님 좌우에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귀의처로 삼았습니다.

「인과경」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화엄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거나, 「화엄경」을 만져보는 공덕만으로도 지옥·아귀·축생에 떨어지는 업보를 면한다 하였고, 만약 「화엄경」을 간행하면 제불보살과 화엄신장의 옹호로 삼재팔난·관재구설·병고액란이 소멸되고, 선망부모 등 영가가 천도되어 생전에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특히 뱃속의 태아를 낙태한 어머니가 「화엄경」을 수지독송하면 구천을 떠돌던 중음신의 영아가 원한을 풀고 좋은 세상에 난다'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독송할 수 있는

「우리말 화엄경」을 번역하신 백용성 큰스님은 3·1독립운동의 33인중의 한분이며 동산·고암 종정스님의 스승이고, 성철종정과 광덕·도문스님의 노스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허스님과 함께 당대 최고의 대 선지식이었고, 생전에 치아에서 수십과의 생사리가 나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선(禪)과 교(敎)를 통달한 도인의 혜안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말 화엄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법보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조석으로 기도생활을 하는 불자라면 불상 대신 반드시 「화엄경」을 모셔야 합니다. 「화엄경」은 법신불(法身佛)이므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 단체 동참시(30권 이상) 권당 8만원. 동참자 이름과 발원문을 별도로 화엄경에 인쇄합니다.
♣ 불사회향·회갑·진갑·칠순·49재·100재·영가천도를 위한 법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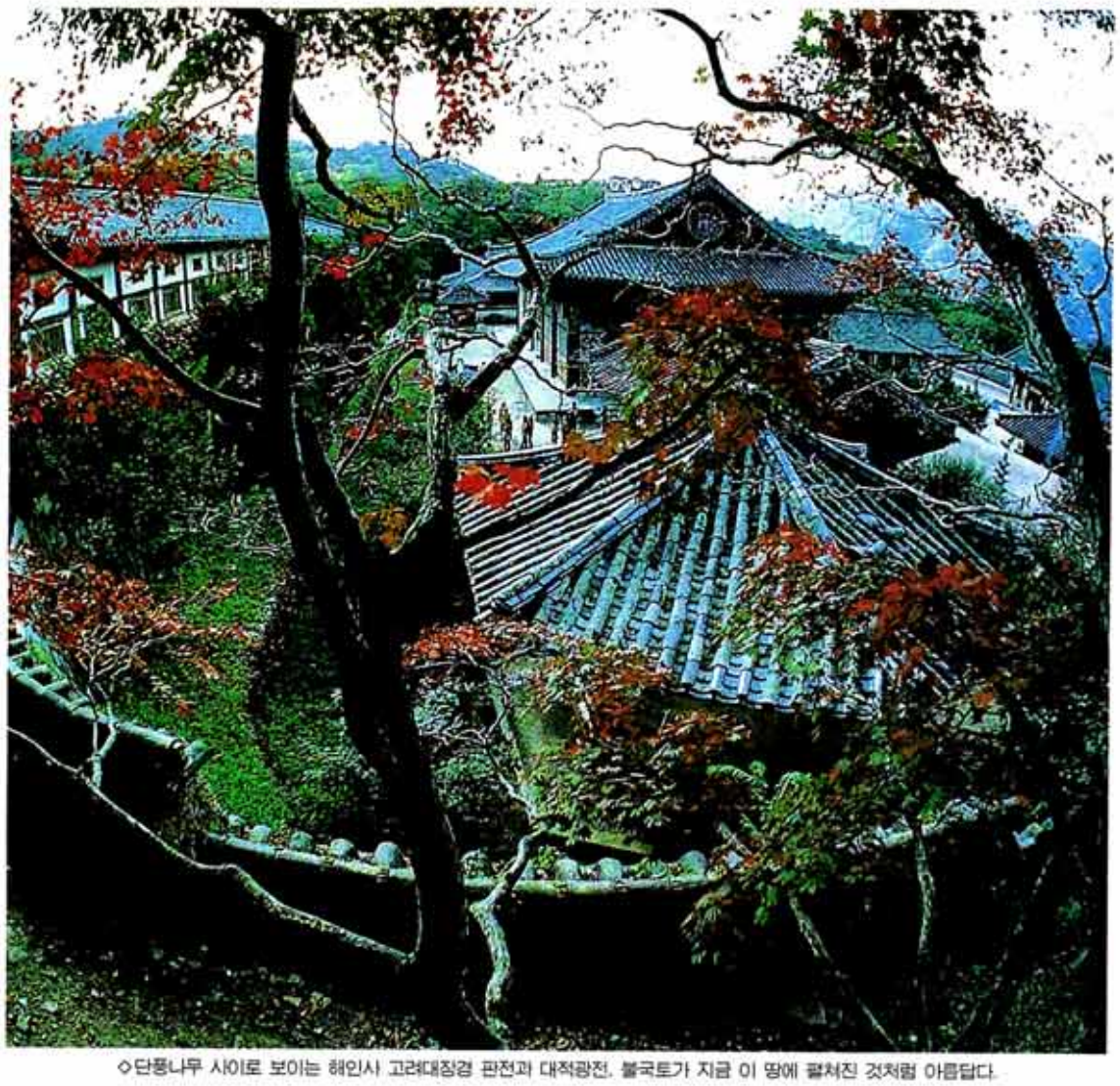
단 한권의 화엄경을 주문하시는 것도 간행불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바로 주문하시면 ₩85,000원(송료포함)

■ 주문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4-7614, 739-8745 FAX (02)735-2344
· 계좌 : 농협 053-01-102503 (김정길) 신한 324-12-407937 (김정길)

문서포교에 앞장서는 弘法院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02) 739-8745 / 734-7614 / FAX 735-2344

장인정신
서울사무실: 02)725-0578
공 장: 043)212-0903
鐘宗社

단풍 곱게물든 山寺 불보살님의 눈웃음 "뭇사람들 어서오라"



◇단풍나무 사이로 보이는 해인사 고려대장경 판전과 대적광전. 불국토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진 것처럼 아름답다.

14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국립공원.

사철 푸른 전나무 조차도 가을 빛을 머금은 숲길을 지나 도착한 월정사. 천왕문 주변에는 고풍스런 사찰과 조화를 이룬 붉은 단풍의 유혹이 한창이다. 우리의 마음 또한 덩달아 형형색색으로 물든다.

월정사 계곡을 따라 상원사로 오르는 길. 맑은 시냇물에 단풍의 그림자마저 붉게 물들었다. 상원사로부터 비로봉을 향하는 오름길에는 1926년 한암선사가 심었다는 중대의 간풍나무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참배하려는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연꽃 봉우리처럼 솟은 곳에 위치한 적멸보궁은 오대산 전체가 하나의 불탑이요, 1만 문수보살(중대)과 석가모니불(북대), 관세음보살(동대), 아미타불(서대), 지장보살(남대) 등 불·보살이 상주하는 성지임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설악산 단풍이 기암과 어우러진 화려함을 갖추고 있다면 오대산은 은근함 속에 우아함을 갖추고 있다. 떡갈나무 굴참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싸리나무 등이 어우러져 수채화처럼 담담하면서도 은은하게 번져오는 단풍의 풍광은, 시르라들기 전에 가장 화려한 불꽃처럼 시방을 장엄하고 있다.

불타는 단풍이 낙엽되어 떨어지기 전에 불자로서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보기 위한 마지막 용맹정진을 발원하면 어떨까. 그러지 못한다면 세속에 찌든 삶 잠시 잊고 산사에 들러 참배하며, 인생을 관조하는 시간을 가져봄은 어떠할지.

산마다 아름다운 오색 단풍으로 옷을 갈아 입는 단풍철. 이미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은 오대산을 거쳐 이달 말이면 남쪽 내장산과 지리산까지 붉게 물들일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일교차가 심해 단풍이 1~2주 정도 빠른데다가 색도 고와 3~4년새에 가장 아름다울 것이라 한다. 단풍의 비경이 연출되는 산과 절로. 심신을 맑히는 '나를 찾는 묽은 여행'을 떠나보자.

설악산 백담사=봉정암, 오세암, 백담사로 이어진 숲길이 붉은 비단폭 같다. (033)462-3223

내장산 내장사=내장산 단풍은 웅대한 스케일의 활엽수림에서 절정을 이룬다. 27~29일 백양사 단풍축제. (063)533-8741

용문산 용문사=1천년 수령의 황금빛 은행나무(천연기념물 30호)가 고승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한다. (031)773-3797

봉황산 부석사=매표소에서 일주문을지나 무량수전까지 이어지는 비탈길은 온통 은행나무 천지. (054)633-3464

운문산 운문사=아늑한 소나무 숲과 조화된 비구니 사찰이 단풍과 잘 어울린다. (054)372-8800

능가산 내소사=부도밭과 호수와 조화된 전나무 숲, 단풍나무 길이 아름답다. (063)583-7281

치악산 구룡사=노송림과 계곡미가 뛰어나다. (033)744-8100

태백산 망경사=문수봉 정상까지 이르는 길은 눈덮힌 단풍이 유명. (033)553-1567

계룡산 갑사='추(秋)갑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5리숲' 말간 단풍잎이 아름답다. (041)857-8981

월악산 신륵사=용하계곡과 960봉을 잇는 단풍길이 꽃같다. (043)642-3803

가야산 해인사=삼보사찰 중 가장 단풍이 아름다운 사찰. (055)931-1001

가지산 석남사=푸른 노송 사이 사이로 빨갛게 물든 단풍이 사찰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055)264-8900

도솔산 선운사=선운사에서 도솔암 가는 길이 절경. (063)561-1422

지리산 연곡사=연곡사에서 피아골을 거쳐 노고단에 이르는 4시간의 산행이 지리산 단풍의 진수. 28~29일 지리산 피아골 단풍제. (061)782-7412

광덕산 광덕사=5백년 나이를 먹은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눈길을 놓아주지 않는다. (041)567-0050

칠현산 칠장사=일주문 길목에 200m정도의 은행나무 터널이 이채롭다. (031)672-7777

오대산 월정사=초입의 전나무숲길, 상원사로 이어지는 숲길이 빼어나다. (033)332-6664

글=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단풍드는 까닭은

식물(낙엽수)은 생육 최저온도인 5℃이하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 단풍의 드는 시기는 9월 상순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단풍은 노랗고 붉게 물드는 두 종류가 있다. 노란색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엽록소 합성이 중지되고 이미 잎속에 있던 엽록소가 없어짐에 따라 잎속에 남아있던 노란색소, 즉 카로틴(Carotin)과 크산토필(Xanthophyll)이 드러나 노란 색깔을 나타낸다. 붉은 색은 나뭇잎 속의 붉은 색소인 안토시안(Anthocyan)이 생기면서 나타난다.

단풍은 평지보다 산, 강수량이 많은 곳보다는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바른 곳, 일교차가 큰 곳 등에서 아름답게 물들고 나무의 종류와 수령, 토질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조량이 많을수록 나뭇잎에서 포도당이 많이 생성되어, 나뭇잎의 색소 중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어낸다.



◇석등에 불붙여 석탑을 화광세계로 인도하는 화려한 단풍의 장엄미.



◇단풍잎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흉시는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킨다.



◇오대산 월정사 천왕문을 붉은 비단으로 장엄한 단풍.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연밥죽



고소한 맛…열 내리고 눈·귀 밝게

승보종찰 송광사에는 근세의 큰스님이셨던 효봉 스님의 체취가 어려있다. 스님은 법관 생활 10년째를 맞아 민족투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자 삶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껴 무작정 가출하여, 엿장수 생활 3년의 방랑 끝에 마침내 금강산 신계사에서 득도하셨다. 정진 제일로 '절구통 수좌'란 별호를 얻으신 스님은 평생 무(無)자 화두를 놓지 않으시고 죽식과 칼국수를 좋아하셨다.

스님은 어려서 인절미를 먹고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었다. 그때 병석에 누운 손자를 보고 낙심하신 스님의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은 쌍초상을 치를 뻔했다. 결국 효봉 스님은 할아버지가 당신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덕분에 살아났다며, 평생 찹쌀떡을 드시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스님이 만행의 방편으로, 목에 잘 붙어 기도를 막기 쉬운 엿장수를 선택한 것은 역설적이라 하겠다.

효봉 스님은 피나는 정진을 하다 방석과 엉덩이가 들러 붙어 겉에서 보는 사람이 도리어 고통스러움을 느끼던 일이 여러 번 있었다. 효봉 스님이 정진삼매에 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음식적 특징이라면, 신계사에서 지성으로 드신 하루 1끼의 죽식일 것이다. 1년 6개월 동안 토굴에서 방석 석 장만으로 견딜 수 있었던 데는 연밥죽의 공로가 단연 으뜸이었다. 연밥(연자육)은 100년 이상의 생명력이 있고, 중국에서 발견된 수천 년 전의 씨앗이 발아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그 맛이 고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데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중시해온 전통적인 강장식으로 성장기의 어린이, 수험생과 노인, 아침 식사를 못하는 직장인에게 좋다. 연밥을 재료로 약식을 만들면 더욱 영양이 풍부한 선식이 될 것이다.

■ 약선식 연구가. 〈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연밥 50g 현미찹쌀 100g

요리법 1. 연밥을 따뜻한 물에 불렸다가 껍질을 벗겨 연밥의 속살을 준비한다.

2. 현미찹쌀과 연밥의 속살에 적당량의 물을 부어 센 불로 팔팔 끓이다가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인다.

3. 연밥은 별도로 갈아서 ②에 섞는다.

4. 연밥 속살이 무르고 죽이 걸쭉해지면 불을 끈다.

효능 ·열을 내리며 눈과 귀를 밝게 한다. 만성설사, 고혈압, 불면, 자궁 출혈 등에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④

古之爲道者 還有不從凡夫來者耶
고지위도자 환유부종범부래자야
諸經論中 還有不許末世衆生
제경논중 환유불허말세중생
修無漏道乎
수무루도호

예로부터 수도하는 자가 범부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자가 있었던가. 모든 경론 중에 말세 중생에게 출세간의 도 닦기를 허락하지 않은 데가 있던가.

圓覺經云 末世諸衆生 心不生虛妄
원각경운 말세제중생 심불생허망
불설여시인 현세즉보살 화엄론운
佛說如是人 現世卽菩薩 華嚴論云
若言此法 非是凡夫境界
약언차법 비시범부경계
是菩薩所行 當知是人 滅佛知見
시보살소행 당지시인 멸불지견
破滅正法 諸有智者 不應如是
파멸정법 제유지자 불응여시
不勤修行 設行不得 佛失善種
불근수행 설행부득 불실선종
猶成來世積習勝緣 故唯心訣云
유성내세적습승연 고유심결운
聞而不信 尙結佛種之因 學而未成
문이불신 상결불종지인 학이불성
唯盖人天之福
유개인천지복

〈원각경〉에 "말세 중생이 마음에 헛된 망상을 내지 않으면 부처님은 이런 사람은 현세의 보살이다" 했고, 〈화엄론〉 에는 "법(法)은 범부들이 미칠 경계가 아니고 보살들이 행할 일이라 한다면 이런 사람은 불지견(佛知見)을 소멸시키고 정법을 파괴할 자임을 알아야 한다"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걸 알고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수행을 하고 깨달음이 없더라도 선종(善種)을 잃지 아니하여 오히려 내세에 좋은 인연을 쌓고 익히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유심결〉에는 "듣고 믿지 않는다 해도 부처가 될 씨앗의 인을 맺을 수 있고, 배우고 이루지 못했다 해도 오히려 인천(人天)의 복을 덮는다" 하였다.

由是觀之 不論末法與正法時殊
유시관지 불론말법여정법시수
不憂自心昧之與明 但生仰信之心
불우자심매지여명 단생앙신지심
隨分修行 以結正因 速離劫弱
수분수행 이결정인 원리겁약
當知世樂非久 正法難聞
당지세락비구 정법난문
豈可因循 虛送人生
기가인순 허송인생
如是追念 過去久遠已來
여시추념 과거구원이래
虛受一切信心大苦 無有利益
허수일체신심대고 무유이익
現在卽有 無量逼迫 未來所苦
현재즉유 무량핍박 미래소고
亦無分齊 難捨難離 而不覺知
역무분제 난사난리 이불각지
況此身命 生滅無常 刹那難保
황차신명 생멸무상 찰나난보
石火風燈 逝波殘照 不足爲譬
석화풍등 서파잔조 부족위유

세속의 즐거움 오래가지 않는데
마음 닦지 않고 늙음 기다리나

歲月飄忽 暗 老相 心地未修
세월표홀 암최노상 심지미수
漸近死門
점근사문

이렇게 본다면 말법과 정법의 때가 다름을 말하지 말며, 자기 마음의 어둡고 밝음을 근심하지 말고 단지 신앙의 마음을 내어 연분을 따라 수행함으로써 정인(正因)을 맺고, 겁약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

마땅히 알라. 세속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고, 정법은 듣기 어려운데 어찌 하루하루 헛되이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아득한 과거부터 몸과 마음의 은갖 괴로움을 받아 아무 이익이 없었고, 현재에는 한없는 핍박을 받고 있고, 미래에 받을 괴로움 또한 끝 없으나 이를 버리고 멀리하기가 어렵구나.

그런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 하물며 이 목숨의 생멸이란 무상하여 한 순간도 보전키 어려운 것이 반짝이는 불빛, 바람 앞의 등불, 흘러가는 물결, 낙조(落照) 등에도 비유하지 못할 것이다. 세월이 급하고 빨라서 늙음을 재촉하는 데도 마음을 닦지 않고 점점 죽음의 문으로만 다가가고 있구나.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고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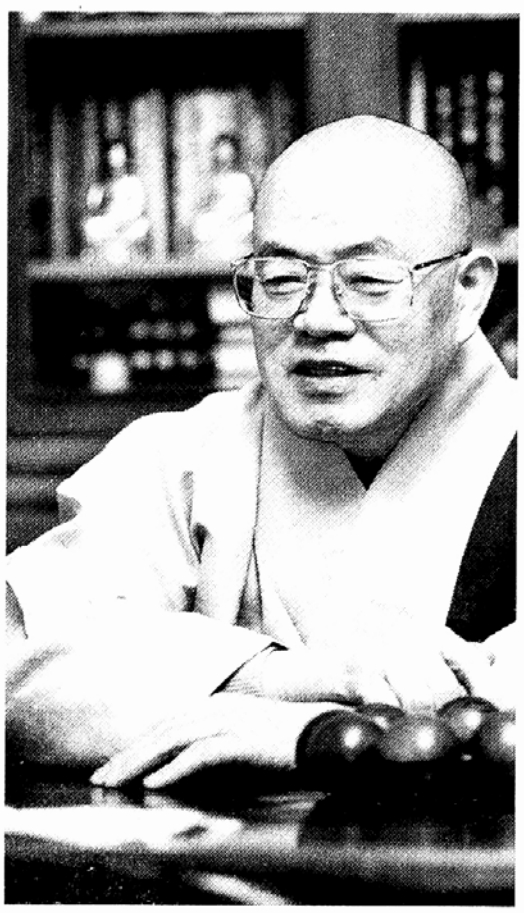
하동 쌍계사 조실

섬진강 줄기를 따라 쌍계사로 가는 길목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코스모스와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 입고 있는 산중의 나뭇잎들을 바라보니 이젠 완연한 가을임을 느낄 수 있었다. 법회에서 대중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주로 쌍계사와 연화도에서 수행에 정진하고 계시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을 뵙고 법문을 청했다.

스님이 거처하시는 방장실 입구에 서 있는 나무 위의 이름 모를 산새들의 음성공양은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온 나그네를 반갑게 맞아 주는 듯했다.

고산 스님은 "항상 남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지말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 줄 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돼야만 모든 중생들이 자연스럽게 자비를 베풀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불국토가 실현됩니다"라고 강조하셨다.

"양심따라 행동하면 지계"



- 34년 경남 울산 生
- 48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 61년 고봉스님으로부터 전법게 받음
- 69~75년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 역임
- 78년 조계종 제5대 중앙종회의원
- 98년~99년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 현재 부산 연화도 연화사에 주석

ㅡ지난해 10월 조계종 총무원장직에서 물러나신 뒤 초청 법회 이외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시지 않아 스님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불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총무원장직을 내놓고 연화도 섬에 내려 와서 홀로 수행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따금씩 밭에 나가 일도 하고 시간이 나면 바다로 산책과 명상을 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또 정신 수양을 위해 붓글씨도 씁니다. 이외의 시간에는 법회 초청을 받아 법문을 하러 물에 나가지요.

건강도 아침마다 108배와 참선을 해서 그런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총무원장 소임을 맡을 때나 바쁜 것은 마찬가지지만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중책을 훌훌 벗어버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공부와 정진을 하며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ㅡ스님께서는 총무원장 재임시절 '자비의 대중화'를 주요 실천 강령으로 정하고 종책을 펴셨는데 '자비의 대중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자비의 대중화'는 무차화합의 원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무차화합이란 종교인은 종교인끼리,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장벽을 헐어버리고 화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더 나아가서는 산천초목과 같은 자연과도 대화와 화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대중들이 힘이 약한 축생과 산천초목을 미약하다고 경시해서 죽이고 훼손시킨다면 결코 우주 만물의 진리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무차화합은 우주 삼라만상 중 무엇이든지 차등을 두지 않고 화합된 하나의 개체로 보는 것입니다.

'자비의 대중화' 역시 무차화합의 연장선 상에서 출발합니다. '자비'에는 사랑과 슬픔이 모두 존재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동시에 슬퍼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지요. 우선 사랑을 말하자면 내 자신부터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 내포 돼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또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슬퍼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런 뜻을 확실히 안 뒤에야 비로소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알고 위로도 하 주는 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 해주고 슬픔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는 행동의 실천이 바로 '자비의 대중화'입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은 도량을 거닐다가 지렁이가 죽은 모습을 보고도 시자를 불러 영가를 위한 축원을 해줬을 정도로 사람과 똑같이 미물의 생명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비롯해 미물까지 일체 만물을 모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대중화'이지요.

개신교에서 중히 여기는 '박애 사상'에는 사랑만이 포함돼 있는데, 자비는 사랑할줄 알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남의 슬픔까지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는 '박애'보다 한차원 더 넓은 의미입니다.

ㅡ요즘 세상이 나날이 험악해져 가고 있는데 스님 말씀대로 남의 슬픔까지 함께한다면 세상은 한층 따뜻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자비행'을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지요?

▲농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밭을 갈다가 본의 아니게 굼벵이가 곡괭이에 찍혀 죽은 것을 보면 측은지심을 가지고 좋은 인연으로 다시 환생하길 비는 마음만으로도 자비의 실천이지요.

집안에서 화초나 나무를 하나 키우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는 것도 얼핏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다른 형태의 '자비행'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길거리를 가다가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면 이를 불쌍히 여겨 보시행을 행하는 것을 비롯해, 다른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앞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용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비행이지요. 자비행이란 의미를 너무 심오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비를 행하겠다는 마음 자세지요.

ㅡ〈능엄경〉에 보면 '한 국토에 생(生)하는 자, 한나라에 태어나는 자 전체가 동업(同業) 중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한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 동포들도 같은 나라에 태어난 동업중생인데도 경제적인 면에서 남한보다 뒤떨어진다고 해서 단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로만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남북문제가 발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북한 동포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요.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서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38선이 그어져 남북이 가로막힌 비극적 역사의 원인은 바로 대중들 사이에 마음의 담장이 높게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자리부터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되겠습니까.

북한에는 산사태와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식량난이 심각해 내가 총무원장으로 있을때도 북한 동포들에게 옥수수와 쌀 등 식량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보다 못하니까 도와준다는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같은 핏줄을 지닌 한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돼 준다는 마음으로 여력이 되는 한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요.

미국서부 대자연 명상여행 참가자 모집

대자연의 웅혼한 기운 속에서 원초적 생명력을 회복한다!

정신세계원에서 주최하는 〈미국서부 대자연 명상여행〉은 세상의 모든 번뇌와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경탄을 금할 수 없는 미국 서부의 웅장한 대자연 속에서 그 원초적 생명력과 하나되는 벅찬 기쁨과 깊은 평화감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시의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인디언 거주지역 방문과 대도시에서의 뉴에이지 문화관광은 묘한 대비 속에서 21세기 정신문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열어줄 것입니다. 삶과 대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과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줄 이 명상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요 방문지







- 그랜드 캐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20억년의 세월을 머금고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자연 대계곡
- 파울 호수
- 브라이스 캐년
- 시온 캐년
- 콜로라도 강가 라홀린의 월라파이족 인디언 마을 방문, 인디언 의식 참관
- 로스 엔젤레스
  - ▶ 세계 최대규모의 뉴에이지 박람회 Whole Life Expo 참관
  - ▶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에이지 서점 Bodhi Tree 방문
  - ▶ 서양에 요가의 진수를 전한 20세기 최고의 요가 수행자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명상센터 SRF(Self Realization Fellowship) 견학 및 명상과 기도시간 동참
  - ▶ 중국 불교 사원 방문 등

••• Whole Life Expo 참관(18일 종일): 21세기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선도하는 이 박람회에는 대체의학, 명상, 氣과학, 초심현상, 채널링 등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 도서 및 음반, 물품, 제품 등이 전시 판매되며, 이 시대 인류의 최첨단 정신문명의 현주소를 집약해서 보여준다.

일 정	11월 17일(금)~ 23일(목) / 현지 6박 7일
참 가 비	210만원
모집인원	20명~ 30명(11월 2일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
특기사항	LA 왕복 아시아나 항공, 현지에서는 최신형 리무진 버스 이용 명상여행 전문 1급 가이드(정지현: 현지 거주 22년)의 안내
주 최	정신세계원(담당: 황갑제/ 02-747-7033)
주 관	정지현 테마여행사 (전화: 미국 510-368-0424) e-mail: jihyunusa@hotmail.com

- 최종 접수 마감일: 11월 2일(여권 및 비자 관계는 각자 해결)
- 참가자들을 위한 설명회: 11월 2일(목) 오후1시 및 6시/ 정신세계원에서

** 「정신세계원」은 국내에서 유일한 '명상 · 심신수련 전문 문화센터'이며, <정신세계사>, <월간 정신세계>, <책방 정신세계>와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정신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정신세계원 (02)747-7033

정신세계 정신세계사 월간 정신세계 책방 정신세계 정신세계원 전화 (02)747-7033 / 팩스 (02)747-7034 /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책방 정신세계 | 정화문점(02)737-8115 | 대구점(053)943-4824 | 원주점(033)742-7540 | 대전점(042)489-9390 | 부산점(051)294-8545 | 안양점(031)466-2208 | 마산점(055)248-5599 | 전주점(063)246-4888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자비행'을 실천하자고 강조하시는 고산스님.

"마음의 벽 허물면 저절로 평화"

"풀 한포기 나와 똑같은 생명체"

현재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많다고 우쭐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북한 동포들이 어느정도 어려움을 극복할때까지 합심해서 부처님의 무주상 보시 정신을 받들어 끝없이 베푼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도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특히 보시행을 할 때 유의할 것은 내가 잘살고 네가 못사니까 도와준다는 식이 아닌 차등과 차별없이 북한 동포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순수한 무주상 보시정신이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되면 50여년간 닫혀 있던 이념의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자연스레 허물어 질 것입니다.

불자들은 하심의 마음을 갖고 북한 동포들이 경제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동체대비의 마음을 갖고 같은 민족, 같은 형제라는 사해동포적인 자세로 북한 동포들을 바로 봐야 합니다.

— 전국 각지의 사찰을 다니시며 법석을 통해 그동안 수행에서 얻으신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회때마다 대중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항상 8만4천가지 번뇌 망상심에 사로잡혀 산다고 했지요. 이중 양심, 용심, 섭심, 수심 등 근본 4종심이 있는데 이를 잘 의지해 수행하면 능히 도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세상을 떠날때는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참회의 말을 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양심이지요. 악한 사람도 이렇진데 대중들중에는 양심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심에 가책되지 않는 일만 행하고 산다면 불자로서 임무를 다하는 삶이 되고 나아가서는 보살도를 행하는 길이지요. 이것이 출가나 재가 수행자의 본 모습입니다.

또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마음을 아름답게 쓰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용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섭심'은 8만4천가지의 망상심들이 자꾸 생겨 마음 밖으로 빠져 나가는데 이것을 잘 다스려 현명하게 거두어 들이는 마음을 말하지요.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을 자주 돌아보면서 자기가 한 잘못된 행동을 참회하면서 마음을 닦아 수행하는 '수심'을 자주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외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잊지 않고 말합니다.

— 스님은 평생동안 석왕사, 조계사, 쌍계사 등 유수의 사찰에서 대중 포교에 힘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 중생들의 무명을 깨치고 이 세상을 극락정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불자들은 늘 기원합니다. 스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대중 포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 주시지요.

▲대중포교라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동안 조용한 산속에서 수행 정진을 통해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포교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보다 많이 침체돼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시대는 급속히 변하고 있지요. 21세기를 맞아 선(禪)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불교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들에게 불교를 정확히 알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부터 30년전에 처음 포교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포교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신도들에게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절집 사이에 놓여 있는 담장부터 허물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문을 한 뒤 나보고 미쳤다며 법문을 듣고 간 신도 보살들의 남편으로 부터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요. 집집마다 담장을 허물면 스님이 도둑을 맥임 질 거냐고 직접 찾아와 따지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집집마다 가로막고 있는 담장만 허물면 마음까지도 열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중들의 정신 문화를 바꿔 주는 것이 먼저 해야할 일인데 눈앞에 보이는 형상에만 집착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생들끼리 쌓여 있는 마음의 벽부터 허물면 담장을 허물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없애 버릴텐데 어리석은 주문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부터는 화합하며 마음문을 활짝 열라고 강조했지요. 이 시행착오를 통해 느낀 것은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충분히 생각 한 뒤 대중들이 실천 가능토록 현실에 맞게 지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렵다거나 근기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대중 포교는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지요. 오랜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신도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 가능한 포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무주상 보시는
> 내가 많이 가져서
> 이웃 돕는게 아닌
> 더불어 살기위해
> 내것 나누는 것

— 스님께서는 철저하게 계를 지키며 수좌들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엄격하게 꾸짖으며 가르쳐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재가불자들 역시 오계를 받지만 계를 받을 때뿐 평소에는 오계를 지킨다는 것조차 무감각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계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불자들이 모든 계를 다 지키려고 하면 생활인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 판단 기준을 양심에 견주다 보면 그것이 곧 생활속에서 계를 지키는 효과를 가져 오지요.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척 하고 싶지만 가만히 자신의 내면속에 들어 있는 양심에 반해 가책을 느낀다고 판단될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가 불자들이 계를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편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신만이 아는 양심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행동의 모든 판단 기준을 양심에 맡기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요. 그러다보면 계를 지킨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재가불자들이 지켜야할 모든 계를 마음속에서 수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재가불자들이 수행에 임할때는 자기를 장식하고 있는 온갖 화장을 지워버리고 덜되었으면 덜 된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본연의 모습에서 자기를 철저히 성찰하려는 진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세진에 물들여 지는 동안 자기 본성을 깨닫게 잊어 버리고 말지요. 진정한 자기 본성 깨닫는 지름길은 자신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미망의 옷을 훌훌 벗고,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꾸준한 마음으로 자신을 항상 채찍질 하는 것이 참다운 종교인인 동시에 생활인의 자세입니다.

대담=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원범스님

아마도 대개의 스님들도 그러하겠지만 많은 도반들 중에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도반은 행자도반이리라. 오랜 세월 정진하신 노스님들께서도 "아련한 추억 속에 똬리를 틀고 놓아주지 않는 놈은 행자도반뿐" 이라고 말씀하셨다. 행자도반이 좋은 것은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생활이 초발심의 견고한 신심과 맞물려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리라.

엊그제 관악산엘 다녀왔다. 아직은 푸르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산 정상부터 알록달록 번져 가는 붉은 단풍의 채색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 수행의 '중물'은 얼만큼 들었을까를 생각하니 얼굴이 단풍색깔만큼이나 붉어진다. 이런 날은 철 이르게 떨어져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조차 서글프게 느껴지게 된다.

고개 들어 하늘을 본다. 푸른하늘위에 흰 구름이 떠있다. 거기에 운주암이 있고 내 그리운 도반의 모습도 보인다. 산이 높아 구름도 머물다 간다 하여 운주암이었던가.

행자교육 기간중 우리는 유난히도 장난이 심했다. 엄격한 규율과 진중한 행자교육 기간중의 묵언조차도 우리의 장난을 막지 못했다.

화악산 절벽위 조그만 암자 겨울준비에 여념이 없다

습의사스님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눈짓 손짓으로 말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치곤 했다. 어떤 날 내가 그의 발우에 천수물을 가득 따른 앙갚음으로 내 발우랍시고 숭늉을 가득 부어 버린 일이 있었다. 천수물은 발우를 닦고 난 후 퇴수를 할 수 있지만 숭늉은 퇴수를 할 수가 없다. 다 마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반이 숭늉을 따른 발우가 내 발우가 아닌 옆자리의 발우였다.

하필이면 그 많은 교육생중 가장 나이 많은 노행자 발우에 숭늉을 따른 것이었다. 절 집안에서 공양시간은 엄숙하다. 또한 묵언정진중인 행자교육 기간중임에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며 인상쓰는 노행자의 맞은 편에는, 처음엔 "너도 당해 봐라"는 듯 눈웃음치며 득의양양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어쩔줄 모르고 앉아 있었다. 찜찔해는 그 도반의 발우에 내가 재빨리 숭늉을 모두 넘겨줌으로써 그 도반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휴식시간 올챙이배를 통통거리며 두고 보리며 복수를 다짐하던 그 도반의 얼굴이 오늘은 무척이나 그립다.

경북 청도 화악산 가파른 절벽위 조그만 암자에 그가 있다. 서울에 오기 전 운주암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공양주가 없어 라면을 끓여주며 미안해하는 그에게 "스님은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되겠네?" 하고 넌지시 물어 보았더니 "무슨 소리, 중이 공부해야지. 난 도량정비 끝나면 걸망 메고 참선하러 떠날 거야. 대중과 같이 공부해야 중이지" 하며 정색을 하던 그다. 그가 운주암에 처음 온 것이 한 삼사 년쯤 되나보다. 처음 이 암자는 조계종 사찰임에도 수년간 비워져 있다가 어느 무당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재판 끝에 겨우 찾아 원범스님이 맡은 것이다. 워낙 산세가 험한 곳이라 모든 일을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살림살이였다. 산에서 땔감을 구해다 장작을 패고,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고 좁은 길을 다듬어 큰길을 내고 관공서를 찾아다녀 겨우 도로를 내고… 그 모든 것을 그 혼자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다. 법당에 비가 새고 식당겸 요사채는 다 허물어진 암자를 그는 최고의 기도도량으로 만들려고 원을 세웠다. 여기까지가 그의 할 일이라면서… 도반 스님의 거처는 법당 뒤 조그만 공방 하나다. 그곳에서 그는 불사준비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다. 운주암은 최고의 풍광을 지닌, 내가 본 곳중 몇 안되는, 산세가 좋고 깎아지른 벼랑 위에 우뚝 솟은 멋진 도량이다. 이제 그곳에 목탁소리 드높고 불사준비 한창이란다.

얼마 전 원범스님에게 전화한통을 받았다.



비록 가건물이지만 요사 한 채를 지었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기도객이 와도 쉴 수 있는 거처 하나 없었다. 도반스님이 와도 쉬지를 못하고 차한잔 마시고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힘들게 올라와서 그냥 가는 도반에게 무척이나 미안했던지 "스님 이제 오면 며칠 쉬었다 가도 돼" 라면서 결절 웃었다.

올 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원범스님은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비가 새는 법당, 무너진 언덕등을 보수하느라 밤잠도 설쳤다고 했다. 이제 화악산 골짜기에도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지만, 스님은 겨울준비에 여념이 없다. 눈이 오면 산중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겨울 찬거리며 법당보수며 땔감이며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누런 밀짚모자 하나 눌러쓴 채 겁게 탄 얼굴로 흰 이빨을 드러내며 웃던 스님. 이 가을날에는 또 얼마나 탔을까. 어렵사리 구한 장작의 바퀴가 일년도 되지 않아 다 닳았다며 투덜대던 스님. 모쪼록 운주암 불사가 원력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하여 화악산 골짜기 골골마다 목탁소리, 기도소리 끊이지 않는 기도도량으로 거듭나리라.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 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512쪽 /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5권 /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중能人海印三昧中'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심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海印 皆入極樂'는 구절이 있다.

큰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베푸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큰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말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마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체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큰스승의 말에 오춘심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므라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상현실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큰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공화문점(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천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6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



제물포 사진대전 대상

선암스님 '정대불사'

사진가 선암스님이 제18회 전국 제물포 사진대전에서 '정대불사'(사진)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선암사 경관 정대불사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경관을 머리에 이고, 환희심에 가득찬 불자의 얼굴을 중심으로 그 뒤 줄지어 선 행렬의 모습을 원경으로 담았다. 시상식은 11월 4일 오후 3시 인천시 종합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이은자 기자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이후,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어린시절과 인도로 망명하기 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쿤둔'이 11월 18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된다.

평화와 자유로의 갈망

티베트불교 다룬 영화 '쿤둔'

달라이라마 이야기 '관심'
순수의 세계 담은 영상 '황홀'
신비주의적 불교접근 '취약'

'택시 드라이버' '순수의 시대' 등의 영화를 통해 작가주의 영화감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돼 온 마틴 스콜시즈. 그는 희망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 희망이 바로 평화와 자유, 인권에 관한 문제라면….

올해 초부터 국내외를 달구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여부를 앞둔 시점에서,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영화 '쿤둔'이 오는 11월 18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이후, 주요 종교의 성직자들이 정부의 달라이 라마 방한허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개봉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쿤둔'은 티베트어로 '고귀한 존재'란 뜻이다. 영화 '쿤둔'에서 마틴 스콜시즈 감독은 자연에 순응하며 과거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가는 순수한 티베트인들의 삶을, 어린 달라이 라마의 시점에서 그려내고 있다. 달라이 라마가 2살 때부터 18세 중국의 탄압을 피해 인도로 망명하기까지의 삶이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듯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러다 보니 자유와 평화, 인권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접하고자 하는 관객에게는 다소 실망을 안겨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생 처음 카메라 앞에선 어린아이와 아마추어 연기자들이 걸쳐내는 순수의 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면에 펼쳐지는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쿤둔'은 제작당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된 티베트 불교 열풍으로 각국의 관심을 불러모았으나, 중국 정부의 방해로 인해 아시아권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비디오 상영도 불가능했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열린 인권영화제에서 잠시 선을 보인 것이 전부다.

이 영화는, 티베트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인 살아있는 부처, 즉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감독은 물론 번역자조차 불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 '비구와 비구니'를 '승려와 비구니'로 포현한 것 정도는 사소한 실수로 넘길 수도 있었으나, 티베트의 현실에 대해서는 반쯤 눈을 감은 채 다분히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한 점이나, 신적 존재로서의 '달라이 라마'를 신과 동일시한 점은 서구인이 본 불교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쿤둔'은 불교의 가르침을 티베트 전통 장례의식과 만다라 등을 통해 탁월한 영상으로 표현해 내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영화다. 또 영화 속에서 만나는 티베트의 전통의식과 생활, 달라이라마에 대한 한결같은 티베트인들의 믿음과 희망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에 충분하다.

"폭력은 절대 정당해질 수 없어. 선·악 모든 일엔 인과가 있는 법. 다만 선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야." 중국과 티베트의 전쟁 한 가운데 위태롭게 선 18세의 달라이 라마가 문지기에게 한 이 말은 어쩌면 마틴 스콜시즈 감독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희망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다.

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2001년 불교달력 나왔다

디자인 '산뜻'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쏟아져 나오는 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안방을 지키고 있는 게 있다. 바로 달력이다.

내년도 새해 달력이 출시되고 있다. 불기 2545년(2001년) 신사(辛巳)년 불교달력은 여전히 전통 소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한결 세련된 디자인과 작품성 있는 사진과 그림을 사용하는 등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들로 인해 예년에 비해 훨씬 다양해지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가야기획은 '산사의 마음', '부처님의 성지' 등 20종의 달력을 새로 내놓았다. 연꽃이나 달마도, 탑 등 전통적인 소재를 쓰면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산사의 계절별 모습에 등자승 캐릭터를 합성한 달력과 불교달력에선 보기 드문 아스테지를 입힌 직사각형 모양의 달력들이 눈에 띈다. (02)732-2461

감로기획이 내놓은 달력은 14종이다. '동자승의 세계'를 비롯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지연스님의 불교 꽃꽂이 작품을 실은 '산사의 꽃향기' 등이다. (02)723-4306

불광문화사업부는 새해 달력으로 2종류를 선보였다. '천년의 빛'은 사진가 박보하 씨가 찍은 사찰 사진을 담았고, '날마다 좋은 날'은 일장스님의 선묵화를 소개하고 있다. (02)420-3200

조계종출판부는 석공스님의 사진집 '만행'과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담은 '구도' 등 4종류의 달력을 새로 내놓았다. (02)733-6390

권형진 기자



화합의 문화 향연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24~31일, 예술의 전당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등 우리나라 대표 종교들이 종교간 예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이해 증진과 화합을 구현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4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를 연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이번 종교예술제는 24일~31일까지 예술의 전당과 프레스센터에서 펼쳐진다.

예술의 전당 제4,5전시실에 열리는 미술제에는 김대열, 송영방, 하수경, 이만익 등 원로중견불자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회화 조각 서예 공예 등의 분야 총 149점이 전시된다.

영화제는 25일~28일까지 예술의 전당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린다. 25일 북한영화 '안중근', 26일 터베트영화 '컵', 27일 방화 '내 마음의 풍금', 28일 외화 '마태복음' 등이 오후 3시와 7시 하루 2회 상영된다. 또 3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21세기 계놈시대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학술제가 열린다. 박이문교수(포항공대 과학철학과), 김용정교수(동국대 철학과), 황경식교수(서울대 철학과) 등이 주제발표를 하고, '계놈과 인간존재와 종교가 추구하는 윤리적 문제' '계놈연구의 문제점과 종교인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제에서는 가톨빈가합창단, 원음합창단, 가톨릭합창단, 홀리크로스합창단 등 250여명의 연합합창단이 출연해 수준높은 무대를 꾸몄다. (02)3704-9540

이은지 기자

전시



◇최씨의 사진에는 스리랑카의 혼이 숨쉬고 있다.

스리랑카 사진순례

최영윤 첫 개인전, 25일까지

올해 68세의 할머니 불자 최영윤씨(인천여성문화사진회 부회장), 6년전 취미로 시작한 사진에 빠져, 그동안 스리랑카 곳곳을 순례하며 남다른 노력과 정열로 담은 사진들을 모아 첫 개인전 '찬란하게 빛나는 섬 스리랑카'를 25일까지 인천여성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갖는다. 최씨는 이번 전시에서 스리랑카의 자연과 생활, 불교 전통을 담은 총5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온화함이 가득한 사람들의 표정, 정겨운 스리랑카 농가의 모습 등에서 우리의 60년대 모습을 보는 듯했다"는 최씨는 "이름 모를 새와 꽃, 끝없이 펼쳐진 새벽녘 운해, 투명하게 깊었던 푸른 하늘, 부처님께 드리는 간절한 염원들을 많은 분들과 오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에 담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는 11월4일~17일 강화 청송예랑에서도 전시회를 연다.(032)937-2500



◇문화재기능인협회 회원 전연호씨의 '나한도.

과연 장인의 솜씨…

문화재기능인 작품전, 11월2일까지

대목장 석장 탱화장 등 30여년 간 문화재를 수리해온 문화재 수리기능보유자들. 얼핏 이들은 문화재 보존 수리만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는 창작을 통한 작품활동도 활발히 한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문화재청 후원으로 서울역 문화관 전시실에서 제5회 문화재기능인 작품전을 개최한다.

신응수 대목장, 전흥수 대목장, 박찬수 목조각장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걸어 온 1백20여 명 장인들의 솜씨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신응수 회장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문화상품을 개발, 선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02)3672-8803

마하몰 신상품 및 추천상품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MAHAMALL

108나한단주



-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 있음 (18알×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 재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 (고급 케이스 포함)

설악 상황버섯



● 상황버섯이란?

오래된 봉나무 그루터기에서 자생하는 봉나무 버섯으로 설악 상황버섯은 기존의 여러 농가에서 톱밥으로 재배한 버섯과 달리 건강에 좋은 환미에 배양 재배하므로 버섯의 자실층과 균사체 전부를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상품 효능 / 효과

1. 항암효과 - 면역항체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암에 대한 저항력을강화시켜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2. 예방작용 - 초기암의 증식방지 효과, 특히 수술후 재발방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3. 항종양작용 - 고혈압에 대한 성장억제 효과가 탁월합니다.
4. 상승작용 - 화학요법제 투여나, 방사선요법과 병행하면 이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5. 안정성 - 기존의 항암치료제와는 달리 탈모증, 고통스러운 부작용이 전혀 없으므로 장기복용해도 절대 안정적입니다.

- 내용량 : 340g (170g × 2개입) - 원산지 : 강원도 속초
- 원료명 : 천미상황 100% (국산)
- 가 격 : 135,000원

설악 동충하초 환



● 동충하초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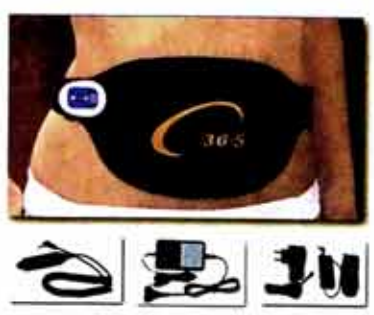
동충하초균이 겨울에는 곤충의 몸 속에서 자생하다가 여름에는 풀처럼 피어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를 귀한 약재로 다룬 나라는 중국이며 중국에서는 이를 인삼, 녹용과 함께 3대 약재로 취급하면서 마치 불로 장생의명약처럼 여겼습니다

● 상품 효능/효과

1. 호흡계 작용 - 여러가지 약효중에 호흡기 계통의 병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2. 면역력 증가 - '코디세핀'이라는 항생물질과 다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증강, 마약해독, 병해충방제에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3. 스테미너 증강 - 노화방지와 항피로 작용이 있어서 고된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언제나 젊은이 같은 힘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 내용량 : 설악동충하초 환 130g (65g × 2개입)
- 성 분 : 동충하초 90%, 국산 참벌 10%
- 섭취량 : 1일 3회 식후 10~20알
- 가 격 : 49,500원

꼬온열 건강벨트



● 상품설명

꼬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피로, 허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정(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허침, 피로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며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허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탈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밧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투명꽃 5인 다기세트



● 상품소개

우아한 빛깔과 곡선이 느껴지는 전통다기 셋트입니다. 차맛을 우려내는 다관, 탕수를 식히는 사발 숙우, 차를 따라 마시는 찻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 격 : 150,000원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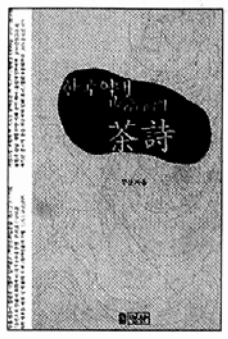


● 상품소개

스탠드형 - 규격 : 43×23×2.8cm - 무게 : 1.8kg - 가 격 : 97,000원
액 자 형 - 규격 : 69×43×3cm - 무게 : 4.5kg - 가 격 : 107,000원

"다담선 뿌리찾아 20여년 국내외 누벼"

'한국역대고승의 茶詩'낸 무산 스님



"역대 조사 스님들이 다시(茶詩)를 짓고 음송하였던 차 생활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차 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내면 세계에는 바로 다담선(茶湛禪)이라는 선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 역대 고승들의 다시를 모아 엮은 〈한국 역대 고승의 다시〉(명상)를 내놓은 무산 스님(경주 해회선원 주지)은 선 생활화의 근본이 다도이며, 그 핵심이 '다시'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스님은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것을 다담선'이라고 말한다. 이 다담선을 처음 주창한 사람은 중국 송나라 때의 백운 수단(1024~1072) 선사. 그가 차를 마시면서 화경청적(和敬淸寂)과 명선(茗禪)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다담선을 열었다는 것이다.

효당 스님(전 해인사 주지)에게 다도를 배운 무산 스님은 지난 68년부터 중국과 일본 등 차 생산지를 답사하며 차 연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스님은 지금까지 다인들이 알고 있는 '다도'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유구대사가 아니라 교연대사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특히 다담선의 수행법을 기록한 〈다당청규(茶堂淸規)〉와의 만남은 스님의 차 연구를 급선회하게 했다. 바로 다담선의 원류와 우리 나라 다담선맥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스님은 〈다당청규〉〈중국선종대사전〉 등 동양 고전을 통해 다담선의 실체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다담선을 수학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다.

"다담선은 백운 수단 선사가 양기 방회 선사의 문하에서 수행하던 중에 확철대오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우리 나라에 다담선을 들여온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입니다. 스님은 1084년 송나라로 유학을 떠나 백운 수단 선사의 법제자인 원조 종본 선사로부터 다담선을 배웠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우리 나라 다담선의 초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산 스님은 20여 년 동안 대각 국사 이후의 여러 고승들의 문집과 어록 등을 삽삽이 살펴 26명의 한국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했다. 대각 국사로부터 시작되는 다담 선맥은 고려의 진각-진정-원감-백운-태고-나옹 선사까지 이어졌다. 조선에서는 함허 대사를 시작으로 설잠-보우-서산-정관-사명-부휴-소요-취미-허백-중관-백곡-월저-함월-지환-연담-혜장-초의-범해 선사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해 선사 이후로는 다담선의 맥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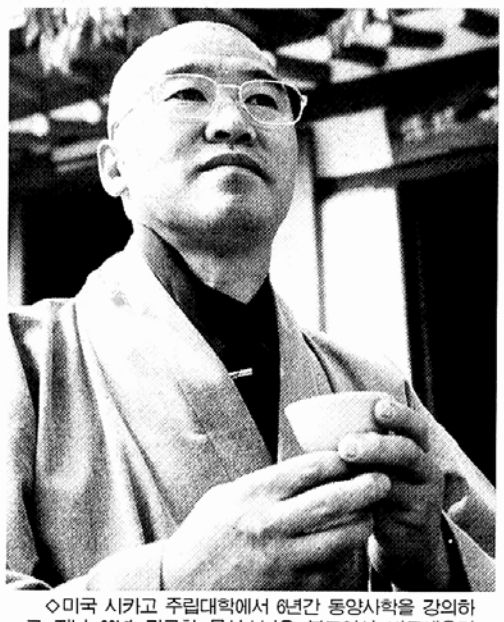
고승문집·어록 등 조사
26명 한국다담 선맥 정립

무산 스님은 우리 나라 다담선의 수행 화두가 '명선(茗禪)'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고 있다. "'명선'이란 차를 마시며 수행을 함에 있어 차나무에서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선의 싹이 나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창조 백운 수단 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토해낸 공안입니다. 이러한 연원을 갖고 있는 다담선의 맥이 불가에서 사라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책은 다담선의 묘미를 알게 하는 역대 조사스님들이 남긴 다시를 찾아내고 우리말로 옮겼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나라 다담선의 선맥을 처음으로 정리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다담선맥을 정립하는 것은 불교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는 무산 스님은 앞으로 고승들의 유고집, 열반송, 오도송 등도 출간할 예정이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미국 시카고 주립대학에서 6년간 동양사학을 강의하고 지난 89년 귀국한 무산스님은 불교역사 바로세우기 위한 폭넓은 연구를 하고 있다.

생태원리 살린 뒷간 철학

자연을 꿈꾸는 뒷간
이동범 지음



"똥·오줌에도 도(道)가 있다는 말이 있고, 뒷간으로 그 집의 품격을 가늠한다는 말도 있다. 사람의 진실됨은 우리가 은밀하게 여기는 뒷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따라 알 수 있다."

사찰 해우소 즉 뒷간의 지혜에 감복해 자신도 꼭 그런 뒷간을 짓고 살겠다며 귀농한 이동범 씨(겨레문화답사연합 대표)가 사찰 해우소를 비롯 뒷간에 담긴 지혜와 생태적 가치를 살핀 〈자연을 꿈꾸는 뒷간〉(들녘)을 내놓았다.

이 책은 똥이 다시 밥으로 순환되는 생태적 원리와 이치를 담고 있다. 글쓴이는 사찰 해우소 속에 담긴 생태적 원리를 보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스님들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비탈 구조의 활용과 산 속에 자리잡은 사찰의 지형적 조건, 그리고 이에 맞게 재·부엽토·나뭇잎·인분 등을 섞어 퇴비로 만든 것을 보면 인간과 자연의 만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는 사찰 해우소의 생태적 원리를 올바르게 인식, 우리의 환경·문화적 자원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뒷간 문화, 뒷간의 생태원리, 새로운 뒷간 문화를 위하여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생태적 뒷간의 사례와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세식 화장실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뒷간 하면 불결한 곳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저자는 단언한다. 전통 뒷간이 수세식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올가을 읽고 싶은 불서
'스님의 수필' 1위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

네티즌들이 올 가을 가장 읽고 싶은 불서는 '스님이 쓴 수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계 최초 일간 인터넷 신문 붓다뉴스 닷컴(buddhanews.com)이 네티즌들을 상대로 실시한 '올 가을 읽고 싶은 불교책' 설문조사에서 '스님이 쓴 수필(38%)'이 가장 읽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7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선사들의 어록 및 전기(34%)'도 스님이 쓴 수필에 못지 않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어 네티즌들은 올 가을 읽고 싶은 불서로 불교역사서(10%), 부처님 일대기(8%), 교리·법문서적(8%)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가볍게 읽으면서 수행의 향취도 느낄 수 있는 불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갈등의 中-티베트 역사

김한규 지음 티베트와 중국



달라이 라마와 포탈라궁, 그리고 흰눈이 덮인 높은 산…. 서장(西藏)이라고도 불리는 티베트는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지만 물리적 거리 이상으로 심리적 거리는 아직 멀다.

신간 〈티베트와 중국〉(소나무)은 티베트와 중국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글쓴이 김한규 교수(부산여대)는 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가 아닌 인도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탐구한다.

이 책은 토번시대의 티베트와 당대의 중국의 관계가 독립한 두 나라의 긴장 관계였음을 설명하면서 시작된다. 티베트 지역을 통일한 토번이 당의 주요한 위협세력이 되면서 두 나라는 갈등 관계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 이후 몽고가 세계 제국을 형성하면서 티베트와 중국은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다. 두 나라 사이에 단월(檀越)관계라 불리는 공시(供施)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배경으로 티베트의 대라마가 티베트 정교의 최고 권위를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나라로 접어들면서 티베트 지역의 정치 세력도 분열되고 명나라에 의한 책봉 조공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의 변화가 청나라 때에도 지속되었다가 국민당 정부와 그 뒤를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과 이로 인한 14세 달라이 라마의 망명과 망명 정부 수립에 이르는 길고 복잡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논쟁을 정리한 이 책은, 달라이 라마가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와 신비한 종교의 땅 티베트와 중국의 오랜 갈등의 관계를 샅샅이 살피고 있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죽창수필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손발이 춤추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해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독서삼매경에 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지에 든다는 것은 복잡한 세상사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특히 일년에 책 한권도 제대로 읽을까 말까할 정도인데 삼매경의 경지라니….

그러나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불서를 읽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서 읽기가 참 불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면, 우선 자신의 성향에 맞는 불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염두해야 할 점은 책이 독자를 압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선의 선택이다. 〈죽창수필〉(불광)은 이런 기준에 딱 들어맞는 책이다. 사람 사는 얘기와 재미난 이야기들은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혀주고, 법문까지 들려줌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이런 점이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책에 몰입하게 하는 '죽창수필'의 힘이다.



세상사 얘기하듯
여운·불심 묻어나는
큰스님 설법 에세이

글쓴이는 중국 항주 운서산에 일대총림을 창건하여 선·염불·계율에 대해 투철했던 운서 주굉 스님. 스님이 79세 되던 해 대나무 창(竹窓) 아래에서 붓 가는 대로 쓴 것이 이 책이다. 원로 스님이 쓴 글이여선지 원숙하면서도 날카롭다. 묻고 대답하는 짧은 글이 440여 편이나 실려 있으나 그 요점은 불심을 밝히는 데 있다. 특히 아무 비관 없이 내려온 구습이나 그릇된 풍습을 지적한 점은 눈 여겨 볼만하다.

이처럼 이 책의 글들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새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책의 가치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나친 호평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독자들에게 오히려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밝은 독자들에게는 이 책의 진솔함이 신선한 깨달음으로 다가 갈 것이다.

만약 한 줄의 글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바쁜 분이라면, 그냥 사서 책상 위에 올려 두기라도 하라고 감히 권한다. 저절로 읽게 될 책이기 때문이다. 연관스님 옮김. 값 1만 8천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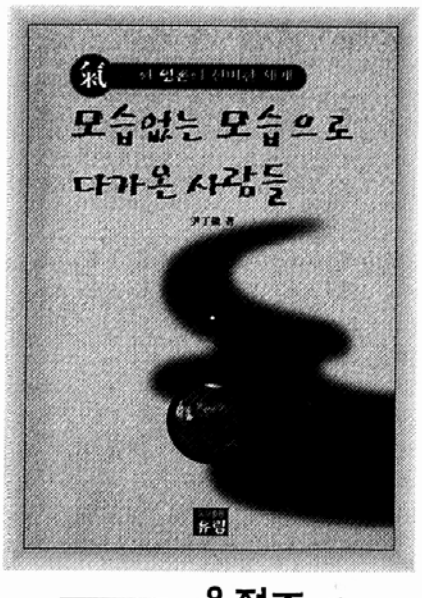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2	석가모니 지혜동화	허 순 봉	은 하 수
3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모 색
4	천수경 천수신앙	혜 국	효 림
5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6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7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8	석가모니 슬기동화	허 순 봉	은 하 수
9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10	붓다	다카하시 신지	해 누 리

도서 안내:(02)737-0695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윤정주 저
<값 15,000원>

신비한 기(氣)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윤정주 著 도서출판 유림 펴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몸의 아픔이 천도가 안된 보이지 않는 영혼(靈魂)의 의식인 기(氣:에너지)체가 사람의 몸 속에 시공을 초월해 들락거리므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초능력적 체험 이야기를 세계역사상 최초로 그 이론을 세밀하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초능력을 소유하고 나서도 저자의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 원극학의 진인(眞人)인 장지상(張志祥) 교수로 부터 기(氣)와 광(光), 음(音)의 이론으로 구성된 원극학(元極學)을 전공받았으며 원극학(元極學)연구와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 윤정주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아무 곳에서나 어떠한 의식(儀式)도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1~2초 내에 영가천도(靈駕薦度)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아픔을 원격(遠隔)으로 해결하는 수행(修行)에서 얻어진 독특한 초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 주고 심신의 안정을 바르게 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기(氣:저자의 마음에너지)를 서울과 대구의 수련원에서 시공을 초월해 나누어주며 해결해 주고 있다.

영남일보, 매일신문 논평기사중에서 -

지금도 우주공간에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또 그렇게 떠돌게 될 예비영혼들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의 구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 솜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에서 미흡한 실력이지만 수련원을 열었습니다.

- 책의 본문에서 -

영가천도에 관한 저자의 초능력 체험 이야기와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신비하고 재미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영가천도 초능력 전수가 가능함

"월정사 향낭 국내 最古 자수"

권영숙 교수 보고서

강원도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지난 70년 발견된 자수향낭이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자수유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권영숙(부산대 의류학) 교수는 18일 열린 '월정사 성보박물관 개관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자수향낭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자수향낭은 통일신라시대의 나(羅)직물로 유물 표면을 금니(金泥)로 처리한 우수한 공예품"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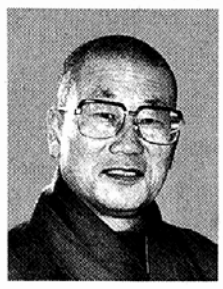
권 교수에 따르면, 현미경 조사결과 자수를 놓기 위해 사용했던 실은 동시대 일본이나 중국에서 쓰던 편금사(금을 펴서 실로 만든 것)나 연금사(금과 실을 함께 꼬아 만든 실)가 아닌 니금사(실에 금물을 부어 만든 실)란 독특한 기법으로 독창적인 신라시대 자수 기술과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또 수가 놓여진 바탕 천으로 사용된 '나(羅)'라는 직물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쓰였던 천으로 재질이 망사처럼 얇고 가는 관계로 부식되기 쉬워 우리 나라에서는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유물이 거의 없다.

그 동안 통일신라시대의 직물루 표면장식기법에 대해 문헌으로만 전해졌을 뿐 현존하는 유물이 없었다. 이번에 월정사 자수향낭이 통일신라 유물로 조사됨에 따라 통일신라시대 전후의 화려한 나직물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 · 세로 6cm 크기의 자수향낭은 향합을 담는데 사용한 주머니로 표면에 화려한 연화문 자수가 수 놓여 있는 높은 수준의 예술품이지만 발견 당시 그대로 월정사에서 보관해와 보존처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오종욱 기자



생명복제시대 윤회사상의 위상 비관-낙관 '팽팽'



◇호진 스님

비관론

"윤회 부정 수행 필요하겠나"

생명복제 시대에도 과연 불교교리의 핵심인 윤회(輪廻) 사상이 수용될 수 있을까?

'생명공학과 불교'를 특집으로 다룬 〈불교평론〉 통권4호에서 "윤회사상은 도전에 직면하고, 수행 무용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비관론과, "유전자 조작은 삶의 변형일 뿐, 윤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낙관론이 나란히 나왔다.

특히 두 관점은 윤회의 원동력인 업(業)에 주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데도, 업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비관론을 펴고 있는 호진(동국대 교수) 스님의 경우, "업은 각 개체의 의지에 의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업을 다른 존재에게 이전시키거나 다른 존재가 지은 업의 결과를 대신 받을 수 없다"고 한 반면 최정규(고려대 강사) 박사는 "업을 담고 있는 장(藏 · 아뢰야)은 깨달음을 좇는 수행의 과정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한 생명체의 업은 태어나면서 주어진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지만, 태어난 후에 이 생명체가 짓게 될 새로운 업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관론은 '업의 계승'에, 낙관론은 '업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이와 같은 상대적인 결론을 추론했다.

호진 스님에 따르면, 윤회 사상에 입각하면 우주의 생명체는 그 기원에서부터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 한 생명체가 죽으면 그것은 형태를 바꾸면서 다시 태어나게 되지만 증식은 할 수 없다. 태초부터 그 존재는 그 존재일 뿐이다. 즉 '업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복제 인간이 만들어져 나오면, 윤회사상은 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윤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수행의 의미마저 없어지게 되고 만다. 수행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의 길을 막고 있는 삼독(三毒 · 탐진치)을 끊어 없애는 길이다. 그런데 벗어나야 할 윤회 그 자체가 사라진다면, 수행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최 박사는 "낙관론에서 수행은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선 '깨달은 자의 복제인간은 성장하면서 깨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깨달은 사람을 복제하면



◇최정규 박사

낙관론

"유전자 조작 삶의 변형일 뿐"

깨달음을 성취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 역시 일정한 수행의 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격은 단순한 복제와 달리 주체적인 자각과 수행을 통하여 인격을 질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인데, 최 박사는 "이러한 점에서 윤회설은 생명공학의 영역을 진정으로 포섭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계 · 정 · 혜 통해 한국불교 정체성 찾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화두를 버리고 선정(定), 계율(戒), 지혜(慧)로 무장된 선(禪)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한국불교의 화두-간화와 돈오를 넘어 새 정체성 만들기'를 통해 "한국불교의 활로는 수행과 일상의 지평선 위에 있다"며 "수행의 초점을 돈오(頓悟)가 아니라 점수(漸修)에 세울 것"을 요청했다. 화두가 등장하면서 약해진 선정을 좌선으로 키우는 한편, 일상에서도 자각의 고삐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교수는 "좌선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일상의 자각을 보태는 수행법을 찾아야 한다"며 "좌선으로 닦은 선정은 현대 문명을 구원하는 주체로 승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형조 교수

"화두 넘자" 강력 주장

그 다음으로 한 교수는 "화두나 돈오에 밀려난 계율과 지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실천을 중시했던 초기의 선 수행자는 율종의 사원에 기거할 만큼 계율에 충실했다. 또 경전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이를 다시 현실에 맞게 해석하고 이해해, 선에 지혜를 접목시켰다.

또한 한 교수는 삼학으로 새롭게 일어난 선을 철저히 수행할 때, 한국불교의 구조적 모순인 사찰 입장료와 신도 보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데도 주목했다.

한형조 교수는 결론에서 "화두와 돈오에 의해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었던 불교의 풍부한 전통을 삼학(三學 : 계 · 정 · 혜)의 선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으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선정수행 핵심 '앎' 아닌 '닦음'의 문제"

김준호 박사 '초기불전에 나타난…' 발표

"간화선 일변도의 수행에서 벗어나, 초기 불전에 나타난 일상적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준호(부산대 강사) 박사는 한국선학회의 월례발표회에서 '초기불전에 나타난 지관(止觀)개념'을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김 박사에 따르면 초기불교의 근본선(禪)은 욕망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욕망이라는 끊임없는 갈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깨달음이나 성불을 이상으로 삼기보다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실천론'으로 삼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 박사는 "초기불전에서 지



(止)는 감각적 욕망이 그치고 사라진 상태이고, 관(觀)은 무아, 무상 등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관찰하는 것"이라며 "이 두 개가 결합되는 순간이 '정각(正覺)'의 경계에 들어선 선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으로 김 박사는 초기 · 부파불교 경전에서 선정수행의 예비과정으로 지 · 관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국내에서 간화선의 전통만을 내세워 초기불교에 나타난 수행을 비판하고 있지만, 지관(止觀)이야말로 석가모니가 수행한 근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호 박사는 결론에서 "선정수행은 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써 앎의 문제가 아니라 닦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㉔ 탄허의 월정사 · 정암사 편액



◇정선 정암사 일주문 편액.



◇평창 월정사 편액.

탄허 택성(呑虛宅成 · 1913~1983)은 근대를 대표하는 학승으로 전라북도 김제군 망경에서 김홍규(金洪奎)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2세가 되던 해에 오대산 상원사 한암 중원(漢岩 重遠)을 은사로 출가, 참선 수행에 매진하였다고 한다. 이후 그는 오대산연수원 원장, 월정사 조실, 동국대학교 대학선원 원장, 조계종 초대 중앙역경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특히 한문 대장경의 한글화에 힘써 120여 권의 경전을 번역, 출간하였다.

탄허는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웠고, 15세가 되면서부터는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의 후학인 이극종으로부터 다방면의 학문을 섭렵한 그의 글씨는 호방한 필치를 특징으로 하는데, 평창 월정사 〈적광전〉, 〈오대산월정사〉, 〈설청구민〉, 〈천왕문〉, 〈월정대가람〉, 〈삼성각〉, 〈대강당〉, 강릉 보현사 〈영산전〉, 홍천 수타사 〈삼성각〉, 〈심우산방〉, 정선 정암사 〈태백산정암사〉, 〈자장각〉, 〈삼성각〉, 〈범종각〉, 〈육화도량〉, 〈선불도량〉, 화성 용주사 〈지장전〉, 아산 강당사 〈관선재〉, 아산 봉곡사 〈봉곡사〉, 예산 향천사 〈극락전〉, 정읍 내장사 〈정혜루〉 편액 등 강원도와 충청도 일원의 사찰에 많이 남아 있다.

평창 월정사 〈적광전〉 편액에는 액판 좌측에 '신해춘 탄허(辛亥春 呑虛)'라는 관지가 있다. 이 편액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칠불보전 자리에 1971년 봄에 절의 본전인 적광전을 새로 지으면서 탄허가 쓴 것이다. 이 편액의 글씨는 대부분의 그의 글씨와 마찬가지로 서법에 매이지 않고 심의(心意)대로 쓴 선필 행초(行草)다.

정선 정암사 일주문에 걸려있는 〈태백산정암사〉 편액은 변죽을 따로 붙이지 않은 통판에 음양각으로 글씨를 새긴 것으로, 액판 좌측에 두줄로 '무오중추 탄허(戊午仲秋 呑虛)'라는 관지가 있다. 이 편액은 1978년 가을에 일주문을 신축하면서 당시 월정사에 머물던 탄허의 글씨를 받아 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탄허 특유의 호방한 선필이지만, 글씨의 아래 위 액판의 여백이 충분치 않아 편액의 모양이 다소 옹색한 느낌을 준다.

월정사 적광전
心意대로 쓴 선필 행초

태백산 정암사
통판에 음양각으로 새겨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학술단신

원효학硏 학술회의

원효학연구원은 25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원효의 실천행'(김상현), '화엄교학에 있어서의 실천행'(도업스님), '즉신성불의 원리와 실천수행법'(종석스님), '〈운문광록〉에 나타난 실천행'(신규탁), '천태의 사종삼매의 종합적 성격'(이병욱) 등이 발표된다. (054)746-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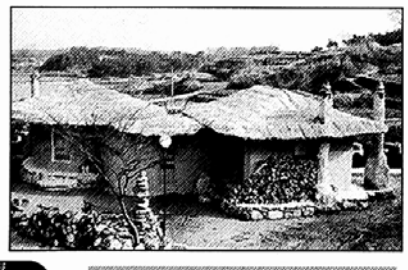
진각논문대상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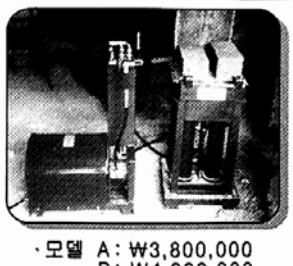
진각종 교육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종인원에서 제2회 진각논문대상 발표회를 갖는다. 발표회에는 '범해각안의 고대불교사 연구에 관한 검토'(오경후), '까말라쉴라의 소의불설의 귀류논증적 해결에 대하여'(이종복), '위 · 진 시기 현학과 반야학의 관계 연구'(김진무) 등이 발표된다. (02)913-0755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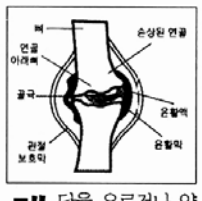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습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합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콩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불교대학친선체육대회안내

한국불교법사대학 대 동방불교대학

귀의 삼보 하옵고,
만산홍엽이 더욱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금반 양 불교대학 학생회에서는 여래의 인지법행에 의해 보살의 학법을 탁마하는 양 대학 학우들간에 우호협력증진을 통해 지목행족(智目行足)의 성취능력을 더욱 진작시키고자 하는 바램의 행사 일환으로 상호 친선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로 인해 불교 발전과 탁월한 불교 교역자의 역할수행에 선진적 활로가 성취되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과 격려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행사 안내
- 행 사 명 : 제1회 한국불교법사대학 대 동방불교대학 친선체육대회
- 일 시 : 2000년 10월 29일 일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 소 : 서울 성북동 소재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 참가대상 : 양 대학 재학생 · 동문 및 가족
- 주 관 : 동방불교대학 학생회 ·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위원회
- 후 원 : 한국불교법사대학, 동방불교대학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한국불교법사교단
- 협 찬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한국불교신문사,
한국불교태고종 교임협의회, 법사불교신문

한국불교법사대학 ☎ (02) 720-1836
동 방 불 교 대 학 ☎ (02) 763-8536

막의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④



(3) 들통난 왕자의 정체

막의는 총총히 뜰을 가로질러 선방을 찾았다. 뜰 앞에는 보리수 한 그루가 우뚝 솟아 있었다. 막의는 보리수를 무척 좋아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의 고행 끝에 마침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그녀를 매료시켰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무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 즉 곧은 줄기와 맑은 기운으로 윤기가 감도는 잎새는 그녀를 황홀케 했다. 보리수의 푸른 잎을 보고 있으면 순박함과 고결함 그리고 탈속의 경지를 느낄 수 있었다. 보리수의 그런 특성은 그녀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이기도 했다. 게다가 '보리'라는 두 글자가 들어있는 나무 이름은 사형 '보리'다라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피부에 와 닿는 가까움을 느꼈다. 어떤 땐 보리수를 사형의 화신인 양 착각하기도 했다.

막의는 보리수 옆을 지나면서 발타대사가 한 말을 새삼스럽게 곱씹었다. 대사께서 사형을 선방으로 옮겨준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상념에 빠졌다. 때마침 보리다라가 불만스런 표정으로 선방에서 뛰어나왔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정면으로 부딪쳤다.

보리다라는 황급히 물러섰다. 너무나 미안한 일이었다.

"사매…, 내 불찰을 용서하시오!"

그는 합장하며 사과했다.

"…."

마음 문을 닫고 있었다

황망하기는 막의도 마찬가지였다. 갑작스런 일에 두 볼이 발개졌다. 보리다라의 사과에 무슨 달로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러나 곧 평소 모습을 되찾았다.

"오히려 제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잘못인데 사형께서 사과하시다니…, 당치도 않습니다…. 한데, 사형께선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나오시다니…."

사실 두 사람이 이처럼 부딪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보리다라는 무술이 출중한 막의가 자기를 피하지 못한 것을 내심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무슨 곡절이 있으리라 짐작했다.

"사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소?"

"여…."

막의는 보자기를 건네면서 말을 이었다.

"대사님의 명을 받들어 사형의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 드리려고 왔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보자기를 보는 순간 그는 몹시 당혹스러웠다. 열어 볼 것도 없이 보자기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석들은 급할 때 요긴하게 쓰라고 부왕(父王)께서 사람을 시켜 몰래 보내온 것이었다. 궁성을 떠날 때 보리다라는 몸에 지닌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생활하는 데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불문(佛門)의 자비로움에 늘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이 보석이 사람의 눈에 발견될까 싶어 무척 신경을 썼다. 만약 그렇게 되면 왕자의 신분이 탄로날 뿐만 아니라 일대 소란이 벌어져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요사채의 침대 밑에 깊숙이 감췄다. 평소 행자승들이 청소할 때도 그곳만은 지나치는 것을 확인까지 한 터였다. 이렇게 사매가 보따리를 들고 오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보리다라는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선방으로 옮겨 준 까닭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발타대사를 찾아가서 다시 요사채로 돌려 보내 줄 것을 부탁하려던 참이었다. 아직은 여러 사형들과 함께 수련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대사께서는 모든 비밀을 아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대사님의 명을 받들어 사형의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매도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표정이었다.

그가 염려하던 일이 마침내 터져 버린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이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향지국 같은 큰 나라의 왕자는 작은 나라의 왕과 같은 신분이다. 어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서슴없이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신분이 드러나 이곳 사찰 안팎에 소문이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 할 것이고 만나기조차 두려워할 것이 뻔하다. 평소 그의 잘못을 거리낌없이 지적해 주던 사매마저도 그를 경원할 듯 싶어 안타까웠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은 전혀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

보리다라는 막의를 흘깃 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보따리를 받았다.

"사형! 당신은…?"

이미 내막을 알고 있는 막의는 여전히 의혹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큰 나라의 왕자라면 무엇이든 부족한 게 없을 것이고, 근심걱정 또한 없을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휘황찬란한 보석을 몸에 걸치고 못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한데, 무슨 까닭으로 속세를 버리고 이곳 깊은 산 속 절간으로 들어온 것일까. 만약 그가 정말 왕자라면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도 여기서 접을 수밖에 없다. 천박한 평민 계급의 딸이 어디 감히 왕자를 마음 속에 품을 수 있단 말인가.

브리다라는 막의의 이런 마음 속 흐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결코 목석이 아니었다. 그녀를 끔찍하게 생각하기는 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평민의 딸이라곤 하나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구태여 그것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애정이 끓어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미 오래 전에 고(苦) 집(集) 멸(滅) 도(道)의 사제(四諦)와 팔정도(八正道)를 굳게 지키기로 다짐한 그였다.

부끄러워 고개숙인 막의

사실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이 되어 백성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었다. 하지만 아무리 정치를 잘 하더라도 그것이 만백성을 제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불법(佛法)만이 무량하여 진리의 비를 두루 뿌려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속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진지하게 수행에만 전념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보리다라는 왕자라는 신분이 노출된 이상 여기서 더 머무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막의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떠듬떠듬 말문을 열었다.

"사매! 그대가 이미 모든 것을 알았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소…. 다만, 일부러 속이려 한 것은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소!"

"사형은 정말로 왕자이신가요?"

막의의 말투는 이미 극존칭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 하지만 왕자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소."

"어쩐지…."

"사매!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왕자라고 해서 그대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오…. 나는 오직…."

"그만 하세요!"

막의도 보리다라가 왕자라는 신분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가 따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정감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아직도 나를 사매로 생각하시나요?"

보리다라는 가볍게 미소지었다.

"사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소…."

"저는요?…"

막의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마치 바람에 너울거리는 촛불처럼 춤을 추었다. 그 웃음소리는 그의 마음 속에 긴 여운을 남기며 퍼져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여전히, 한 사람은 선방문 안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선방문 밖에 선 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시간은 멈추어 선 듯 싶었다. 예불을 올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에 실려 온 종소리는 두 남녀의 귓가에 울려 맴돌았다. 종소리 하나하나는 이윽고 그들의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온몸은 종소리 속으로 녹아들어 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사매!"

보리다라가 정적을 깼다. 그리고 막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이렇게 진지하게 그리고 뚫어지도록 쳐다본 일은 일찍이 없었다. 막의의 얼굴도 달아올랐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나는 여기서 오래 머물면서 사매와 함께 무술을 닦고…, 경전 공부도 할 작정이었소…. 그런데 내가 왕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소…. 왕자라는 나의 신분 앞에 모두가 허리를 굽히는 천박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소…. 심지어 발타대사조차도 특별 대우를 하시다니…. 분명, 이건 아닌 것 같은데…."

幻影속에 빠지는 느낌

"그게 뭐 어때서요? 본래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막의가 웃으면서 대꾸했다.

"본래 이래야 된다고?"

보리다라는 큰 소리로 웃었다.

"왜 이래야만 되지? 사매! 일이 이렇게 된 바엔 나는 역시 궁으로 돌아가서 왕자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겠어…. 번거로운 일이지만… 이 보석은 대사님께 전해 주었으면 좋겠어…. 절 안에서 피우는 향을 사는 데 쓰시도록…."

"궁성으로 돌아가시려고요?"



◇허백련(1891~1977)作 〈달마도〉, 광주 문장호 소장.

막의는 건네받은 보자기 속의 보석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본래 이래야 된다고 하지 않았소?"

보리다라는 가슴을 젖히면서 짐짓 큰 소리로 웃었다.

"사형! 우리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지도 3년이나 되었으니… 가시는 길에 좀 바래다 드려도 괜찮겠지요?"

"좋아요! 고맙소!… 사실 그동안 나의 공부가 이나마 진전을 이룬 데는 사매의 도움이 컸소…,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보리다라의 얼굴에는 보기 드물게 정다운 기운이 감돌았다. 막의는 그런 표정을 보자 행복했다. 정겨운 웃음이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보리다라가 겉으로는 무척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론 다정다감한 인간미의 소유자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우뚝 솟은 보리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보리다라를 다시 한번 올려보았다. 나무가 사람이고 사람이 나무인 듯 환영(幻影) 속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하늘은 까마득했다. 어느덧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선방 앞 연못의 맑은 물은 저녁노을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선방 주변을 겹겹이 싸고 있는 숲엔 온갖 새들이 지저귀며 둥지로 찾아 들었다. 선경이 따로 없었다. 이곳이 바로 선경이다. 선방 앞에 서 있는 보리다라와 막의의 모습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쿵쿵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벤드기, 엔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음계 - 4계절용 돌침대
■ 돌메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베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화조
101 싱글보드
(옥스톤)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단체구입은 직접 상담받습니다. ☎ 02)424-9427/2203-7821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숯베게
▶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뻐근 합니까? 베게를 바꾸십시요.
▶ 풍풍이 잘되고 세탁도 간편한 옥숯 베게
35,000→12,000원 (택배비는 별도)
※ 단체주문 환영 ※

청소년 사이버 포교 '낮잠'

교계 10여개 홈페이지 업데이터 외면
홍보부족 방문객 없고 정보질도 낮아

최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속속 등장해 호응을 얻고 있지만, 불교계는 사이트 개설은 고사하고 기존의 사이트 마저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어 청소년 사이버 포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트는 대한불교 청소년연합회(이하 청교련)와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양정청소년회관 등 10여 개의 단체들이 개설한 홈페이지 뿐이다. 이들 중 교계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국을 만든 양정청소년회관과 디지털상담실 정도만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터 시키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뿐 다른 사이트들은 게시판과 자료실, 방명록 등이 처음 개설했을 때 그대로이다. 또 새롭게 업데이터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신행 정보와는 동떨어진 내용들 투성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설상가상으로 모단체의 충북지부 사이트는 개설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접속 횟수가 20건도 채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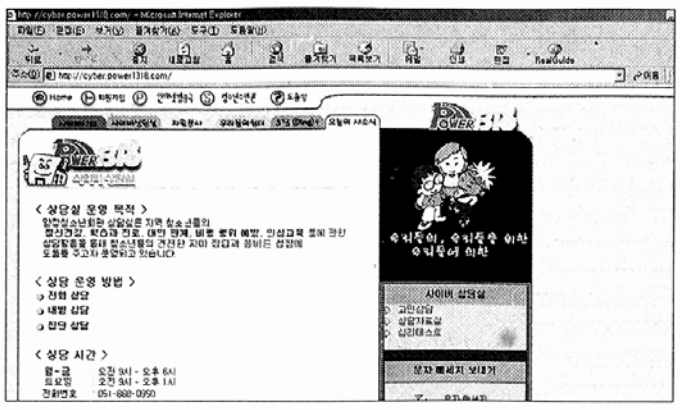
이런 관리 부실의 원인으로는 사이버 포교에 대한 각 청소년 단체들의 예산 지원 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을 꼽는다. 또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미약하다 보니 이러한 사이트가 있다는 자체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컴퓨터 세대인 청소년들의 성향을 외면한 사이버 포교의 불교 청소년 포교는 앞길이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클릭 하나로 집에서 청소년들이 불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신속히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불교 컨텐츠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이트 개설이야말로 시급하다. 이와함께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 이들로 하여금 신세대 감각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며 새로운 불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디지털청소년 상담실 홍자운 실장은 "사이버 공간은 10대들의 억눌린 욕망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해방공간과 교육적 역할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이용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 초기 제작 의도에 맞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터 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비해 일반 사이트는 틴존, 아이두, 아르투디닷넷, 한공부닷컴 등 1백 여개가 넘는 내실있는 사이트가 청소년들을 손짓하고 있다.

이들 중 게임, 영상채팅, 음악, 댄스, 쇼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틴존(teenzone.co.kr)과 청소년들의 학업 및 취미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아르투디닷넷(rtod.net)은 개설된지 1달만에 방문자가 2만명을 넘는 등 인기가 높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10대를 위한 다양한 불교 청소년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야 하고, 또 신세대 감각에 맞는 다양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9월 새단장한 양정청소년 회관 사이트.

주부 신행담

백일홍 나무처럼 ③ · 〈끝〉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거듭한다. 그저 존재하지도 않는 관념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웃고 울며 화내고, 좋아하거나 또 미워하고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언제 나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마음을 집중해 나를 지켜 보는 수행이 위빠사나 수행이다. 좌선시 숨을 내쉬고 들이쉬며 나를 관찰하고, 내 마음이 들떠있는지 내 마음이 밖에 나가있는지 내 마음이 불안한 지를 지켜본다. 불안하면 불안한 마음을 살피게 된다. 그러고 나면 불안한 마음이란 본시 없는 것이란 걸 알게되고 마음이 편안해 진다. 내가 40이 넘게 살아왔지만 내 마음을 관심갖고 지켜본 일이 없었다. 그저 감정에, 오욕칠정에 휘둘리며 살아온 것인데, 마음을 알려면 마음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다.

슬프다, 괴롭다, 근심된다, 평화롭다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내 마음속에 묶어 놓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란 절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린 계속 대상을 밖에 두고 끝없는 끄달림속에서 살아 왔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좌선과 경행, 주선과 와선으로 나를 지켜보며 내안을 관찰하며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걸 알았다.

나는 6박7일간의 위빠사나 집중 수행을 통해 과연 인생이란 마음먹기 따라서 정말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평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요즘도 그 마음 놓치지 않고 수련때처럼 마음을 관찰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 자상하게 위빠사나 수행을 가르쳐주신 붓다 락기타 스님과 불교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불교는 과학이다 라고 일러주신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두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나의 모습에서 마음공부를 하고자 노력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남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채우는 방법을 알 것 같다. 정말 불교는 아름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종교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수련회에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20년동안 내 곁에서 꾸준히 온화한 모습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몸으로 그리고 말로 가르쳐주고 지켜봐 주신 형님이 너무나 고맙기만 하다. 형님은 사실 감내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번 겪은 사람임에도 전혀 내색 안하고 항상 편안하고 잔잔한 모습으로 나의 의지처가 돼 주셨다. 형님을 나의 스승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존경하는 형님, 앞으로도 대원사의 듬직한 백일홍 나무처럼 늘 제 곁에 계셔주시고 좋은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만, 불자로서 아름답고 진실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께요."

서회순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3동〉



그림 · 이준석

"불안한 마음은 본래 없는 것"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②

■ 손의 색깔과 건강



손의 색깔 건강 '신호등'

청색-순환기·장기 이상
백색-저혈압·무기력증

'손 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수습 불능의 상태로 들어섰을 때 쓰는 말이다. 건강의 경우, 어떤 시술이나 약물로도 치료 불가능한 상태를 이른다. '손이 없다'는 갈도 있다. 이 경우의 손은, 일손 즉 노동력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인간사의 다양한 국면을 '손'과 관련지어 표현한 예는 무수히 많다. '손을 떼다', '손을 벌리다', '손을 잡다', '손을 타다'고 하는 등.

이렇듯 손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상징할 정도로 인간의 '인간 다움'을 지켜 주는 신체기관이다. 따라서 손의 불편은 행동의 제약을 수반한다. 손톱 밑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면 온신 자체가 거북해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무방비 상태로 추위에 떨 때도 가장 먼저 손끝부터 아리기 시작한다. 특히 생손앓이 할 때의 극심한 통증은 말로 다 못할 정도인데, 이는 손가락 끝에 감각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손이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일 텐데, 전문가들은 손의 색깔과 건강 상태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다.

분홍기는 양호, 청색기는 순환기나 장의 피로를, 적색기는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의 과다, 백색기는 저혈압이나 무기력증을 나타낸다.

청년불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뭘까

대불청 26일부터 지도력 교육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는 침체된 청년 포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불청은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1회에 걸쳐 조계사 문화교육관 2층 설법전에서 '청년의 새로운 실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 교육 강좌를 마련한다.

교양교육과 기본 교육, 전문 교육 등 3단계로 나눠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는 조계사 청년회와 서울불교청년회, 대불청 서울지부 임원 50여명을 초청, 불교청년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을 강의와 워크숍,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특히 피교육자와 외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 10여명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이후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은 △26일 시민운동의 환경과 과제(김병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11월 2일 자기관리, 조직 관리(선세갑 시민사회네트 소장) △11월 9·16일 프로그램 기획과 회의 진행법(송혁관 한국휴먼네트워크 이사) △11월 30일 민속과 문화 운동의 결합(전재경 한국 법제연구원장) △12월 14일 참여불교운동의 방향과 전망(박광서 재가연대 대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가을 사찰 문화기행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29일 해인사와 직지사로 '가을 사찰 문화 기행'을 떠난다. 이번 답사는 108배 정진, 참선 수행, 성보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혜능 보육원 원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직지사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고승 진영전'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043)257-0807

대불련 생태학교 열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11월 21일까지 동의대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생태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이 '문명의 발달과 생명 운동'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전국 귀농운동본부 이병철 본부장은 '자연과 내가 하나되는 삶이 좋다'란 주제로 농촌에서 일했던 생생한 경험담을 털어 놓는다. (051)818-4113

청교련 장애인 봉사교육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15일 마포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2000 청소년 자원봉사 한마당, 함께하는 밝은 세상'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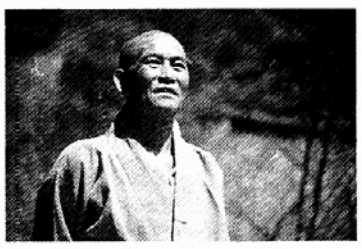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이해, 점자도서 입력 방법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자원 봉사자 전문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교육을 마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내주부터 시각장애인 봉사에 나선다.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불자 가족을 위한

뉴질랜드 특별 어학 연수단 모집

삼보에 귀의 하옵고,
남 태평양 한 가운데,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영국 귀족 문화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축복 받은 나라 뉴질랜드. 불과 100 여 가정만이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며 살고 있지만 모두가 합심하여 꾸준히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드넓은 부지에 부처님 모실 법당도 조출하나마 마련하였습니다. 경사스럽게도, 이번에 저희 남국정사가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부처님의 진신사리 한 과를 기증 받아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국경과 민족을 넘어, 감축하고 또 감축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허술하게 모실 수도 없고, 또 절 집에 탑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지라 저희들의 능력에 과분한 불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남국 정사 신도들은 진신사리를 모실 탑 건립을 위한 불사 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어학 연수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 그야 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극락과도 같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보살들과 같이 친절하고 푸근합니다. 영국 귀족 문화의 전통과 현대 서양 문화의 조화가 절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스티디 투어 1기생 잉글게임 장면

연수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여러가지 옥내외 활동을 개최하여 자녀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출발 전부터 체류기간, 그리고 한국 도착 까지 남국정사 모든 불자 가족들이 안전하고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자녀들의 영어 습득, 새로운 문화 경험, 그리고 성스러운 불사 동참, 이 세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출발일 : 2001년 1월 5일
기간 : 5주, 8주 선택
대상 :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생
모집인원 : 선착순 60명
신청 마감일 : 11월 20일

참가비 : 395만원(5주), 645만원(8주)
※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제 경비 포함
(개인 용돈 외 추가 비용 없음)
한국 연락처 : 02-3392-4411-2
뉴질랜드 연락처 : 001-649-412-6422
(남국정사) 001-649-533-0200

동안거 선방 안내

보덕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안거선방
안내를 드리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 스님들께서는
연락 부탁 드립니다.
정진 하시는데 모든 정성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주 소 : 서울 성북구 정릉 4동 824-1
문의처 : 02) 914 - 4235

보덕선원장 오본 합장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천 태 불 교

본 사	02) 737-8881
강릉지사	033) 643-5599
고성지국	055) 672-0078
광주지사	062) 375-9986
대구지사	053) 983-9222
목포지국	061) 279-3788
밀양지국	055) 353-1196
부산지사	051) 463-5331
안산지국	031) 494-8859
영주지국	054) 674-1199
울산지사	052) 257-7737
진주지사	016) 585-2120
제주지사	016) 695-6885
충청지사	042) 527-0559
일본지사	031) 713-5111

돌아보면 자취없듯 걸림없이 살라

여러분과 더불어 항상 한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 또 드리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한발짝 떼어 놓으면 한발짝이 없어진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발짝을 떼어 놨으면 한발짝은 함이 없이 떼어 놓은 걸로 생각을 하셔야죠? 일평생 살면서 함이 없이 함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오시거나 하여튼 함이 없이 오신 겁니다. 뒤돌아 보면 온 사이가 없죠. 걸어 올라오다 보면은 걸어온 뒤는 보이질 않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방구 뀐 맛은 어떠며 저녁에 방구 뀐 맛은 어떻습니까?



그림 · 최주현

세상살이의 맛을 알려고, 맛을 알고 맛을 향해서 우리가 꽃 공양, 향 공양 또 곡미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사람이 한 접시에, 한 그릇에 담아있는 우주에 관한 것을 지구로 생각하시고 지구가 한 그릇에 몽땅 담아서 그냥 들고 있는 것과 같이 떠 있단 말입니다. 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떠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 막을 쳐놨습니다. 허공 전체에 막을 쳐놨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이를 기를 때처럼 막이 있고 떨어지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건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일평생 만사를 다 헤쳐가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헤쳐 가기엔 너무나 빈약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종발안에 일체 중생의 생명이 다 공생으로서 한데 담아 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서 분수가 나와서 전부 그저 뿌려 주는 데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마음 근본 가지고 살라

우리가 지금 꽃을 공양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람 한 개인한테 올린 게 아니라 전체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꽃 공양입니다. 꽃 모습은 이쁘고 아주 아름답지만 가지각색의 향기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이 온 누리에 퍼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 하나 따로 따로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꽃 공양입니다. 여러분이 올리면서 스님한테 꽃 공양 올린다고 하지만 스님과 더불어 같이 한자리로써, 이 공부를 하는 데에 바친다. 그러면 전 우주에 향기가 두루 퍼진다. 그 향기가 두루 해서 우리 각자에게 되돌아온다. 공을 치면은 공이 다시 되돌아오듯이,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다시 되돌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꽃 공양, 향 공양, 미 공양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해서 살아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조그마한 종발 안에서라고나 할까, 이리 저리 갈데도 없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저기서 일을 하고 물에서 덤벙덤벙하는데 이쪽에서 물에 빠진 발이 움죽거렸고 저쪽에서 물에 빠진 발이 움죽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놀려졌습니다. 모든 눈과 귀가 다 놀려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체 새록새록 닥치는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사시죠. 닥치는 대로 사는데 가외로 또 틈틈이 자기도 모르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닥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모두 움죽거리는 건 다르게 움죽거렸는데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또 혼자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빨리 알아야 반야심경의 뜻도 아시고, 우리가 홀로 함이 없이, 가고 오는 것도 없이, 시발점 종점도 없이, 이렇게 함이 없이 가고 오는구나, 이것을 아시면 저절로 한 둥구리에, 어미는 새끼에게 항상 먹이를 물어다 주고 하듯 그렇게 인연이 져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없고 뭐가 없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하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죠. 본래는, 여러분한테 진실한 생활이 도라는 거, 진리가 도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도가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이 따로 있고 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악도 한생각을 변형을 하면 선이 되고 선도 한 생각을 바꿔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생각에 달려있다 이런 겁니다. 모두가 한생각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한생각을, 당신들한테 나쁘게 되는 거를 번연히 알면서도 왜 한생각을 잘 돌리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이 이 세상의 색색가지 맛을 알기 위해서 걸었던 그 길,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 이 길이란 말입니다.

내게 있다고 내것이라 생각말고 그냥놓고 살아도 도둑질 못해요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모습도 자기가 아닌걸요

도의 길이 따로 있고 도가 아닌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의 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악도 선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 쳐도 어떤 분의 촛불만이 꺼지지 않고 다른 촛불들은 다 꺼지더랍니다. 비바람이 치니까요. 그 입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 어느 가난한 노파의 그 촛불 하나만이 켜져 있더랍니다. 그 이유를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켬이 없이 켠 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무너지고 어떠한 것이 몰아쳐도 영원히 꺼지지 않느니라. 그 불은 이 세상을 밝혀도 남음이 있는 불이니라' 하셨답니다. 쉽게 말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 생각없이 걸음을 쭉 걸어나가는 게, 우리가 세상살이 사는 길이에요. 발로 걸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움죽거릴 수가 없죠. 손을 놀려 주지 않으면 안되죠. 눈으로 봐주지 않으면 안되죠. 듣지 않으면 안되죠. 전부가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더불어 같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내가 따로 내 집을 가지고 산다, 내가 따로 돈을 가지고 산다, 내가 따로 먹을 거를 해놨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팽개치고 사셔도 누가 도둑질 못해요. 모두가 자기 것이 아닌걸요. 자기 모습도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에서 부처님을 봤다. 꿈으로 일러주셨다. 꿈에 나타나서 뭐 사는 거를 일러 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건 도가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화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꿈이고 그것도 꿈인데 왜 꿈을 찾아서 알려고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깐 점점 더 미거해지고 더 어리석어지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것도 굼이고 현실에 사는 것도 꿈인데 꿈에서 꿈을 왜 또 찾느냐? 꿈에서 부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보면 안보입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보이죠? 좀 실질적으로 실컷 보세요. 허허허허. 꿈에 보려고 애쓰지 마시구요. 실질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색경을 봐라.' 색경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못난 내 얼굴만 보입니다." 하니까 그게 부처라고 한 겁니다. 그 속에서 부처가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해서 우주와 같기도 하고 조그마한 보리쌀 아니 겨자씨만 하기도 하다. 겨자씨라는 건 예전에 그렇게 말을 해 놨기 때문에 겨자씨 겨자씨하지 좁쌀알갱이만 하기도 하고 먼지만 하기도 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한 거를 흉내내서 할 량으로 노력하지 말고 못났던 잘났던 내가 가진 내 것,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발전을 하시라. 발전을 해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자에 선지식들이 말씀해 놓으신 거를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선지식이 말씀하신 게 다 거기에 나와요.

나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모두 공했다는 이 뜻을 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했다는 뜻이 뭐냐하면, 내 몸을 봐도 공한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몸 속 세포 하나 하나에도 생명이 들어 있으니, 생명이 들어 있기보다도 생명체 전체가 움죽거리고 있죠. 의식들이 말입니다. 생명의 모습들이 가지각색 해 가지고요. 그러나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거를 해야겠다 그런다면 그 의식들도 저거를 해야겠다고 같이 가요. 그러나 나는 큰 신장으로 가야겠다. 가는데 어떠한 게 밟히든 걸리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간다면 의식들도 그렇게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요것 조것 가리지만 의식들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갈 뿐이지, 벽도 봇장도 산도 물도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해요. 그러기 때문에 공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할 무엇이 없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 진리 말씀을 더 말할게 없다. 본래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생각 잘 굴리면 묘법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공심으로 산다. 의식 전체가 공심이다. 공심으로 살기 때문에 공체로 산다. 우리가 공체로 그냥, 너는 왜 이렇게 동그랗냐? 나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둥굴지도 않은데 하니까, 내 모습이 둥근 게 아니라 너가 사는 게 그냥 둥굴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심으로 사는 데 공체다. 공체로 살기 때문에 모두 응용하는 게 공용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그림 그린 거 보고 그래도 그것이 다 나지. 편안하게 하려면, 그것이 용이다 하면 용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고 내 용이다. 내가 지금 의식도 다 한데 모아져서 움죽거리는데 보고 듣고 하는데 그게 나 움죽거리는 거와 같으니깐 용이 들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매사가 편안하고 발판이 서고 좋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용이다 하면은 네 가지가 한데 그렇게 됐죠. 그 네 가지는 빠질 수 없이 공식에 합해졌어요. 공식이다 하는 건 그 네 가지가 한데 합해졌으니까 공식이에요. 그 공식 안에는 너무 색색가지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사람이 들이고 내는데 함이 없이 들이고 내는 그 역할은 참 광대무변하다. 함이 없이 들이고 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더 살아가면서, 항상 부모 자식 형제 얘기 해 드리죠. 끈이 달려서 맺어 있는 게 아니라 인연줄이 붙어 있다고요. 탯줄이 붙어 있듯 인연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일을 잘못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고 속을 썩여도 잘못한 걸 번연히 알면서도 자식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단 얘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잘했든 잘못했든 자식이기 때문에 그 한가지가 남는 다는 겁니다. 그 남는 건 어느 부모나 다 똑같단 얘기죠. 근본은 자식의 근본이나 부모의 근본이나 다 똑같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죠.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고 부모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부모이니깐 버릴 수가 없고 천리만리 갖다 버려도 부모는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공한 뜻, 공생으로 사는 뜻, 공용으로 살고 있고 공식하는 것을 지금은 아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서 생활속에서 어떠한 거든지 질문을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함이 없이 하세요, 그대로. 생활이 그냥 그대로이니까요. 정신계가 따로 있고 물질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수레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그러다간 살아서 죽고 또 죽어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패기 있게 실천을 하고 가세요. 그냥 하고 가세요. 마음으로 떨지 마시고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두 번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떨지 마시고 패기 있고 넉넉하게, 아무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가지고 올 것도 없는데 왜 떱니까?

모두 공했다는 뜻을 아는게 급선무이죠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마시고 그냥 내면으로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면 돌 하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려야 버릴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오늘, 오늘뿐이 아니라 만날 질문하실 때 한발 걸었는데 한발 떼어 놓은 자리가 없습디다 하고 질문을 좀 하고 서로 토론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리라고 보는데…

한발 떼놓은 자리 없어

질문1: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삼신이 백일동안 보호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자연분만한 어린 아이에게 수일 내에 병원에서는 예방 접종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어린아이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어 그 어떤 병원체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태여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바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엄마의 초유를 먹이는 것이 더욱 건강한 아이를 만드는 예방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태어나서 수일 내에 예방접종을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질문을 올립니다.

스님: 부작용이 생기고 안생기고 그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생긴다 생긴다도 이유가 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하고 싶으면 말없이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겠다 이렇게 안해도 건강하겠다. 이게 여러분의 결정력이에요. 결정력. 결정을 짓는 법이란 말입니다. 가고 안가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냥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행하세요. 그렇게 행하시는 게 바로 실천이에요. 도를 배우겠다 뭘 하겠다 이러지 말고 실천을 한번 한번 해 나가시는게 그것이 도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를 배우러 이리로 저리로 모두 다니는데 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자기

☞ 20면으로 계속

가족 혹은 연인을 넘어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한발한발 패기있게 실천하는게 道

☞ 19면에서 계속

가 있는 그 한군데 모두 더불어 같이 있는 도를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데 가서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질문2: 깨달음을 추구하는 우리 신도들의 마음가짐에 관해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어느 선지식께 깨달음에 관해 질문을 드리자 깨닫기 전에 나무하고 물 긷고 깨달은 후에 나무하고 물 긷고 라고 답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을 뿐 외부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깨닫게 되면 주위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원활하고 편안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IMF의 영향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출될 때 마음의 아픔이 많았으며 퇴출 금융기관인 지금의 회사에 다니면서도 직장의 특성상 마음의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돌하나도 버릴게 없어

그리고 최근에는 피부에 염증이 생겨 손등 부위가 물집으로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보기 흉하게 되자 무심으로 주인공에 맡겨 놓고 활동하려고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눈길이 손등으로 옮겨가서 짜증스런 마음이 순간 올라오곤 합니다. 이러한 저의 마음자리를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선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 도반들은 이러한 실망감이 쌓이고 또 속히 깨달음에 이르고 싶다는 집착으로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깨달음이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부분이 아닐진데 한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도반들이 묵묵히 마음자리를 지켜보면서 한걸음 한걸음 깨달음을 향한 걸음걸이를 착실히 내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이거 내가 말하면 아주 쉽다고 말씀할는지 모르겠어요. 허나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활 자체가 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깨닫기 전하고 깨달은 후하고 이것이 마음만 변경이 되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항상 말하죠. 조금도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돌아간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자꾸 돌아갑니다. 그겁니다. 그 말씀한 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대로 활용을 하지만 함이 없이 그냥 한다.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것도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아픈 겁니다. 그것도 공부하라고 그런 거지 병이 들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도리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습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불어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텔레비젼에서 악마가 속에서 화해서 선지식으로 나왔다가 속에서 금방 변해서 악마로 변하죠. 그런데 거죽으로는 악마로 나왔다가 속에서 선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공부할 때에 속에 선신이 들어 있어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화해서 나툰다 하더래도 남을 위해서 해주지, 악이 속에 들어 가지고 거죽으로는 아무리 선지식으로 생겼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도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악만 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하고 따로 따로 있지만 이 공부하는 데는 선지식으로선 악도 없고 선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한생각이면 악도 바꿔지고 한생각이면 선도 바뀌지니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무리 착하게 선이 있다 하더래도 안된다, 선이 있다 하면 악이 들어가니 선만 있어도 안되고 악만 있어도 안된다, 양면이 다 없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우는 여러분이 이 모습과 생각의 욕심과 의식으로 모두 배겨 있기 때문에 급하게 뭘 좀 갖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거죠. 변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억수같은 장마가 져서 배를 타고 간다 해도 변경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선장이 내가 되고 배가 내가 되고 배에 탄 중생이 내가 되고 다 둘이 아닌데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는 것도 바로 내가 용인데 뭐가 잘못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안돼' 이러면 안 오는 거죠. 그래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진짜로 법이 될 수 있겠끔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 이겁니다.

질문3: 스님, 우리 손주 사랍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7남매 자손 한마음 공부하게 한마음 내시어서 이끌어 주세요. 이 말씀드리려고 제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스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셔서 도량껏 아셔서 하실려면 발바둥이 들어서야 알게 되겠죠. 여러분이 아셔서 여러분이 하셔야지 되는 거지 남을 기대기만 해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렵겠구나 하고선 어쩔 땐 그냥 제가 대신 심부름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대신 심부름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좋지만 다음에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게 어렵죠. 자식들도 그렇구요. 부모가 잘 배우면 자식들은 물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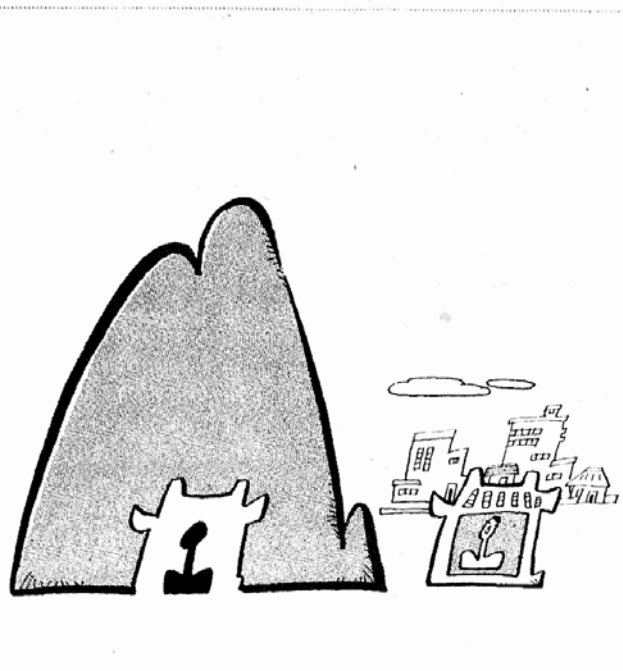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道는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왜 다른데 가서 찾으려 애쓰나

또 이생을 사는 거는 물론이겠지만 내생을 살려면 자기네들이 배워야죠. 여러분이 더불어 같이 살아야만 하기 때문에 전에는 모든 얘기를 해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각 사찰에 가셔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좋아요. 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얘기를 들으면 듣는 그 순간 그건 없어지고 과거로 돌아간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체험하고 실천해 보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깐, 외국에도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질문3: LA에서 왔습니다.

스님: LA에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면서 법회에 참석하세요. 법회를 보시고 달려 들으면은 그래도 어딘가 자기가 그런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가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설법하는 것도 거기 나오니까 꼭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꼭 실천을 하시도록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고정됨 없이 화하는 법

그래서 그 배우러 다니시더래도 각 사찰에 다닌다 하더래도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남의 것 좇아가서 잡지 말고 가질려고 애를 쓰지 않는 거를 배우세요. 여러 가지 잘 배우십시오. 그저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조금 있다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래 죽을지 이것도 모르면서 또 내생에 산다 하더래도 차원을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모습과 차원과 삶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는 대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좀더 현실이 미래이고 미래가 바로 현실이라는 거를 알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진짜로 지금 고생하는 여러분처럼 살지 않아도 신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생이 되더라도, 한생을 고생하시더래도 앉을 자리가 바로 자성불 앉을 자리가 다보탑이로구나,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자꾸 배워서 우리가 이 다음에 아니 지금 살면서부터 모든 걸 알고 가시고 과거의 어떠한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산중에서 공부할 때 무서운 거를 몰랐는데요, 산중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있었던 일이라 자기가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뛴, 거예요. 그런데 뛰다가 보니까 삘기풀에 그냥 엉덩이를 꼬나 박았죠. 박고 나서 아이구!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아이구 하고 엎드려져서는 아!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도 않는데 내가 뭘 보고 뛰었나 그러구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올라갔는데 엉덩이 아픈 것도 없어지고 거기에 나온 그 사람들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게 바로 공부를 할려면 그렇기도 하고 허하면 그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전자에 원수가 져서 꼭 너를 죽여야겠다 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얘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뭘 죽이고 자시고가 있겠어?' 어떤 걸 죽여 하니깐 눈만 말뚱말뚱 뜨고 쳐다보고 있더니 '그렇긴 그래' 그러더니 한데 합쳤대요. 그리구 나서는 영 집안에 그런 일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일들도 많죠.

새로 요사채를 지었는데 문을 열고 내다보고 섰으니깐 똑, 예전에 그 왜 이런 게 있죠. 나무로 짓고 거기서 내다 보고 섰는 내 모습, 그것이 딱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아무리 크고 좋은 데를 살아도, 큰데서 사는 게 아니요, 아무리 작은데서 살아도 작은데 가 아니라, 이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다,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죽기도 하고 잘못 살기도 하고 괴롭게 살기도 하고 또는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게,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잖습니까?

예전에는 여기 주위에 집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공양주 더러 오늘은 도선생님이 오실테니까 잘 좀 생각하라고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말 도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뭘 주시려느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이 쳐다보기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신사로 싹 재서 입구요. 그래서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면은 낮에 오시지 왜 밤에 오셨느냐구요. 신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 신사복이 더럽겠는데, 그러고 시계 있던거 하고 돈 몇푼 있는 거 하고 주니깐 받아 들고는 그냥 섰어요. 받아 들곤 섰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이 받아 들고 우두커니 들여다보곤 날 보고 섰어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섰다가 그냥 도로 주고 갈까 가지고 갈까 아마 걱정을 하는 모양이예요. 그러더니 시계는 빼놓고 돈만 가지고 아무 소리 없이 나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영 없어요 그런 일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패기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금 집을 비워놓고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집을 잠구고 가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하루 저녁 자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갔다 오니깐 말짱하게 고대로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꿈을 꾸니깐 군인들이 문 앞에도 서 있고 집을 뺑 둘러싸고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늦게 다니지 말고 빨리 다니더라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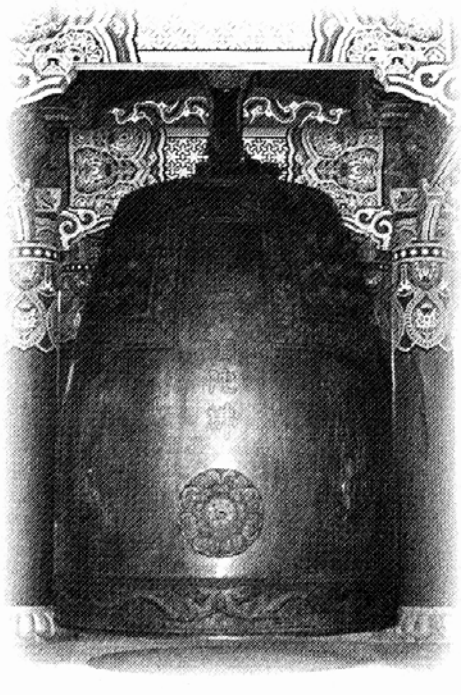
너와 나가 둘 아닌 도리

그리고 두번째는 집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돈 있는 사람들, 군인이였던 분들도 여기 와서 집을 지었는데 하루는 들어와서 앉았기는 한데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이층 방에서 보니깐 지하실에 있는데 지하실에 있는 걸 어떻게 불러야 놀래지 않고 나올까 하고 슬슬 내려가서 아무 짓도 안할테니까 나오라고 하면서 지하실에 불을 켜 놓고 그러니깐 한참만에 신발을 들고 나와요. 지하실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서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밤새도록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니깐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산대요. 요 아래서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내 줄테니 앞으로는 없으면 낮에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구 보냈는데요, 말이 쭉 많은데 간단하게 해요. 그랬더니만 그 이튿날 아침에 쌀하고 돈하고 해서 부모봉양 잘하라고 보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으니 불쌍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삭월세를 얻어 가지고 사는데 방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정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와서 얘기를 하지 어째서 그러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푼도 안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 봤느냐고 그랬어요. 한 스무살 좀 넘었겠나 그런데, 그래서 방을 전세로 얻을 거 하고 쌀하고 연탄하고 그때는 필요하니깐 그게, 그렇게 해서 보냈죠. 그러니깐 도둑이 도둑이 아니예요. 도둑놈 정말 있는데도 가지러 오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고 정말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와서 가져 가더래도 걱정 근심이 없죠. 그러니까 잊어 버리더래도 내가 잊어 버렸단 말하지 말고 보시했구나 참 잘 했다 이렇게 하세요. 그저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위 법문은 2000년 6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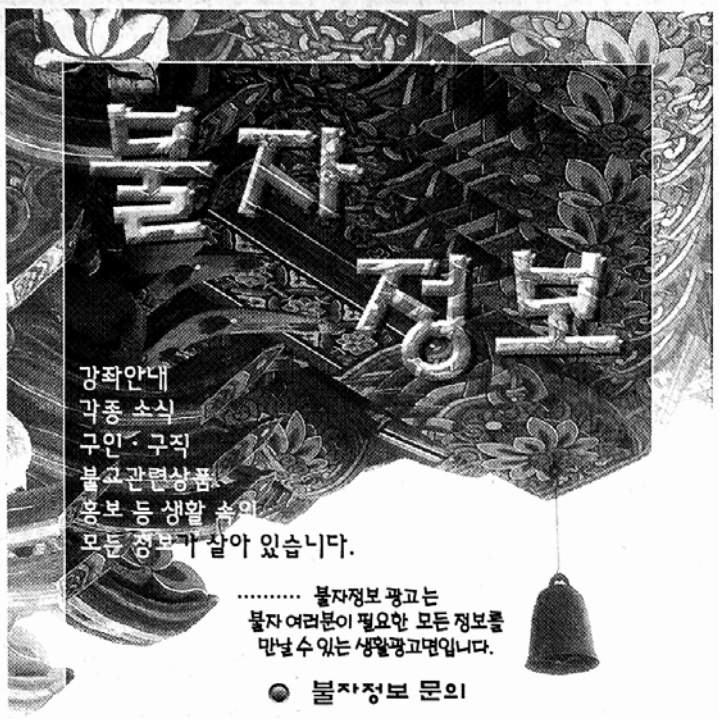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장인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칠자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외20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수맥(水脈)강의 안내
- 과정 : 기초부터 강의 • 강사 : 유준혁(수맥전문가)
- 과목 : 수맥 양택 음택(수강료 : 6개월 5만원)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 본회연혁 : 1983년 국내 최초로 설립 2000년 9월 현재 3,500여명 수강
- 위치 : 지하철7호선 상도역 1번 출구-30m 직전 기아 자동차 옆 순천향회 세종수맥학회

수맥, 온천탐사, 양택,음택 길흉 감정
문의 : 02)817-9996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명예인 성공인 승진인 사찰관인 영중인
600년된 버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사업성공, 건강 ▶부부화합, 승진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결혼성공, 득남득녀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 주문시 팩스로 성함과 원하시는 서체를 적어보내 주시면 7일이내 우송해드립니다
FAX : 983-9223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30명에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불상(佛像) 시주할 인연 구합니다
▶ 사정상 못 모시는 불상 탱화
▶ 인연공덕을 지으실 분 연락 주십시오
053)985-4675
018)512-5544

기도 휴양 공부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청상사 ◁
055)932-5706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
02)2234-3310

사찰안내

북한산 솔잎기름 신비의 묘약
PNO PINE NEEDLE OIL
▷ 솔잎에서 추출한 100% 원액
▷ 환경도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수집선별
▷ 솔잎1톤으로 600ml정유뿐에 추출하는 희귀의 묘약
▷ 심장강화 고혈압 및 혈관계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송일정유(PNO)효능
고혈압, 중풍, 정력증강, 노화방지, 당뇨병, 심장질환, 변비, 피부미용, 비만 위궤양, 소화기질환 기관지천식, 비염 치료 콜레스테롤 저하
■특별 보급가 : 20만원 (카드결재 가능)
053)982-6778 / 018)512-55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상계동 중앙시장 부근
- 평수 : 7평 (1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300만원

02)938-5573
011)271-2136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융자 포함 매 5억 2천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22)386-6467

암자(급) 안내
- 위치 : 충남 청양군 칠갑산에 자리한 풍수최적의 산세와 계곡 좋은 영험 기도 도량으로써 기도 · 휴양 · 공부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 함께 기도정진 할 인연있는 스님 · 보살님 · 재가 불자님들의 인연을 원합니다.
- 또한 건강이 안좋으신 분 수양기도 가능함
- 가액 : 전세 2천만원, 매매 4천 5백만원 (절충가능)

041)943-4279
016)355-1259

암자 안내
- 위치 : 경기도 가평읍
- 평수 : 2500평 이상
- 특징 : 계곡과 냇물이 좋음 산세 우람함

전원주택이나 별장도 가능
전세나 월세도 가능
017)708-0635

포교당 안내
종로구 종로5가 182-7번지
- 가액 : 답사 후 절충

상운사
02)2273-8484
016)207-561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금천구 시흥 5동 911-18호 **청 운 사**
- 대지 : 40평 방3개
- 가격 : 보증금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8)385-12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대지 : 50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동
- 가액 : 1억 3천만원

016)501-3671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
- 대지 : 271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특징 : 좌청룡, 우백호, 산신각 유명, 약수가 나옴
- 가액 : 8천 5백만원

011)526-1824

사찰 부지
▷가평군 북면 백득리 산 27번지 외 두필재
임야 : 17,500평
(준농 약 12,000평)
가액 : 8억 5천만원

▷홍천군 서면 모곡 인접
임야 ; 20,800평 (준농)
가액 : 9억

▷양평 서정 명달
토임 : 도필지 630평
가액 : 1억 3천만원

011)380-9168/011)229-11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고강시장 입구
- 법당 : 32평3층, 삼존불, 신중, 칠성, 후불, 산신
- 즉시 법회가능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35만원

금강 선원
032)678-7464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
- 평수 : 대지 132평
- 건물 : 인법당 16평 및 사무실 포함, 요사채 20평 (준비 중인 토굴)
- 가액 : 1,500만원

054)861-5235
011)9851-5235

포교당 운영하실 분
- 가액 : 삼천만원 (시설비와 세포함)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3층
- 평수 : 60평 대형 (주지실, 증무소, 후원)
- 시설 : 부처님 및 관음, 지장보살님, 나한님 세분 후불탱화 신중, 지장탱화와 바닥 3센치스폰지와 실크연등 300등 설치
- 특징 : 불교대학 1기생 수료

053)743-8835
011)540-721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
- 건물 : 3층, 30평
- 특징 : 부처님, 불기조성, 후불탱화
- 가액 : 천만원

031)721-1203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임법당 32평
- 가액 : 1억 9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011)232-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시장 근처 (법원 앞)
- 대지 : 50평, 건평 46평 2층 법당(2층 위치) 요사채(1층 위치)
- 특징 : 교통편리
- 가액 : 1억 8천

032)426-9490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지장,관음(동불조성),후불,신중, 칠성탱화,대북,범종,(불단조각,단집)경탁,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사 찰 안 내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 부 지 : 350평
- 법 당 : 법당 30평, 요사 40평
- 특징 : 뒤는 산세가 좋으며, 최고요지의 역사깊은 고찰임
- 가액 : 2억 3천만원

- 위 치 : 충북 충주시 소재
- 부 지 : 600평
- 법 당 : 법당 30평, 요사 60평
- 특 징 : 전통기도 도량이며, 전통사찰임
- 가 액 : 1억 8천만원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
018)273-939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안성	• 위치 : 부산
• 법당 : 11평	• 법당 : 15평	• 법당 : 35평
• 요사 : 25평	• 요사 : 15평	• 요사 : 45평
• 부지 : 425(국)	• 부지 : 420평	• 부지 : 60평
• 가액 : 2억 8천	• 가액 : 2억	• 가액 : 2억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지리산 시조암 선원 신축 안내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 방향 →가채마을 위
- 대지 : 422평황토방 한옥건물 2채 탑 돌레 18m 석축 기초완공 밭 349평 임야 2583평 총3,353평
- 특징 : 경관수려,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약 600고지,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8천, 전세 1억

011)9542-9060/055)963-496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방동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옆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욕실 및 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공원 입구
- 구조 : 52평 한옥건물 2채
- 특징 : 불교용품점 운영 가능
-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42)253-5037/016)327-5037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3천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사찰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신원면 (거창에서 약25분거리) 임야 2만평 차량 진입 (포장도로) 풍수 최적 명당 사찰터
- 가액 : 7천만원 (가격절충)

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구 구천동에서 5분거리)
임야 1천평 (5천만원)
017)542-7010

전망좋은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송계면 서하리
- 가격 : 토굴터 347평, 평당 3만원
- 특징 : 도로,평토,측량,전용허가 완료
- 위치 : 상동

절터 5000평, 평당 2만원, 도로 완비
055)963-3068
017)301-1970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 서울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건물 4층 방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3,000만원(법당시설 완벽함)
- 특징 : 주변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지역 도심포교에 적합함

토담집 개조 암자로 토굴 · 기도터 최적지
- 군위 우보 IC에서 10분거리
- 대지 169평 토담집 3채
- 양도가 3,500만원
- ※ 1년 사시면 반드시 發福터 - 마당 넓고 뒷산 명당지
- ※ 전세, 5년 분납도 가능
- ※ 처음 사찰 운영하실 분도 가능



- 군위 고로 인각사 부근
- 대지 151평 밭 724평은 집앞 100M 떨어져 있음
- 암반, 계곡 물 좋고 공기 좋고 산세 좋은 곳
- 황토집 2채 -불때면 3일간 따뜻
- 양도가 3,900만원

사찰, 칭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인양
- 대지 : 70평 건물 약 60평, 법당 20평 공양실 16평
- 특징 : 사찰내 모든 집기류 무상 제공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3개, 욕실 2개
- 가액 : 8천만원 (전세가능)

052)254-1929
011)9315-120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청 4거리
- 건물 : 임법당 법당 방3개 본존불 신중단
- 대지 : 67평 건물 30평 (한옥)
- 가액 : 1억 3천 (전세도 가능)

053)475-7504

전원주택 양도
- 위치 : 경남 의령군 봉수면 천계리
- 평수 : 140평 (대지)
- 건물 : 가옥 2채(정남형, 가옥간격 2m) 각각 행랑1, 방2, 주방(입식주방), 수세식화장실 (욕조있음)
- 특징 : 산밑에 위치(산세수려), 포장도로, 텃밭있음
- 가액 : 8천만원 (절충가능)가옥2채

055)573-9883

대사찰지 사찰양도(전세)
법당 五존 불상 석굴암 7척석불 굴안 50m 50평五층탑 간음보살 아미타불 山神각 요사채 34평 사찰부지 1,200평 양도가 2억 5천 미륵불지 조성완료 도로포함 500평 법당 요사채 조성 가능지 5百평 포함 1억 별도임 직접 스님 보살 30%감 전세분은 2~3년 후 사찰 매입가능한 분 영입 창건주 노령으로 직접 대사찰 조성할 분 영입. 사찰 밭(전지) 2,500평 임야부지 만평

충주 043)848-1766 / 019)848-1766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보문산 입구 내
- 대지 : 인법당 15평 방 7개 산신각 벽돌
- 부지 : 부교지 (사용허가 필)
- 가액 : 3,500만원

042)255-5063
011)498-6694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대지 : 720평
- 법당 : 5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종각, 미륵, 요사채, 고시 공부방 (각각있음)
- 가액 : 3억 5천

011)675-9828
063)453-2970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입니다.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800평 현재 천탑 천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액 : 2억 5천

018)533-7780/033)378-3845

유명 목수·단청장·기와장 참여

구인사 조사전 15년만에 완공

내달 5일 낙성법회 열어

상월원각 대조사 좌상 봉안

인간문화재 신응수씨 등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 단청장, 기와장 등이 참여해 장장 15년의 세월에 걸쳐 건립된 천태종 구인사 대조사전이 11월 5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천태종(총무원장 운여)은 11월 5일 오전 10시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존상 봉안 및 대조사전 낙성법요식을 갖는다. 이번 낙성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종단의 스님들과 신도, 조계종·태고종 총무원장 등 국내 주요 불교지도자가 대거 참석하고,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중국·일본·미얀마의 고승들과 지역 기관장 등 3만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회향식을 갖는 대조사전은 천태종이 '이 시대의 국보급 문화재'를 짓겠다는 원력으로 15년전인 지난 85년에 부지 착공식을 거행한 이래 종단의 총력을 기울여 세심하게 지은 건물로 낙성 전부터 그 규모와 조성양식, 예산, 재료 등에서 교계 내외의 관심을 모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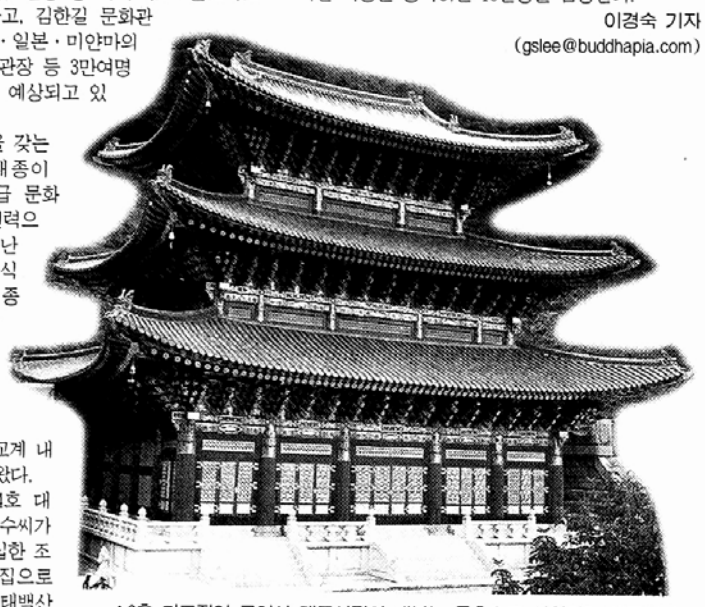
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씨가 도편수를 맡아 건립한 조사전은 3층 다포집으로 총건평 167평이며 태백산에서 나는 200~300년된 적송 60만재가 사용됐다. 특히 일체 쇠못을 쓰지 않고 전체를 나무로 짜맞추어 건립했으며 지붕의 기와는 기와장 오세필씨가 특별히 고안한 황자(黃瓷)기와를 사용하여 그 장엄함을 더하고 있고 단청 역시 금문양 세필단청으로 섬세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신응수 대목장은 "그동안 경복궁 등 많은 문화재를 복원, 건립해 왔지만 구인사 대조사전이야말로 이 시대의 국보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온정성을 기울인, 내 생애 최고 걸작품"이라고 말했다.

조사전안에 봉안될 금동으로 조성된 상월 원각 대조사 좌상은 높이가 약 4m로 세계적인 금동불 조각가로 알려진 최비덕씨가 조성했다.

한편 구인사는 행사 이틀전인 3일 경내에 대조사전 낙성을 봉축하는 10만등을 점등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3층 다포집인 구인사 대조사전의 내부는 통층으로 상월원각 대조사의 좌상이 봉안된다.



◇수원 용화정사는 8일 네팔에서 1000승재를 열고 국태민안과 티베트의 독립을 발원했다. 사진 왼쪽은 성관스님.

네팔서 통일염원 천승재

용화정사 주최 스님 1200명 불교중흥도 발원

수원 용화정사 주지 성관스님(수원불교연합회장)은 8일 네팔 카투만두 보트나트 불탑(세계 최대)에서 네팔의 티베트 스님 1200명을 초청해 인도·네팔·티베트 불교 중흥 및 남북통일기원 1000승재(千僧齋)를 거행했다.

수원불교연합회 소속스님 9명과 용화정사 신도 30명이 함께 한 인도·네팔 성지순례를 겸한 이번 천승재는 티베트 린포체 스님의 법문과 성관스님의 답례사, 감사장 및 선물 전달, 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광교산 야생화 심기

수원불교련 생태방생

우리꽃 심기를 통한 생태방생이 시범적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수원시불교연합회(회장 성관)와 수원환경운동센터(공동대표 박희영·정춘자)는 17일 수원 광교산 일대에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교산 보전을 위한 우리 꽃 심기 생태방생'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청련암 유치원생 300여명이 부모들과 함께 고사리손으로 부처꽃 타래붓꽃 돌마타리 벌개미취 매발톱꽃 섬초롱꽃 원추리꽃 층꽃 등 8가지 꽃 3000송이를 저수지 주변에 정성스럽게 심는〈사진〉 등 환경교육의 현장도 펼쳐져 생태방생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영산재가 봉행되는 가운데 굉, 산토끼도 함께 방생된 이번 환경방생법회에서 성관스님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방생한 야생화 생태방생은 토종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해 나비와 기타 먹이사슬에 연결된 중생의 해방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재경 기자

삼광사 국내최대 지장전 낙성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18일 국내 최대규모의 지장전 낙성 및 육지장보살 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도용 천태종 종정스님, 운덕 총무원장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과 안상영 부산시장을 비롯한 7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도량을 가득 메운 가운데 거행됐다.〈사진〉

주지 덕수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전 낙성이 부처님의 부모은중(父母恩重)사상과 전통의 효사상을 현실의 생활에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96년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서원으로 시작, 이날 낙성식을 봉행한 지장전은 총건평 2백64평의 2층 전통양식의 건물로 각종 천도재와 기제사 등 효사상을 계승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제1회 지리산 천왕축제

빨치산·토벌군 원혼달래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에서 숨진 주민과 빨치산, 토벌군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제1회 지리산 천왕축제'가 21, 22일 지리산 백무동 계곡 일원에서 열렸다.

지리산 천왕축제위원회(위원장 노길용)는 21일 혜공스님이 주관하는 화관무, 나비춤 등의 공연과 함께 천도재를 올리고 한국시인협회 소속 시인들의 위령시 낭독 등의 행사를 가졌다. 또 영호남 화합의 차원에서 전북 남원시립국악단이 초청돼 가야금 병창 및 연주, 민요창 등의 공연을 하고 '빨치산과 토벌군의 만남', 빨치산과 토벌군 후손 20여명이 함께 한 상여놀이를 재현했다. 김재경 기자

부산 보덕사 대웅전 낙성

송광사 부산 말사인 보덕사는 17일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비구니 금련회 회장 정훈스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외 7포 내 11포 51평 규모의 대웅전 낙성식이 봉행됐다. 특히 이날 이 지역 주민 포교에 전념해 온 주지 법인스님의 칠순이어서 송광사 방장스님이 법인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법인스님은 "대웅전 낙성으로 지역주민들이 기도와 신행의 장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부처님 법을 펴는 포교도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정심사 대적광전 완공

경기 하남 검단산 정심사(주지 원영)는 29일 오전 9시30분 대적광전 낙성 및 부처님 점안식을 거행한다.

이날 낙성법회는 육법공양, 108참회,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스님의 법문과 교육원장 일면스님 등의 축사에 이어 만등만화 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90.91 성철스님이 생전에 머물기도 한 정심사는 1985년 창건됐다. 성철스님의 상좌인 원영스님은 큰스님의 사리를 모시는 사리각도 지을 예정이다. (031)791-7732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은해사 1191주년 개산재

제10교구 본사 은해사(주지 법의)는 15일 대웅전에서 은해사 창건 1191주년 기념 개산대재와 함께 보살계 수계식을 가졌다. 이날 개산대재에는 이의근 경북도지사, 박헌기 국회의원, 조동호 영천부시장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가했다.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809년) 혜철국사가 창건했다.

수덕사홈페이지 새단장

제7교구 본사 수덕사(주지 법장)는 최근 수덕사의 역사와 법맥, 본말사 소장 성보를 인터넷에 소개하는 등 홈페이지(www.sudoksa.com)를 새롭게 단장했다.

주지 법장스님은 "본말사의 각종 신행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산중사찰이 포교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장덕사 열반상 점안

순창 장덕사(주지 청암)는 11월 5일 열반상 및 10대 제자상과 반야심경석경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점안하는 열반상은 높이 3m, 길이 11m 규모로 마애열반상으로는 국내 최고를 자랑한다.

진각종

내년예산 164억원 의결

종의회(의장 휴명)는 19일 제 323회 정기종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163억9천여만원을 의결하는 한편 심인당 인접부지매입 및 국제포교, 복지불사 등의 예산증가에 따른 올 추가경정예산 15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종의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37억 7천여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포교, 교육, 복지 등 종단 3대 종책불사와 관련 각각 20%의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40%는 통리원과 교육원 등 종단행정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종의회는 또 제10대 종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효암(희락심인당 주교) 대정사와 현수(승원심인당)정사를 선출했다.

종조열반절 추념불사

16일 오후 2시 총인원 종조전에서 각해 총인,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등 종단 스승들과 손제석 위덕대 총장 등 종립학교 교장, 신행단체장, 진각복지재단 산하기관 대표, 신교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7주기 종조열반절 추념불사를 봉행했다.

성초 통리원장은 이날 추념사를 통해 "진언행자들은 현실에 자만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각오와 뜻을 펼쳐 종조님의 무진서원과 선대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들고 새 세기 문화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넓혀 나가자"고 했다.

법륜종

통일기원 영산대법회

총무원(원장 덕산)은 23일 충북 청원 현암사에서 종정 정각스님과 총무원장 덕산스님 등 스님들과 신도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 평화통일 기원 및 호국선열 천도 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총화종

종도 중앙 연수교육

종정 등광스님, 총무원장 남정스님, 포교원장 청해스님 등 종도 150명이 동참한 가운데 16일부터 2박3일동안 제18차 중앙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원로원장 야옹스님의 화엄경과 금강경 강론, 남정스님과 청해스님의 특강, 법계고시가 실시된 뒤 18일 회향했다.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화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

· 동양철학의 초보자 및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없는 기회로서 선천법도가 가고 후천법도로써 동양근본철학으로 인격완성과 수명, 재산, 건강관리를 보호할 수있는 법과 현대의학과 한방으로도 치유가 되기 어려운 마음의 문을 여는 심연의 법과 동양철학과 풍수지리의 비장법인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비전으로 이어온 「감여보감」과 「일사보감」에 감추어진 명당비법 직강 – 장풍법, 황천법, 팔효법, 산삼재법 12생띠들이 들어가야 할 명당비법을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직강 최첨단기 강의법, 명당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법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육경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아그린 달마상은 언제보아도 눈과 몸이 보는이를 따라 다는는 신출괴물한 비법은 새 태양의 운기로써 흉한일을 당하려면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운 집과 흉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장,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집에 소장하시고 순금골드 99.9 달마상 지니시여 건강, 부귀영화, 수명장수 말문이 터지지 않는 및 각종 경쟁에서 승리하시고 삼재소멸하소서.

용맹정진 개천절 대운맞이 제60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하늘이 열리는 10월 상달에 대운 받아 도통군자되소서

후천미륵 달마법도의 태양에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과 있어도 보고듣지 못하는 원방각에 감추어진 해인도법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10월 28일 10월 29일, 자시와 오시에 사명자들에게 다시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증상운 180세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도인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재 못하면서 제멋대로 지꺼리는 잡도에 끌리여 눈먼 거북의 종행 동타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즉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日本은 우리의 강산에 쇠못을 밖고 중궁헌원황제는 우리의 마음에 쇠못을 밖은 사실을 당신은 알고계십니까?

이 법의 소식은 象·形·萬有 법의 잣대로 설계 법측, 법척 천공, 만유의 각 5대 주문이 없는 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어떠한 도통도 불가하며, 다만 잡신에 끌리여 억망진창을 왜 모르며 몸에 태산같은 중병과 욕심과 명예의 삼독을 벗고 말문이 열리는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특히 이번 법회는 하늘이 열리는 달이므로 몸에 천병, 잡신, 살이찌는병을 소멸 도통군자들에 수명이 늘어나고, 육신을 보호하는 만법을 통할 수 있는 법회에 동참하시고 소원성취하시어 사명자, 진인도통하시어 일류의 스승 되소서.

● 입 제 : 양력 10월 28일 밤 10시 ~ 10월 29일 亥時시
● 회 비 : 일금 5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토요일 밤 입제
●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일요일밤 해제
● 전 화 : 02) 821-6622 / 야 923-3110 / 016) 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7호선 신대방역 하차 버스 85,25,95,26,303,26,142,26-3 모자원고개 하차 전화요망)

雄祖. 진인경신도통회장 天龍眞人 泰日法師
대한불교 약사선원장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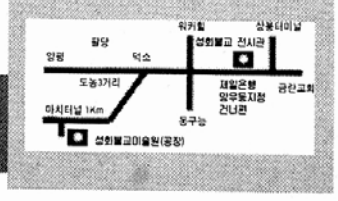
대표 이상식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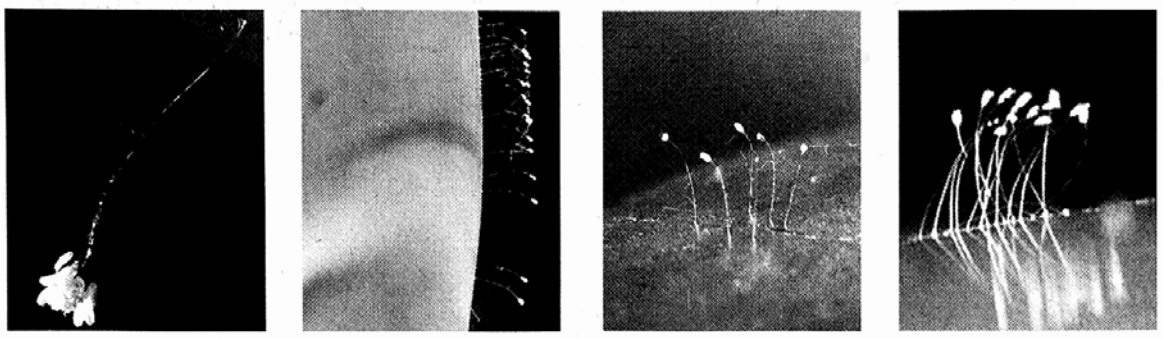
주·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광수사, 청계사, 연주암 불상에 핀 '꽃'. 승용차 차체에서도 발견됐다.(왼쪽부터)

'우담바라' 맞나?

"형태상 곰팡이류"
"우담바라 신드롬 부처님 진리와 배치"

청계사 · 연주암서 잇달아 발견…스님 승용차서도

3천년만에 한 번 핀다는 신비의 꽃 '우담바라'. 최근 경기도 의왕 청계사 극락보전 관세음보살상과 관악산 연주암 대웅전 석가모니불에서 발견된 '꽃'은 과연 '우담바라'인가.

청계사(주지 종상)는 관세음보살상에 21송이 꽃이 핀 것을 계기로 108일 무차정진대법회를 열기로 하고 17일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초청해 입제식을 거행했다.

17일 꽃을 발견한 연주암(주지 탄묵)도 꽃이 피어 있는 동안 기도를 드리기로 하고 27일 입제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꽃이 경전에서 말하는 우담바라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전에 따르면, 신령스런 꽃인 우담바라는 매우 드물고 희귀함을 뜻할 때 비유로 쓰이는 가상의 식물이다.

〈법화의소〉에는 "인도에 그 나무는 있지만 꽃이 없고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면 이 꽃이 핀다"고 기록하고 있다. 〈혜림음의(慧琳音義)〉에는 "우담바라는 하늘꽃이며, 여래가 세상에 태어날 때 피고 이상적인 통치를 하는 전륜성왕이 세간에 표출하면 대복덕으로 말미암아 감득해서 이 꽃이 핀다"고 하였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이런 미묘한 법은 여래께서 때가 되어야 말하는 것이니, 마치 우담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느니라"고 했다. 〈일체경음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과 같이 하늘에 피는 꽃이며, 세간에 이 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활엽수의 한 종을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를 상징하는 꽃이라 하여 '우담바라'로 부르고 있다.

97년 8월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고 홍보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총무원 호법부는 근거도 없는 홍보에 불자들이 현혹되고 있다고 판단, 주지 동봉스님을 불러 경과를 조사하고 '우담바라 홍보 중지와 사과문을 발표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우리절 주지 동봉스님은 "확실치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우담바라꽃이라 홍보해 불자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힘으로써 당시 우담바라 소동은 마무리됐다.

올해 들어 불상에서 '신비한 꽃'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 대전 광수사와 청계사, 연주암 등 세 번째다. 또 19일에는 울산의 한 스님의 승용차 차체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청계사 불상의 '꽃'을 살펴본 야생화 연구가 김태정박사는 "저러한 곳에 생물이 자랄 수는 없다. 목조건물이고 벌레들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형태상으로는 포자(곰팡이)종류이다. 하지만 현재 포자 종류중 이런 종이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우담바라' 신드롬에 대해 이근후교수(이대 의대 신경정신과)는 "현대인들은 늘 불안을 느끼면서 산다"며 "신비한 현상에 의존하여 불안을 씻으려는 무의식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생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우담바라' 신드롬은 부처님 진리와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군 종교 불균형 심각"

김태호의원 국방부 국감서 문제제기

군대내 종교시설이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있고, 장병종교현황에서도 타종교에 비해 군종법사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군내 종교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호의원(한나라당 불자회장)은 19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장병들의 종교분포가 일반국민의 종교분포현황과 현저히 다르다"고 밝히고 "이는 근본적으로 군종장교와 종교시설의 불균형에 기인한 현상"이라며 균형있는 군내종교정책과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같은 불균형이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3천6백만명 가운데 불교인구 9백50만명(26.5%), 개신교 6백70만명(18.6%), 천주교 2백50만명(7%)으로 나타난 통계청 자료와, 육해공군 약 69만명의 군인 가운데 불교 15만2천명(25.3%), 개신교 31만2천명(52%), 천주교 7만8천명(12%)으로 나타난 국방부 자료를 비교할 때 그 편차가 심하며, 이같은 결과는 군대내 종교시설물과 군종장교가 특정종교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방부 자료 중 현재 군내 종교시설물이 전체 종교시설물 1409동 가운데 불교가 384동(23.3%), 기독교가 899동(60.3%), 천주교가 243동(16%)으로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있는 사실과, 불교가 114명(23%), 기독교가 307명(61.7%), 천주교가 76명(15.3%)으로 나타난 장병종교분포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군승의 숫자가 적은 군종장교현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두식 기자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은 23일부터 11월19일까지 낙동강 도보순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새만금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조계사 농성장에서 결의를 밝히는 순례단원들.

"새만금 개발 전면중단하라"

환경단체들 조계사서 밤샘농성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범불교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200여개 환경 · 사회 · 종교단체들은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새만금농성 선포식'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참여 단체들은 조계사에 설치된 천막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26일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시위 · 집회를 비롯해 100만인 서명운동, 새만금갯벌 살리기 쌀 사주기 운동, 기도회 및 촛불행진, 국제사회와의 연대 등의 행사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지리산 살리기 · 댐백지화 범불교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문규현 신부등이 참여했다.

김재경 기자

하와이 무량사 창건 25돌 기념 '교민과 함께'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 창건 25주년 기념 봉축 위원회(위원장 차윤진)'는 '하와이 교민과 함께하는 축하의 장으로'라는 주제로 22일 현성스님과 혜성스님 초청 창건 25주년 기념 특별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또 24일에는 관소리 명창 김영옥 선생을 초청, 심청가등 국악공연을 열어 하와이 교민들에게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게 했다.

이에 앞서 15일에는 '헌다식 및 다도강의'를 열고 교민과 현지인에게 전통 차문화를 소개했다. 주지 도현스님은 "내년 개관예정인 한인문화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지 미국인 포교에도 앞장서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무량사는 한인문화원 건립 불사에 동참 할 국내불자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001-1-808-735-4679. 김원우 기자

구미 금오복지관 '학대아동 쉼터' 운영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이 '학대아동 쉼터' 프로그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유기 · 방임 · 학대받는 환경에 놓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아동 쉼터'는 7~10명의 아동을 시설에 수용해 학습 및 자연교육, 취미생활 등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랑의 전화, 편지쓰기, 부모상담 등 아동과 가족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금오복지관은 복지관 인근에 시설을 마련했으며, 12월6일 개소식을 갖는다.

금오복지관은 또 학대아동 상담센터를 마련하고 학대아동 신고접수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054)458-0230 한명우 기자

"종교언론 전문경영인제 도입"

언노련 토론회서 제기

최근 CBS의 파업 돌입과 순복음교회 장로들의 국민일보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종교언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문순)이 1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호 서울산업대(언론학)교수는 '종교(재단)언론의 문제진단과 발전방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종교언론은 선교(포교)매체이면서 언론매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일반언론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통제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종교언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종교내부의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단이나 사주, 사장이 일방적인 경영형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종교언론사들이 안고있는 문제점으로 정치지향성과 권언유착, 재단의 지배구조 문제, 편집 · 경영권 문제, 임금체불 등을 지적한 김 교수는 "종교재단이나 소유주, 대리경영자들은 언론의 공공성에 관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며, 사주 · 사장에 의한 일부 종교언론사의 경영 황폐화와 관련 "경영자의 업무지시권이나 인사권은 편집 · 편성행위까지 미칠 수 없다는 인식과 함께 소유주가 편집활동은 물론 경영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CBS와 국민일보 노조위원장은 최근 양사의 경영파행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김승수 전북대 교수,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임순혜 KNCC 언론위원, 조정진 세계일보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저시력인 연대 "꽃 싸게 사세요"

'사찰과 불자들에게 꽃을 제작해 드립니다.'

질병 · 사고 · 유전(약시) 등의 원인으로 손상된 시력이 회복 불가능한 시각장애인들의 모임인 전국저시력인연대(대표 미영순)가 꽃바구니, 꽃다발, 화분포장 등을 사찰과 불자들로부터 주문받아 제작 판매하고 있어 화제다.

꽃을 제작하는 저시력인들은 모두 6명. 재활교육과 취업을 위해 지난 봄부터 저시력인연대가 시작한 화환제작 교육을 받은 이들은 신심 돈독한 불자들답게 사찰과 일반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같은 일을 계획하게 됐다.

이들의 꽃 판매는 이익을 남기려는 영업차원이 아니다. 꽃을 팔 경우 꽃값은 저시력인연대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꽃을 산 사찰이나 불자들에게는 후원금 영수증을 제공한다. 사찰과 불자들에게는 시중가보다 싼 값에 꽃을 제공하고, 또 꽃을 산 사찰과 불자들은 저시력인들의 후원자가 된다.

꽃 판매를 시작한 지는 불과 일주일 전. 아직 홍보가 안돼 주문량은 적지만 이들은 오늘도 정성스레 꽃을 다듬고 한껏 모양을 낸다.

미영순대표는 "사찰이나 불자들의 꽃 주문은 저시력인들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불교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포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02)593-3396, E-mail: lowvision@thrunet.com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부처님의 기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 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 / 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天蓊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이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붉게 타는 가을산 보고 또 보고…



◇묘적봉에서 맞이한 해오름. 해 아래는 풍기와 영주 고을이다.



◇묘적봉에서 바라본 도솔봉. 죽령을 사이에 두고 연화봉과 마주서서 소백산의 남쪽 줄기를 장엄한다.

백두대간 속으로 〈23〉

저수령→도솔봉→죽령

해마다 봄·가을이면 청명한 날을 골라, 아껴 보던 책들에 바람을 쐬어 주시는 한 스님이 있었다. 그 때만큼은 상좌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사는 이들도 책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는데, 평소에도 스님은 책을 읽을 때 허투루 만지면 바스라지기라도 할 듯 소중히 다루었다고 한다. 이보다 더 지극한 책 사랑이 또 있을까 싶다.

그 스님이 바로 성철 스님이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스님께서는 생전에 늘 납자들에게 책 읽기를 경계하곤 하셨다. 그러나 나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스님의 두 태도에서 조금의 모순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을 나는, '무겁게 구한 자만이 쉬 버릴 수 있다'는 귀한 가르침으로 받들어 새긴다. 일찍이 어떤 애서가를 통해서도, 이후 어떤 학인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만나지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책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사물의 궁극에 다가가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 산을 오르는 행위는 책을 읽는 일과 다르지 않다. 채움과 버림의 동시 작용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당장의 소용에 닿는 이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가을 산을 걸을 때는 한껏 해찰을 부리는 것도 괜찮다. 그러다 어디 볕 좋은 너럭바위라도 만나면, 주저없이 앉아서 온갖 잡동사니 생각들을 널어 말리며, 개중에 쓸만한 것 몇개만이라도 여물게 할 일이다.



◇ 묘적봉 오름길에 잠시 멈춰선 취재팀.

워낙 가파른 고갯마루라서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는 저수령(底首嶺, 848m)에서 소백산의 허리를 타고 넘는 죽령(697m)까지, 이번 산행의 목표다. 드상 거리만 18km 남짓 되는 그리 만만치 않은 거리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구간에는 산 이름을 온전히 갖춘 봉우리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 속내를 알고 보면, 아쉬울 것도 이상할 것도 없다. 사실상 저수령서부터가 소백산의 품이라고 봐야 옳기 때문이다.

우선 봉우리의 이름부터가 소백산의 품 안임을 말해준다. 저수령에서 곧장 올라서면 '촛대봉(1081m)'이고 그곳에서부터 하루 해를 바치면 '묘적봉(1148m)', 연이어 '도솔봉(1314.2m)'이다. 도솔봉에서 내려서서 죽령을 지나면 제2, 제1연화봉을 지나 마침내 '비로봉'이니, 이 모든 봉우리들이 하나같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저수령에서 촛대봉까지는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힐 시간이면 충분하다. 때마침 이번 산행은 그믐이 가까웠던데다 저녁 노을도 자취를 감춘 늦은 시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촛대봉에 올랐을 때 별들은 이미 토실토실 여물어 있었다.

유난히 반짝이며 어둠의 밀도를 높이고 있는 별들과 눈맞춤해 본다. 누운 자세여서 고개를 들지 않아도 되니 더욱 좋다.

숲이 두런거린다. 선장에서 깨어난 아이마냥 뒤척이는 바람 탓이다. 그래도 바람결은 아직 투실하다. 말라버리긴 했어도 아직 나뭇가지들이 잎사귀를 달고 있기에 바람살이 상처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발새 안녕할 수 있을 것 같다.

촛대봉에서 내려섰다 올라서면 투구봉(1110m). 그곳에서 아침을 맞는다. 아직 비로봉은 아득히 멀다. 도무지 사람의 발길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인 양. 흰 구름을 덮고 누워 있다.

투구봉 주변에는 유난히 투구꽃이 많다. 그 꽃을 보노라니 슬며시 객쩍은 생각이 고개를 든다. 만약 전장에서 장수들이, 진보라빛의 저 투구꽃을 닮은 앙증맞은 투구를 쓰고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면, 과연 싸움이 이루어질까? 겁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네 인간사에서는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일상의 폭력성. 역시 문제는 그것이다. 필요 이상의 것, 제 몫이 아닌 것만 탐내지 않아도 다툼의 원인은 거의 소멸될 텐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투구봉에서부터 도솔봉까지는 대체로 원만한 길이다. 우뚝 솟은 봉우리도 깊숙히 내려앉는 허리도 없어서 물결한 느낌은 없지만, 창창한 느낌은 눈부실 만큼이다. 더하여, 드물지 않게 눈에 띄는 마가목의 붉은 열매는 태양의 속알맹이가 딱 저렇겠지 싶을 정도의 순일한 붉음으로 눈을 환하게 한다. 바라만 보아도 자연의 원초적 힘을 나눠받을 것 같아서 보고 또 본다.

이렇게 두리번거리다보니 어느덧 묘적봉이다. 코앞의 도솔봉은 압도적이리만큼 웅장하나 그렇다고 보는 이의 기부터 꺾고 보는 그런 형국은 아니다. '도솔'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꼭 그만큼의 장엄이다.

줄이은 봉우리 비로봉 향해 합장
도솔봉 '자연의 조화' 설법하는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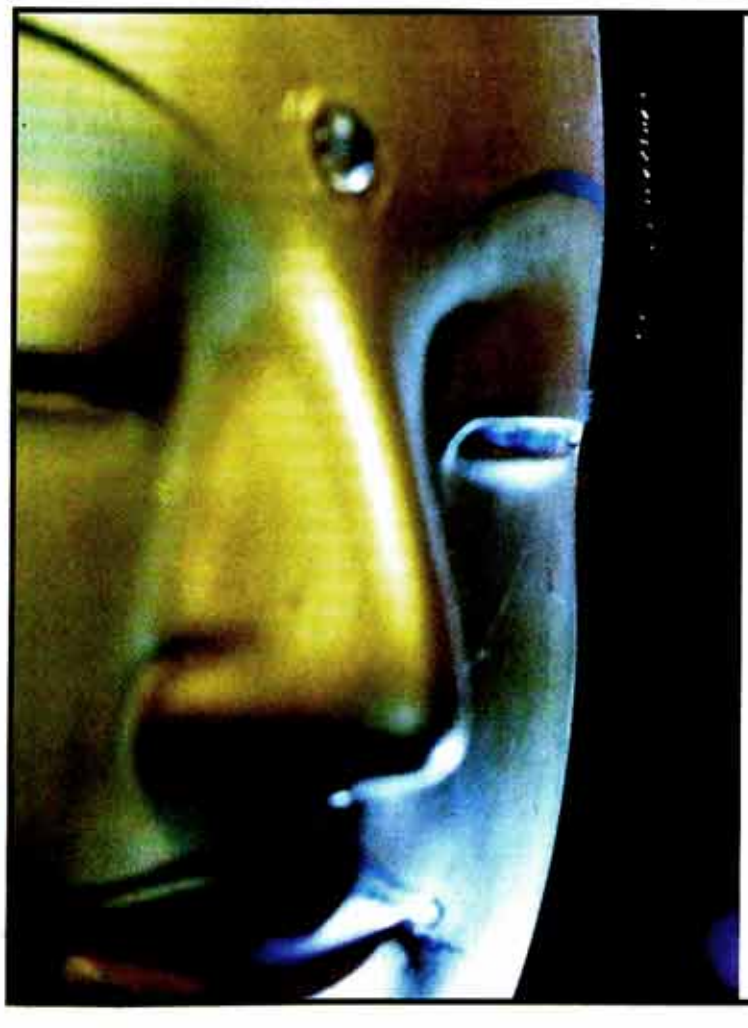
때맞춰 도솔봉에 저녁 노을이 걸린다. 놓기도 전에 먼저 빼앗기는 넋. 이미 내 것이 아닌 나의 넋 또한 저 노을 한 귀퉁이에서 수줍게 물든다. 이곳이 만약 어린왕자의 나라였다면, 자리만 조금씩 옮겨 앉아도 오래도록 노을을 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자연의 시간은 탈곡만큼의 오차도 없고 내 보폭은 턱없이 짧다.

또 아침. 도솔봉을 앞에 두어선지 소백산의 웅죄가 더욱 근사하다. 저홀로 잘나지 않아서 더욱 아름다운 저 모습. 조화는 자연의 또 다른 이름.

묘적봉에서 바라본 도솔봉은 손 내밀면 닿을 듯 가깝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2시간에 가까운 거리다. 높이와 높이 사이의 숨은 공간을 눈치채기 힘들기 때문이다.

도솔봉의 정상 직전은 돼나 긴장이 필요한 암릉이다. '도솔'에 이르려면 이 정도의 공은 들여야지 하는 듯이. 그러나 도솔봉에서부터 죽령까지는 편안한 내리막이다. 시작 부분에서는 조릿대 숲 푸르름을 나누어 받고, 끝날 무렵에는 물름에 저 흘러내리는 샘물로 갈증 달래면 이내 죽령이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관세음 보살님 우담바라로 나투셨네

청계사 108일 친견 및 무차정진 대법회

청계산 청계사의 관세음보살님 상호(얼굴)에서 3,000年에 한 번 핀다(法華經)는 우담바라 꽃이 21송이나 피었습니다. 우담바라는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 정진하여 불국정토를 이루라는 거룩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청계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우담바라 친견 108일 무차대법회를 매주 화요일 및 초하루·지장재일·관음재일에 21분의 원로 대덕큰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108일 동안 용맹정진과 친견대법회를 봉행하오니 전국의 불자님들께서는 세세생생 만나기 어려운 이 법회에 동참하시여 참 불법을 깨닫고 속회 성불하는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입 제 일 : 불기 2544년 10월 17일(음,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회 향 일 : 불기 2545년 2월 1일(음, 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동참문의 : 청계사 종무소 ☎(031)426-2348, 2221
■온라인접수 : 109-030451-01-055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 청계사)



대조계 한불교종 청계산 청계사 주지 김종상 합장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 11번지 ☎(031)426-2348 Fax(031)426-3666